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야고보 알베리오네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단편모음집(1953-1957)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인간 양성
사회의식
노 동
섭 리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
우리 양심의 증언

성바오로딸수도회

바오로 영성 센터 엮음
csp@stpauls.it
ⓒ 성바오로수도회 총원, 로마 2005

출판 승인 및 허가
2005년 4월 4일, 로마
실비오 삿시 신부Sac. Silvio Sassi,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

성바오로딸수도회 엘리사베타 카펠로Elisabetta Capello 수녀님과
성바오로수도회 마우리치오 티라펠레Maurizio Tirapelle 수사님의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작품 머리글자: ACV

차 례

책 머리에 11
일러두기 18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들어가면서 21
1. 지혜의 찬사..... 25
2. 원리..... 26
3. 나는 진리다..... 28
4. 하느님에게서 오신 당신이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9
5. 오류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31
6. 스승인 교회..... 32
7.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33
8. 영광의 빛..... 34
9.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다..... 36
10. 여러 단계..... 37
11. 현세의 삶..... 38
12. 잘못과 여러 가지 잘못..... 40
13.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41
14. 사랑이 충만한 지적 광채..... 43
15. 나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 44
16. 낭비한 탈렌트!..... 46
17.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47
18. 하느님의 역설..... 48
19. 불꽃을 키워라..... 49
20.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50
21. 우리의 길..... 51
22. 이성의 빛과 신앙의 빛..... 52
23. 성령의 은사인 지혜..... 53
24.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56
25. 착한 의견의 어머니, 상지의 옥좌이신 마리아..... 56
26. 이상은 행동으로 향한다..... 58
27. 불타는 이상..... 59
28. 지배적인 생각..... 61
29. 사고방식 61

30.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요소..... 62
31. 역효과를 내지 마라..... 64
32. 감각적인 사고방식..... 65
33. 인간다운 사고방식..... 66
34.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67
35. 언제나 우리 자신을 다스릴 것..... 69
36. 수도자의 사고방식..... 71
37. 바오로인의 사고방식..... 78
38. 사제의 사고방식..... 80
39. 모든 사고방식의 넋..... 82
40. 성경..... 84
41.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87
42. 지성의 병..... 89
43. 치료를 위한 대책..... 91
44. 지성의 타락을 방치하지 마라..... 94
45. 사상..... 95
46. 위험한 경향..... 96
47. 지성의 죄..... 99
48. 성령을 거슬러..... 101
49. 양심의 소리..... 102
50. 깨어있음!..... 103
51. 기억과 상상력..... 105
52.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대책..... 107
53. 머리를 써서 일할 것..... 107
54. 성령의 칠은 베푸소서..... 109
55.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버려라..... 112
56.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113
57. 지성으로 짓는 죄..... 114
58. 자유로운 지성의 탁월함..... 115
59. 나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116
60.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 117
61. 진리의 기둥이요 버팀목..... 117
62. 진리의 종들..... 118
63.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120
64. 좋으신 주님, 저희 지성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소서..... 122
65. 면학..... 123
66. 통제..... 124
67. 확실한 방법..... 125

68. 영성체 125
69. 양심성찰, 고해성사, 영적 지도 127
70. 성체방문 129
71. 묵상 131
72. 미사 133
73. 경건한 행동과 정신으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 134
74. 지성의 고독 136
75. 그대 자신을 돌보고 주의하십시오 137

인간 양성

들어가면서 143
1. 원리 147
2. 좋은 지원자를 선택할 것 151
3. 신체적 자질 151
4. 공동생활의 전제조건 152
5. 정결 준수의 전제조건 152
6. 청빈정신의 전제조건 153
7. 사도직의 전제조건 154
8. 순명정신의 전제조건 154
9. 지적 자질 154
10. 외관外觀에 대해 155
11. 도덕적인 면에 대해 155
12. 예의 바름 156
13. 성격 형성 157
14. 마음의 양성 158
15. 상상력 교육 159
16. 신체 단련 160
17. 맺음말 161

사회의식

들어가면서 165
1. 원리 168
2. 사회학 연구 169
3. 수도회 안에서 169
4. 성소의 표지 171
5. 타고난 성품 172
6. 초자연적 토대 174
7. 수도자가 지녀야 하는 사회성 175

8. 사회성을 거스르는 죄 178
9. 사회성을 거스르는 위험 요소 179
10. 성소에 부합하는 표지 180
11. 사회성의 수단 181
12. 교회의 사회성 182
13. 바오로가족 사이에 185
14. 국내 관계 192
15. 국제 관계 193

노 동

들어가면서 201
1. 원리 203
2. 노동의 존엄성 206
3. 존엄성의 근거 207
4. 노동에 대한 교육 208
5. 성 바오로 사도 210
6. 근면 212
7. 게으름 214
8. 자선 215
9. 수도적 청빈 217
10. 바오로인의 기본 재산 219
11. 노동을 가르칠 것 221
12. 균형 잡힌 노동 222
13. 헌신과 항구함 223
14. 시간 활용 225
15. 최선을 다할 것 228
16. 초자연성 229
17. 좋은 편집 230
18. 기술적 노동 231
19. 보급 232
20. 휴식의 본질 232
21. 스승 예수님과 마에스트로들 234
22. 성소자 235
23. 노동을 위해 236
24. 신앙 237
부록-노동의 여왕이신 마리아 239

섭 리

들어가면서 245
1. 원리 247
2. 풍성한 수단 250
3. 성공의 비결 252
4. 바오로 협력자 회지와 협력자들 254
5. 현명함과 열의 255
6. 하느님 섭리를 방해하는 것 256
7. 하느님을 본받을 것 257
8. 맺음말 258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

들어가면서 261
1. 기도합시다 264
2. 하느님의 것인 그대의 육신 264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드림 265
4. 신적 기원 266
5. 주님, 저를 알게 하소서 267
6.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269
7. 죄의 결과 270
8.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271
9. 육신의 구원 272
10.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 273
11. 부활할 육신 275
12. 경이로운 영광 276
13. 영혼과 육신 278
14. 재축성 279
15. 여러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느님 279
16. 마지막 축성 280
17. 세상을 떠난 회원들을 생각하자 281
18. 욕되게 하지 마라! 282
19. 탐식 283
20. 혀 285
21. 저희 영혼과 육신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 286
22. 육욕 286
23. 순결 교육 287
24. 예수님과 마리아께 대한 사랑 288
25. 태만 289

26. 사랑할 때 289
27. 의지의 역할 290
28. 의지를 교육할 것 291
29. 은총 293
30. 사랑스런 육신 294
31. 복음과 위생은 조화를 이룬다 295
32. 극기의 법칙 296
33. 성공의 비결 298
34. 훌륭한 싸움 299
35. 사도직 300
36. 내면의 교육학 301
37. 인내 302
38. 영혼과 육신의 건강 304
39.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 305
40. 그대 자신이 의사가 되시오 306
41. 의사醫師의 선택 307
42. 지혜와 나이와 은총이 더해 갔다 308
43. 기도 309

양심의 증언

들어가면서 313
1. 가장 숭고한 교육의 의무 315
2. 오류 320
3. 교육 325
4. 젊은이와 어른을 탈선에서 구할 것 326
5. 의지를 강화할 327
6. [마리아께 대한 신심] 329
7. [사말에 대한 묵상] 330
8. [맺음말] 332

책 머리에

이 책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당신이 창립한 수도회의 회원들을 위해 쓴 일곱 편의 소책자를 모은 것인데, 통합된 사도적 양성을 위해 하느님 백성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1950년-1960년초까지 10년간에 쓴 것으로서, 이 시기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던 시기였다. 사실 잘 알려져 있듯이, 1945년부터 그는 자신의 생각과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다지고 체계적인 형태로 다듬는 일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였다.

「인간의 길*Via humanitatis*」과 카리스마의 역사를 담고 있는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Abundantes divitiæ gratiæ suæ*」가 출간된 것도 이 시기였고, 창립자가 이 책의 주제를 연구 발표하여 「성 바오로*San Paolo*」지에 발표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 시기에 창립자는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에 모인 바오로가족을 대상으로, 바오로 영성의 중심 주제에 관한 기념비적인 묵상을 설파했다. 또한 「스승 예수에 관한 대백과사전*Enciclopedia su Gesù Maestro*」(「성 바오로」지 1959년 9월호에 게재된 〈예수에 관한 연구 개요Schema di studio su Gesù〉 참조)을 집필하려는 꿈을 결정적인 방식으로 실현시켜나가면서 한 달 간의 영신수련(1960년 4월)을 위해 아리차에서 '모임'을 준비한 것도 이 시기였다. 이 영신수련 동안 카리스마의 주요 노선과 적용방식을 결정적으로 요약했다.(「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Ut perfectus sit homo Dei*」 참조)

앞으로 각 내용에 관해 상세히 다루겠지만, 50년대에 설교한 내용을 연이어 출간할 계획으로, 이 책에서는 「성 바오로*San*

Paolo」지에 발표했으며, 1954년과 1956년에 각각 출간한 「바오로 가족에게*Alle Famiglie Paoline*」와 「지성의 성화*Santificazione della mente*」 두 권에 실린 일곱 편의 소책자를 한데 모았다. 이 두 권은 창립자의 영명축일인 성 요셉 축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한 응답으로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바오로가족에게 선물한 것이다.

「성 바오로」지에 발표한 소책자를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섭리La provvidenza(1953년 1월)
2. 사회의식에 관해Per Coscienza Sociale(1953년 11월)
3. 노동Il Lavoro(1954년 1월)
4.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Portate Dio nel vostro corpo(1954년 2–3월)
5. 인간 양성Formazione umana(1954년 성 요셉 축일)
6.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Amerai il Signore con tutta la tua mente(1954년 9월–1955년 5월)
7. 우리 양심의 증언Testimonium conscientiæ nostræ(1957년 3월)

다음 두 권의 모음집에서는 나열 순서가 바뀌었고, 제목도 수정했다.

I. 「바오로가족에게*alle famiglie paoline*」(1954년 성 요셉 축일):
   인간 양성Formazione umana
   사회적 양성Formazione sociale
   노동Il Lavoro

섭리La Provvidenza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Portate Dio nel vostro corpo

II. 「지성의 성화*Santificazione della mente*」(1956년 성 요셉 축일):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Amerai il Signore con tutta la tua mente

양심 교육에 관한 마지막 소책자는 「성 바오로」지에만 나온다.

이 책에서는 연대순을 유지하면서도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이미 채택한 주제별 순서를 우선했다. 더욱이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를 강조했는데 그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이 글은 일곱 편의 소책자 가운데 내용이 가장 잘 전개된다.(이 주제의 글은 다른 모든 것을 합한 것 만큼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 이 글을 통해 알베리오네식 '인간학'의 근본원칙을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 셋째, 이 글의 제목이 주제 전체를 잘 요약해주기 때문이다.

각 소책자를 다루는 시점에 이르면 이에 대해 몇 가지 관련자료와 고유 노선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여기서는 전체적인 특성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보는 것으로 그치고자 한다.

양식과 독특한 내용

1. 알베리오네 신부의 다른 여러 소책자 가운데 이 일곱 편의 소책자에는 '두 가지 특징' 곧 구체성과 교육적-양성적 염려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째, '구체성' 은 연륜(저자는 70대였고, 바오로가족의 창립이 마무리 되는 때였다)과 함께 본질적인 것의 성숙 결과를 말한다. 무엇보다 아주 오래도록 실행한 다양한 직무를 통해 성숙된 결과로서 과도기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식별하게 해준다. 분명한 판단력은 창립자 안에 개인과 교회의 변화에 대한 현실적 시각과 탁월한 실천적 사고를 갖게 했다.

둘째, '양성에 대한 염려' 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갈라 4,19 참조) 그들의 성장을 위해 언제나 신중한 지도가 필요한 자녀와 제자의 아버지요 양성장임을 자기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끊임없는 염려에서 나온 것이다.

지속적이고 완전한 양성 (또는 되풀이해서 즐겨 언급하던 '통합적 양성')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알베리오네 신부는 초기 저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부터 60년대 절정기의 요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1960-1962)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저서에 실제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었다. 이 주제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의 저서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고, 봉헌 삶과 사도적 삶의 여러 측면에서 교육학적 목적으로 늘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일곱 편의 소책자를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곧 지성에서 출발하는 견고하고 구체적이며 통합된 양성, '그리스도교적 수도적 사도적 바오로적 사고방식' 의 양성, 기초 윤리덕과 사회 윤리덕을 가르치는 인간 양성, 섭리의 의미를 지닌 노동과 활동을 위한 양성,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양심의 양성이다.

2.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바오로인의 관점을 지닌 '사도적 인간학'에 기여한 이 소책자를 소개한다. 비록 그의 양성시기에 인간학과 심리학은 새로운 학문분야였고 잘 알고 있었음에도, 알베리오네 신부는 결코 인간학과 심리학에 정통한 전문가인 체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석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간 행동과 현상을 직시했고, 그러한 분석은 '학문적으로' 심리학파와 견줄 만큼 예리하고 현실적이었다. 이 분야의 그 어떤 전문가도 수많은 사람, 젊은이와 어른, 남성과 여성의 양성장으로 87세의 삶을 살아온 바오로가족의 창립자만큼 이 '분야'의 실제적인 권위자로 자칭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면, '지성의 훈련'에 관한 내용과 '좋은 결실을 내는 전략'에 관한 내용 일부를 다시 읽어보면 될 것이다. 그 내용에는 알베리오네식 학생, 사제 그리고 미래에 탁월한 영적 구조물을 세울 건축가의 자화상이 정교하게 세공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언어가 세련된 심리학보다는 낡은 수덕신학 냄새를 더 풍긴다는 섣부른 반박에 대해 이러한 실제적인 면을 재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수많은 말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체험한 진리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의식이 진리와 직관적 공감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3. '양식에 관해 말하자면', 알베리오네 신부는 미적인 면이나 문체의 효과에 연연하지 않았다. 알베리오네 문체는 항상 꾸밈이 없이 본질적인 내용만을 표현하는 특징이 있다. 곧 나무의 가지들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놓아두었고, 잎사귀와 꽃을 중요시했다.

때때로 가지가 가늘어 보이지만 많은 열매를 맺기에 충분하며 폭풍우도 견딜 만한 힘이 있다.

당시에 통용되던 출판 경향은 '라틴어 인용'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는데 당대 종교문학에서도 통용되던 관습이었다. 이러한 관행이 우리 시대에서는 독서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본문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여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했고, 관련자료를 추가하거나 (인용하지 않은 경우) 각주에 번역을 실었다. 제목은 라틴어를 그대로 두었는데, 이는 원문을 참조하고 대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역주: 한국어판에서는 라틴어를 번역 처리했고, 제목은 번역하여 각주로 옮김)

제목에 관해 한 가지 더 주목할 사항은 각 소책자 안에 있는 소제목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직접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용과 잘 맞지 않아도 그 제목을 수정하지 않았다. 알베리오네 신부 대부분의 저서에서 제목은 체계적인 기준(구조와 순서)뿐 아니라 실천적 세부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흐름이 논리적이지 않아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므로 특별한 개념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문서 작성상 수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성경본문과 라틴어 인용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한 경우, 저자가 직접 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탈리아 주교회의 성경 CEI의 번역본을 사용했다.(역주: 한국어판은 한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에서 편찬한 성경을 사용함)

– 성경자료 또는 문학자료를 표기할 때 참조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현재 사용하는 표기를 인정하면서 본문 안에 묶음표[…]를

넣었다.

– 각주는 정보를 주고, 설명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성격으로 도입했다.

– 각 소책자의 소제목 앞에 붙인 숫자는 필요할 경우 인용하기 쉽도록 붙인 것이다.

– 단어나 구두점 표기의 수정은 저자의 특이한 기록을 존중하여 문법과 문장 구성상 필요한 경우에 실행했다.

말할 수 없이 불완전한 작업이었으나,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완숙된 가르침이 지닌 본래의 힘과 생명력을 독자들이 맛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창립자의 풍요로운 결실은 바오로 가족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 결실을 가져다주리라 확신한다.

2005년 1월 25일, 로마
성 바오로 회심축일에
바오로 영성센터

일러두기

1. 이 책에서 채택한 본문은 성바오로수도회 내부 소식지 「성 바오로」에 게재된 것이다.

2. 창립자의 저서 인용에 관해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어떤 출판본이든 그리고 어떤 언어로 출판되든, 이탈리아어 원서 출판본의 쪽수를 유일한 기준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쪽수는 본문 양 옆 여백에 표기했으며, 쪽수가 문장 가운데서 바뀔 때에는 세로획 '|'으로 표시했다.

그러므로 이 책의 본문을 인용하기 위해서도 이 책의 쪽수가 아니라 여백에 명기한 출전을 가리켜야 한다.

3. 이 책 말미에는 「성 바오로」지에 이어서 출간된 「지성의 성화」와 「바오로가족에게」의 쪽수 대조표를 실었다.(역주: 위의 글들이 한국어로 변역 · 출간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말 번역에는 대조표를 생략한다. 본문이나 각주에 실린 전례기도문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의 것으로 현행 기도문과는 차이가 있다.)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들어가면서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주제를 창립자는 「성바오로」지 1954년 9월호, 1954년 10월호, 1955년 1월호, 1955년 3월호, 1955년 5월호, 이렇게 5회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기고했다.

제목은 신명 6,5의 유명한 구절에서 차용한 것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7)는 말씀을 재인용하신 것이다.

이듬해(1956년)에 발간된 책자에서는 표제가 「지성의 성화」로 바뀌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있어 동일한 것이다. "지성의 성화는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DF 65항 참조)

본문에 차례로 나오는 많은 소제목은 바오로 서간과 전례에서 따온 것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생각하고 글은 쓴다는 것은 사도 바오로가 생각하는 주제와 전례를 상기시킨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본문은 기본원리를 기초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 첫 기준점은 언제나 스승이요 필수적인 진리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성의 주재자, 복음의 주재자, 진리의 스승이요 교회의 주재자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학이다.

하느님의 모상이요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형성하는 것은 지성이다. 인격 계발은 지성에 달려 있다. 가장 큰 공로와 가장 큰 죄도 "지성에서 이루어진다. 적어도 지성 없이는 결코 발

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구원하는 진리를 전하는' 출판 사도직의 시급성이 대두된다. 진리를 준다는 것은 "하느님을 인간에게 주는 것이요 인간을 하느님께 인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길어낸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창립자 신부는 부지런하고 주의 깊게 독서를 했고, 수많은 저서와 여러 저자에게서 자양분을 섭취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창립자가 영향을 받은 일부 저서의 특징을 구분해낼 수 있다.

저자에게 아주 강한 빛을 준 작품은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디비니 일리우스 마지스트리*Divini illius Magistri*」(1929.12.31)다. 교황은 이 회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스도교 교육의 직접적이고 고유한 목적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참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교육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오로의 생생한 표현에 따라, 세례성사를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써 그리스도와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 (갈라 4,19)"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저서는 교구 참사위원 프란치스코 키에사Francesco Chiesa 신부의 「생명의 열쇠」[1]였다. 이 저서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1932)에서 분명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활용했다. 일부 내용은 (예를들면, 신앙의 불꽃을 키워야 할 필요에 관하여) 심지어 '글자 그대로ad litteram' 본문을 옮겨 놓

1. Can. F. Chiesa, 「생명의 열쇠*La Chiave della vita*」, Pia Società San Paolo, Alba-Roma 1927.

은 경우도 있다. 참사위원 키에사 신부의 「스승 예수」[2]에 관한 내용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제2부(참 스승이신 예수)와 제3부(우리의 의무)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또한 여러 가지 숙고, 관련 효과, 이익,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자주 영향을 준 것도 「깊이 생각하라」[3]는 키에사 신부의 또 다른 저서였다. 더 나아가 알베리오네 신부는 '지성의 질병' 과 치료를 위한 대책에 관해서는 자기 교수요 영적 지도신부인 키에사 신부의 가르침에 의존하고 있다.[4]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의 몇몇 관점, 특히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언급해야 할 필요성, 학생은 "교육을 받으면서 훈련된다."는 것을 강조한 점, 훈련과 따라야 할 방법의 필요성, 확신과 실제적인 선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점 등은 헝가리의 저명한 교수 토트 티하머Toth Tihamer 박사의 많은 논문에서 차용했는데, 박사의 저서들은 40년대 이탈리아에 매우 널리 알려져 있었다.[5]

또한 유명한 아돌포 탄퀘리Adolfo Tanquerey의 「수덕신학과 신비

---

2. Can. F. Chiesa, 「스승 예수*Gesù Maestro*」, Pia Società San Paolo, Alba-Roma 1926.
3. Can. F. Chiesa, 「깊이 생각하라*Pensarci su*」, Pia Società San Paolo, Alba-Roma 1939.
4. Can. F. Chiesa, 「현대 정신과 필요성에 따른 교의신학 사전*Letiones theologiae dogmaticae recentiori mentalitati et necessitati accomodatae*」, vol. III, 성령에 관한 논고Tractatus de Deo Spiritu Sancto, Alba 1930.
5. 저서들 가운데 특히 다음 작품을 나열하고자 한다. 「젊은이 양성*Formazione del giovane*」, Venezia 1933; 「청년기의 특징*Il carattere del giovane*」, Venezia 1935; 「젊은이의 영적 교육자*L'educatore spirituale del giovane*」, Venezia 1938; 「그리스도와 젊은이*Cristo e il giovane*」, Venezia 1940.

신학 개론」[6]의 영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를 토대로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가 양성되었을 만큼 중요한 지침서였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위에 언급한 저자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독창성을 드러내는 것임이 분명하다. 사실, 아마 그 어떤 저자도 창립자만큼 지성의 능력에서 출발하여 천상 스승께 우리를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고 힘있게 다룬 저자는 없을 것이다. 곧 복음적 사고방식으로 지성을 키워야 할 필요성, 일상의 선택 방향을 제시할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바뀔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할 의무….(DF 65쪽 참조)

끝으로 의미심장한 시대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이 주제는 스승 예수의 해(1955)를 준비하고 거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창립자는 바오로가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 풍성한 열매맺기를 기대했다.

6. A. Tanquerey, 「수덕신학과 신비신학 개론*Compendio di Teologia Ascetica e Mistica*」, Roma– Tournai–Paris, 1927.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신명 6,5)

"주님, 성령께서 저희 지성을 비추시어 성자의 언약대로 모든 진리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소서."[1]

SP, 1954년 9월호, 1쪽

* * *

하나의 생각을 심으면 하나의 행동을 거둘 것이다.
하나의 행동을 심으면 하나의 습관을 거둘 것이다.
하나의 습관을 심으면 하나의 성격을 거둘 것이다.
하나의 성격을 심으면 하나의 운명을 거둘 것이다.[2]

1. 지혜의 찬사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1. 원문에는: "Mentes nostras quæsumus, Domine, Spiritus illuminet, et inducat in omnem, sicut tuus promisit Filius, veritatem."(전례) 로마 미사경본, 성령강림 시기 4주간 수요일 본기도 참조.
2. 위에 나오는 성령께 드리는 기도에 이어서 나오는 지혜의 찬사 사이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생각의 힘과 효과를 분명히 드러내는 이 유명한 격언을 삽입했다.

지혜에 비하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있었다.
지혜가 이끌고 왔으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혜의 소산임을 몰랐다.
나는 욕심 없이 배웠으니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지혜가 지닌 많은 재산을 감추지 않는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보물,
지혜를 얻는 이들은 그 가르침이 주는 선물들의 추천으로
하느님의 벗이 된다."(지혜 7,7-14)

2. 원 리

1)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 스승이요 유일한 스승이시다. 그분은 "나는 진리이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신 대로 진리 자체요 본질이고 영원한 진리, 영원에서부터 성부께서 낳으신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길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은 최고로 그리고 초자연적 성장을 이룬다.

2)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직관, 곧 직관 속

에서 사랑과 기쁨을 지향하고 있다. 신앙을 통해 직관에 이른다. 보기 위해 믿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히브 11,6)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단죄한다.

3) 인간은 특별히 지성 때문에 고귀하다. 이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요 하느님을 닮았다. "무릎을 꿇고 머리 숙여"[3], 곧 지성을 굴복시킴으로써 그리고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 지성을 현명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느님께 첫째가는 흠숭을 드리게 된다.

4) 가장 큰 공로도, 가장 큰 죄도 지성에 의해 발생한다. 적어도 지성 없이는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알고 믿는 것'에서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고, '알게 된 진리를 거역하는 것'에서 비로소 미움이 시작된다.[4]

5) 첫째가는 덕은 지성의 훈련, 곧 '신앙'이다. 성령의 은혜 중에 처음 네 가지, 곧 지혜(슬기), 통찰(깨달음), 지식(앎), 의견(일깨움)은 지성으로 방향지어져 있다. 씨앗처럼 신앙에서 갖가지 덕이 돋아난다. 신앙은 '모든 의화의 뿌리'[5]다.

6) 생각에서 말과 감정과 행동이 나온다. 조종사가 비행기를 조종하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지성은 사람을 이끌어간다.

7) 출판 사도는 구원하는 진리를 전해야 한다. "아버지께서 나

---

3. Francesco Petrarca, "Canzone alla Vergine."

4. "impugnare"(반대하다. 공격하다)라는 고어古語는 "combattere"(싸우다), "oppugnare"(공격하다)라는 의미다. '알게 된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비오 10세의 교리서에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5. "신앙은 인간 구원의 시작이요, 모든 의화의 토대요 뿌리다Fides est humanæ salutis initium, fundamentum et radix totius justificationis."(트리엔트공의회 6회기, 8장)

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41)라고 하셨듯이 천상|스승의 후계자다.

SP, 1954년 9월호, 2쪽

3. 나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스승으로 오셨으며, 스승으로 인정을 받으셨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요한 1,1-2.14)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말씀하셨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느님에게서 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느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요한 8,46ㄴ-47)

교회가 천상 스승을 묘사하는 표현은 아름답다. '평화의 광채', '영원한 광명', '위대한 조언의 천사', '참된 빛', '영원한 지혜', '사도의 스승', '복음사가의 스승',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지니신 분', '증거자의 빛' ….[6] 이 표현들은 복

6. 중세기의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호칭 기도'에 포함된 호칭들(Litaniæ Sanctissimi Nominis Jesu).

음서에서 30회 정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부르는 호칭의 또 다른 명칭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 호칭을 승인하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요한 13,13]

집회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다."(1,5)

4. 하느님에게서 오신 당신이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7]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요한 11,28]

예: 알바에서 1909년부터 1917년까지 교구사제와 신학생에게 여러 번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감실 안에 현존하시는 스승 예수를 방문하는 성체조배 시간을 갖게 했다.

흠 숭

구원하는 지혜를 전하도록 성부께 파견된 천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흠숭.

– 본질적이고 영원하신 진리시요, 성부의 광채이신 분께 드리는 흠숭.

– 우리 지성의 주재자요 우리의 동의를 받으실 권리를 충분히 지니신 분께 드리는 흠숭.

– 교리, 신학, 거룩한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가르침의 주재자이신 분, 길 진리 생명이신 유일한 스승이요, 네 복음서의 저자께 드리는 흠숭.

7. "Scimus quia a Deo venisti magister."(요한 3,2)

– 스승, 그분의 신비체인 교회의 창시자께 드리는 흠숭.

– "세상의 빛"[요한 8,12]으로서 사람을 가르치고 비추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위로하는 감실 안에 사시는 분께 드리는 흠숭.

감 사

– 외적인 것을 깨달아 알고 인식하도록 주님이 감각, 특히 시각, 청각, 촉각, 후각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계획을 실현시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요한 1,3]는 말씀은 하느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첫 계시다. 자연에 대한 온갖 교육과 연구는 창조주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위대한 책을 읽는 것과 같다.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로마 1,20]

– 우리에게 이성의 빛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 하느님이 지상낙원에서 성 요한 복음사가[8]에게 지극히 높은 진리를 계시하고자 계획하신 것에 대한 감사.

– 계시를 해석하고 보존하며 진리를 오류 없이 가르치는 스승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 세례성사 때 신앙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보 속

–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늘 선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8. 창세기의 저자와 묵시록의 저자를 비교 · 암시하고 있다.

보속.

– 지성의 귀한 탈렌트를 자주 헛되게 또는 해로운 일에 낭비한 것에 대한 보속.

– 신앙정신을 지속적으로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한 보속.

– 거룩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며 확실하게 선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속.

– 사람들과 사회에 진리의 빵을 제대로 주지 않았거나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한 보속.

은혜를 얻기 위한 청원

– 신앙 체험의 은총으로 믿음을 살아가게 이끄는 신앙 성장의 은혜.

– 성령의 네 가지 은혜: 지혜(슬기), 통찰(깨달음), 지식(앎), 의견(일깨움).

– 사도직과 거룩한 직무에 필요한 거룩한 신학과 다른 학문 연구에 대한 사랑.

– 성경, 특히 복음서와 성 바오로 서간의 독서와 묵상에 우선권을 두는 은혜.

–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느님 백성 모두를 위해[9] 적합하게 이야기하고 쓸 줄 아는 은혜.

5. 오류에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원조의 타락은 제일 먼저 일어난 가장 큰 오류였다. “하느님처

9. 원문에는 ‘그리스도의 백성plebs Christi’.

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창세 3,5 참조]라고 거짓말의 마왕이 꾀었다. 그 후 인간은 오류에서 오류로 빠져들었다. 옛 철학자들도 인간을 위해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원죄 때문에 빚어진 현실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류에게 종교에 관한 진리 전체를 오류 없이 확실하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했다. 오류는 지금도 하느님의 계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어나고 있으며 | 계속 증가할 것이다.

SP, 1954년 9월호, 3쪽

더 나아가 종교에 관한 초자연적 진리, 곧 계시는 초자연적 단계로 드높여져야 하는 인간에게 절대로 필요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의 결과인 무수한 오류와 무지에서 인간을 구해내신 구원의 첫째부분이다.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그의 노력과 업적, 직무, 사도직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은 거짓과 배반과 착각의 함정에 빠질 것이다.

풀다Fulda의 수도원에 있는 성 보니파시오에게 바친 동상 받침대에는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10]라고 새겨져 있다. 복음 위에, 복음을 위해 집을 짓는 사람은 폭풍우와 파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을 것이다.

6. 스승인 교회

올바른 인간이 되고 세례에 이르도록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로 세상의 회개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

10. "Veritas Domini manet in æternum."(시편 117[116], 2)

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1코린 1,17]라고 말한 성 바오로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사도 9,15] 하신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따랐다.

사도들, 위대한 선교사들, 교리교사들 모두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적 존재인 인간 본성을 '존중한다'. 인간이 주님께 찬미와 순종의 예배를 드림은 합당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입니다."[11]

7.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12]

"그대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하느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13]

일반적으로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이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듯, 지적인 삶은 미래의 우리 모든 행복을 비추는 중심이요, 원리가 될 '지복직관'을 위한 특별한 준비다.

지복직관은 어떤 피조물의 매개 없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하느님을 뵙는 것이 특징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 공통된 직관적 인식에서처럼, 그 어떠한 관념의 도움 없이 하느님의 본질 자체가 우리 지성에 직접 결합되어 관념의 역할을 한다. 직관은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거룩한 광채인 영광의

11. 로마 12,1: "rationabele obsequium."
12. 루카 21,28: "Levate capita vestra."
13. 라틴어 원문: "Prius te oportet credere, ut postea per fidem Deum merearis aspicere."(S. Agostino, *En.* in *Ps.* 65)

빛을 통해 실현된다. 이 빛은 지복직관에 이른 복된 인간 지성에 덕성을 통해 침투하여 하느님 뵙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지복직관에서는 지성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뵙는다. 지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조물을 하느님이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요한 10,34)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준비는 신앙생활뿐이다. 사실 준비는 반드시 지향하는 목표와 되도록 비슷한 형태를 띠어야 한다. 물론 지성은 하느님 안에서 사는 훈련을 신앙을 통해 하게 된다. 신적 진리란 믿어야 할 신앙의 진리가 아닌가? 지성이 전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 권위에 관한 것이 아닌가? 신앙인이 믿는 것은 이성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믿고 있는 신비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지성에 있어서 이러한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살기 위해 단순히 인간적인 삶보다 뛰어난 새로운 삶, 지성의 희생과 극기,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8. 영광의 빛[14]

성부는 당신의 신적 본질을 영원에서부터 관조하시면서 말씀Verbo을 낳으시고, 이 신적 본질을 완전히 표현하는 한 말씀Parola

14. "복된 빛Lumen gloria": 성 토마스의 표현이다. "…Est etiam quaedam beatorum in patria ad quam elevatur intellectus per lumen gloriæ, videns Deum per essentiam, inquantum est objectum beatitudinis…."(S. Tommaso, *Expositio super Isaiam*…, cap. 1, 1. 1)

을 하셨다. 이 말씀 Verbo와 Parola는 제2위격인 성자요, '성부의 말씀'[15]이시다. 더 나아가 성부와 성자는 서로 관조하시며, 실체적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신다. 이 사랑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불꽃이다.

이처럼 하느님의 내적 생명은 성부 안에 그 원천이 있으며, 성자 안에서 빛나고, 성부와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신적 순환'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하나이면서 셋이요, 셋이면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단테는 정확한 신학적 관점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드높은 빛의 깊고 해맑은 독립체 속에
빛깔은 셋, 부피는 하나인
세 개의 둘레가 나한테 보였으니
마치 이리스(무지개)에서 이리스처럼
나한테서 반사되는 듯 보이고
셋째는 둘에게서 똑같이
뿜어나오는 불같이 보이니라.[16]

복된 이는 하느님이 당신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빛을 통해 하느님의 본질을 함께 바라보기 위해 이 신적 생명의 순환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철을 달구는 열이 철을 빨갛게 달구면서도 태워버리지 않는 것과 같이 영혼의 본성을 파괴하지 않고 드높여준다. 이것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요, 천상 성부의 왕국에서 하

15. Verbum Patris.
16.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천국」, XXXIII, 115 이하.

늘나라의 식탁에 앉는 것이다.

SP, 1954년 9월호, 4쪽

9. 인류에게 선물을 주셨다[17]

사실 인간은 참 신앙을 통해 무한히 높은 단계로 드높여진다. 이 단계를 향해 초자연적으로 일하고, 초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으며 초자연적 상급을 받게 된다. 마치 야생 올리브에 좋은 올리브 싹을 접목시키면 야생 올리브가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접목되면 그 결실과 일이 인간의 것이면서도 그분의 것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드높여진다.

그러나 신앙의 꽃은 거룩한 태양 빛 아래서만, 곧 성령의 열기 아래서만 피어난다. 그래서 트리엔트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성령과 그의 도움이 선행되어 영감을 받지 않고도 신앙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파문을 당한다."[18]

사실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연관된다. 삼단논법의 결과는 두 가지 전제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듯이, 초자연적 공로는 그 뿌리 곧 원인이 초자연적 본성이라야만 검증될 수 있다. 신앙을 통해 행동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히브 10,38) 수도생활은 '가장 활기찬' 신앙생활이다. 만일 신앙이 바래면 수도생활을 포기할 것이다. 아직은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가장 좋은 것이 부패하면 가장 나쁜 것이 되기"[19] 때문이다.

---

17. 에페 4,8: "Dedit dona hominibus."

18. 트리엔트공의회 6회기, 의화에 관한 교회법 3.

19. "corruptio optimi pessima.": 키케로의 표현을 대 그레고리오 성인이 인용했다.

이성을 사용하게 된 인간은 의화에 이르기 위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느님께 협력해야 한다. 인간의 으뜸가는 능력은 영혼의 능력이요, 그중에 지성이라는 능력이 있으며, 신앙행위는 이 지성에 속한다. 모든 인식이 감각에서 출발하듯이 모든 행위는 지성에서 출발한다.

10. 여러 단계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1요한 5,4]

신앙에는 선량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수도자의 신앙, 사도의 신앙, 사제의 신앙이 있다. 모두가 믿어야 할 신앙조항이 있고, 모든 사람의 구원에 필요한 신앙의 단계가 있다. 그러나 수도자는 자기 삶을 위해 어떤 고유한 진리에 의지하고 있듯이 사도의 삶과 사제의 삶은 이러한 면에 있어 더 풍부하다.

예를 들면 수도자는 결혼보다 동정성이 우월하고, 일반적인 청빈과 순명보다 복음적 청빈과 순명이 우월하다고 가르치는 신앙의 진리에 매료된다.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느님과의 친밀함과 통교에 대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들은…"[마태 19,28 참조] 하신 말씀에 걸맞는 사람에게 주시는 지상에서의 백배와 천국을 보증하는 신앙의 진리를 더 깊이 느낀다. 이 신앙에 의해 더 넓게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으며, 참된 행복을 더 깊이 맛보게 된다. 수도생활을 통해 천국을 앞당겨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도와 사제는 예수님이 특히 사도들에게 주신 아주 풍요로

운 가르침과 진리를 믿어야 할 것이다.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루카 22,26]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6]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 "너희는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참조: 마르 16,15; 마태 28,19]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사제의 열의, 생명, 기쁨인 이 빛 속에서 즐기고 느끼며 일해야 한다.

11. 현세의 삶

"여러분 앞에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있다."[20] 철학자와 영적 스승은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모든 일의 끝을 생각하라."[21] 우리 삶은 이 지상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우리를 영원으로 넘어가도록 재촉한다. 로마에 가고자 한다면 반대방향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다.

인생은 짧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사실 이 인생에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 또는 불행이 결정된다.

삶의 목적은 행복한 영원, 곧 지성, 의지, 마음, 육신이라는 인간 '전체'의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의 지체가 온전해도 장애(정신장애)가 있거나, 심장 또는 혈액에 병

20. '두 가지 길'이라는 은유는 성경과 그리스도교 문학에 자주 등장한다.(참조: 신명 30,19; 집회 15,17; 「디다케」 I,1-6)

21. 'in omnibus rebus respice finem' 이라는 표현은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에서 다룬 내용으로, 「준주성범」 1권 4장 1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있다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지성, 의지, 마음이라는 인간 전체가 건강할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다.

덧붙인다면, 이 지상 여정을 지나 이르게 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참 생명은 하늘의 영광이라는 초자연적 생명이요, 우리는 거기서 하느님의 지복에 참여하여 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천상 스승은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다."(루카 22,29-30)

천국에서는 우리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천상 심판자가 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마태 25,21]

참된 행복은 존재의 완성이요, 우리 존재는 하느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하느님 안에 쉬는 것,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느님께 속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질서 안에서 그러하듯이 초자연적 질서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드높임을 통해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바라보고, 모든 피조물을 초월해,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알고 계시듯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서 일하고 하느님 안에서 즐기도록 정해졌다. 영원을 위한 준비란 지성, 의지, 마음, 육신, 우리의 온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확고하게 머무는 것이다. 현세의 삶은 자신 안에 영원한 행복을 참되게 | 준비하는 형태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다.

SP, 1954년 9월호, 5쪽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늘 가까이 초자연적 준비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늘에서 아주 멀어졌다. 만일 하느님이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구세주라는 하나의 길, 하나의 희망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결코 하늘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성을, 예수님의 귀감을 따름으로써 의지를, 예수님이 얻어주신 은총을 통해 마음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육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 천상 스승께서 가르쳐주셨듯이 무엇보다 먼저 지성이 회복되어야 한다.

12. 잘못과 여러 가지 잘못

인간은 일치 또는 통합을 이루어야 했다. 다시 말해 지성, 의지, 마음과 같은 인간의 능력이 통합되어야 했다. 이성은 선을 인식하고 있었다. 분명 엷고 차가운 빛이었지만 감정이 따스해지고 빛나며 활기가 있었기 때문에 진眞과 미美에서 선善에 이를 수 있었다. 이처럼 진, 선, 미는 세 가지 측면convertuntur[22]에서 유일한 하나를 이룰 뿐 아니라 인간 안에서도 세 가지 능력이 한데 어우러져 실제로 일치를 이루어야 했다.

죄는 이 일치를 파괴시켰고, 지금은 매우 혼란하다. 이성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은 이성을 사랑의 빛으로 빛내고, 의지는 정

22. 존재의 근본적인 범주 사이에 하나의 동등성 또는 가역성을 부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토마스적 형이상학의 원리를 암시한다. "존재와 진리는 서로 같고, 존재와 선은 서로 같으며, 존재와 아름다움은 서로 같을 수 있다Ens et Verum convertuntur; Ens et Bonum convertuntur; Ens et Pulchrum convertuntur."

욕情欲의 방해를 없애고 이성에 의해 강해져 선을 행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일치다.

하느님의 은총은 이 일치를 이루고 드높이기 위해 기묘하게 작용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이고 삼위인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창세 1,26 참조) 존재로서 그 능력(지성, 감성, 의지)은 셋이고, 내적 외적 활동은 하나였다.

일치가 깨어지면 이성과 마음은 의지를 반대방향으로 밀고 가게 되며, 이성은 제멋대로 활동하고 통제되지 않은 사랑이 감각에 불을 질러 육체를 파괴시킨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의지는 감정에 의해 늪 속으로 빠져들어 육과 영의 두 가지 법이 생긴다.[참조: 갈라 5,16.19-24; 로마 8,2-13] 그래서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로마 7,15.19]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다시 이루어야 한다.

13.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마르코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이렇게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

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마르 12,28-34)

마태오복음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예수님께서 사두가이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바리사이들이 한데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 22,34-35)

루카복음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루카 10,25-28)

이 세 복음서 모두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명

령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 접목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길 진리 생명이시다. 지성은 그리스도의 지성에, 의지는 그리스도의 의지에,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접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심판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로마 8,29 참조]

그러므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4. 사랑이 충만한 지적 광채[23]

'여러 가지 지적 능력' 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시킨다.

우리의 지성은 분명 진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인내롭게 노력한다면 계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연계에 속하는 기초 진리의 많은 부분을 인식할 능력이 있다. 그러나 면목 없는 나약함이 얼마나 많은가!

하느님과 | 하느님의 일로 기꺼이 향하지 않고, 최초의 상태에서 그랬던 것처럼 피조물에서 창조주께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 않으며, 자기네 근원으로 되돌아가려 하지 않고 피조물에 탐닉하고 있다.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자신의 목적에 관한 것은 소홀히 한다. 현세의 일에 마음을 쓰느라 영원을 생각하는 일은 방해받기 일쑤다.

SP, 1954년 9월호, 6쪽

23. "Luce intellettual piena d'amore." 단테 알레기에리, 「신곡-천국」, XXX, 40.

얼마나 쉽게 '오류에 빠지는가!' 여러 가지 편견에 기울어 욕망이 영혼에 파문을 일으키고, 진리와 영혼 사이에 베일을 늘어뜨려 얼마나 많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너무도 자주 도덕적 삶의 방향이 달려 있는 큰 문제 앞에서도 그렇다.

우리 의지도 하느님을 따르는 대신 멋대로 독립을 주장하며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선을 행하고 싶어도 이를 가로막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참으로 미약하고 항구하지 못하다는 것을 싫도록 체험하지 않는가! 그리고 감정이나 정욕에 끌려가는 때는 얼마나 많은가! 성 바오로는 이 서글픈 나약함을 잘 묘사하고 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로마 7,19-25)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의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비참한 상태에서의 구제책은 '구원 은총'에 있다.

15. 나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다[24]

가장 일반적인 것은 마음의 타락이다.

타락한 매체가 너무 많고 강력하여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국

24. "De corde exeunt cogitationes malæ."[참조: 마태 15,19; 마르 7,21]

가당국의 법적 개입이 필요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거의 1세기 동안 자라온 진리에 대한 증오를 막아낼 만한 방파제를 한순간에 쌓아올릴 수는 없다. 타락은 신앙의 무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나쁜 습관에 물들고 덕을 멀리하고 진흙탕 속에서 뒹구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자신 안에서 이러한 것은 하느님이 금하시는 일이요, 어느 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며, 영원한 불은 이 세상에서 금하던 쾌락을 즐긴 벌이라고 되풀이하는 소리에 과연 괴로워하겠는가? 처음에는 걱정스럽던 이 소리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거절하고 경멸하다가 차츰 약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악습의 관심사는 눈앞에 있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실제로 어제까지 즐겨 성사에 맛들이던 젊은이들이 미사나 부활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를 반대하고 조소하는 사람들 편이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 사실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타락이 그들의 마음속에 첫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들은 신앙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다.

마음이 머리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리고 반종교적인 책이나 잡지를 읽고, 좋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나쁜 표양을 볼 때 신앙의 불길이 얼마나 잦아드는지 아는가? 그 밖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이 합세하여 악을 키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게 하는 독서로 우선 지식을 쌓는 것이 좋을 것이다.[25] 하지만 참으로 해로운 책이 사방에 널려 있다. 말

25. 이 주제에 관해서는 다음 학자의 저서를 읽어보라. Antonino Zichichi, 「왜

할 것도 없이 이러한 책이야말로 건강한 삶에 해를 끼치는 불신의 바이러스를 걷잡을 수 없이 퍼트린다.

16. 낭비한 탈렌트!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중대한 탈렌트를 활용하지 않음은 하느님의 선물을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마태 25,15 이하 참조]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저지르는 그 어떠한 죄도 지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인식 없이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꿈속에서는 그 어떤 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 어떠한 공로도 지성이나 인식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몽유병 환자가 성당에 가서 묵주기도를 바쳤다 해도 공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죄)도 선(공로)도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생각만으로는 악(죄)도 선(공로)도 행할 수 없다.

온갖 소식, 교훈, 농담, 다른 사람이 행한 많은 일과 다른 이들의 결점 등을 다 알고 있으며 누구에게나 충고하고 교정할 말을 두루 갖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 어머니, 젊은이, 통치자, 성직자, 교황에게… 가능하다면 거의 하느님에게도 충고하고 교정하고 싶어할 정도다.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읽어댔으면 그렇겠는가!

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을 믿는가. 신앙과 학문의 관계/*Perché io credo in colui che ha fatto il mondo. Tra fede e scienza*」, Il Saggiatore, Milano 1999.

이러한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도 하느님도 모르는 사람이다.

– 신심, 면학, 사도직 의무를 수행할 때 늘 마음이 들떠있는 사람이다.

– 다른 사람이 구렁에 빠지지 않을까 늘 염려하다가 자신이 구렁에 빠지는 사람이다.

– "아들은 아버지를, 소는 자기 여물통을, 개는 제 주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천상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다."[이사 1,3 이하 참조]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사람이다.

– 이러한 사람은 기도하고 공부하고 귀로는 설교를 듣지만 머리는 아주 멀리 가 있는 사람이다. SP, 1954년 9월호, 7쪽

이들 중에는 매우 똑똑한 사람도 있으나 [많은 경우] 때때로 쓸데없는 일에 힘을 쏟고 매우 바삐 머리를 굴리면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 잎이 무성하고 꽃은 많으나 열매가 없다. 독이 깨져 맑고 좋은 물을 담아두지 못한다.[예레 2,13 참조]

17.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26]

가장 큰 성과.

우리에게는 특별히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신 명령과 말로 다할 수 없이 감미롭고 설득력 있는 초대가 주어졌다. 성덕은 특권이 아니며, 어느 한 사람을 위해 유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선량한' 젊은이도 '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서원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성덕은 고압선과도 같은 덕이다. 선을 향한 비약이요, 선을 노

26. 마태 11,12: "Regnum dei vim patitur."

래하는 시詩다. 마지못해 한 알씩 굴리면서 억지로 행하는 선은… 성덕이 아니다.

성인은 쇠잔한 사람이 아니며 삶에서 자기 몫을 다할 줄 모르는 어정쩡한 양심의 소유자도 아니다. 성 바오로에게 있어 성덕은 충만한 인간 성숙이요 완전한 인간이다.[27]

성인은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발전한다. 멈추지 않고 "성장했고 진보했다"[28]는 문장紋章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다. 성덕은 생명이요 운동이요 고결함이요[29] 활기다. 그 선善은 넘어지지 않고 더 높이 솟아오른다. 그렇다! 하지만 이는 오로지 그리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1코린 3,9 참조]라는 신앙정신과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

18. 하느님의 역설

하느님에 대한 지혜와 신심이 풍부한 사람은 많든 적든 가지고 있는 탈렌트를 쉽게 선용할 것이다. 신심 없는 지식, 사도직, 청빈만으로는 비추지도 못하고 데우지도 못한다. 그러나 신심은 '모든 사도직의 넋'[30]이다. 이는 깊이 숙고해야 할 진리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같지 않다."[이사 55,8] 주님은 당신

27. 에페 4,13 참조: "성숙한 사람in virum perfectum."
28. "proficiebat", 소년 예수에 대해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루카 2,52)라고 한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 대해 언급한 표현과 같다.(1사무 2,28)
29.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은 '움직임mobilità' 이 맞을 것이다.
30. 트라피스트 수도회 아빠스인 조반니 바티스타 쇼타르(Giovanni Battista Chautard)의 유명한 저서 제목.

의 사랑과 마음을 드러내시기 전에 당신 생각을 드러내셨다.(산상설교와 참행복)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1 이하; 참조: 루카 6,20-23]

19. 불꽃을 키워라[31]

신앙은 비추어주고 데워주는 참 불꽃이다.

신앙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지만 사람에게 맡겨진 것이기에 생생하게 보존하고 키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

육신의 건강과도 비슷하다. 아무리 혈기왕성하고 튼튼해도 건강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내적 외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이를 위협하고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31. 'Alere flammam' : 이상적인 의미에서 수많은 연맹이나 다양한 종류의 사업체의 표어가 되었다.

신앙도 이와 같다.

신앙은 갖가지 모양으로 지성의 길을 통해 잃거나 매우 약해질 수 있다. 우선 '타성'이 있다. 어렸을 때 받은 교육이 부족하여 종교에 관한 공부는 매우 소홀히 하면서 일반교육을 받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신앙을 보존할 수 있겠는가?

더없이 불행한 일은 그들이 회의적인 교수에게서 배우게 될 때다. 회의적일 뿐 아니라 신앙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불신의 씨앗을 젊은이들의 지성에 주입시키기 위해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사상을 이용한다면 더더욱 불행한 일이다.

20.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32]

그러나 언제든지 악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감탄할 만한 영웅적인 모범, 온갖 장애를 극복할 줄 알고 세상의 혼탁함에 물들지 않고 나아가는 관대하고 강인한 사람들의 영웅적인 모범은 늘 많이 있다.

이들은 누구인가?

신앙을 키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예방이라는 것이 있듯이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다.

첫 번째 수단은 '종교교육'으로서, 계속 하느님의 말씀을 접하거나 좋은 독서를 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매주 설교나 특강을 통해 풍성하게 주어진다.

게다가 좋은 서적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두 번째 수단은 '기도'다. 기도는 영적 삶의 숨이다. 만일 우리

32. "Renovamini spiritu mentis vestræ." (에페 4,23)

가 필요할 때마다 하느님께 달려가야 한다면,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세 번째 수단은 '선행'으로서, 신앙을 단련하는 것이다. 단련은 몸에 밴 습성[33]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성장시킨다. 이것은 "실천 없는 믿음도 죽은 것"(야고 2,26)이라고 하듯이 행동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몸에 밴 신앙행위는 더욱 그렇다. 더 나아가 신앙행위는 신앙을 살아 있는 것으로 보존할 뿐 아니라 신앙 대상인 진리를 더 잘 이해하고 체험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준주성범」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쁨을 맛보려는 | 사람은 자기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하도록 힘써야 한다."(1권 1장)

SP, 1954년 9월호, 8쪽

21. 우리의 길

이 지상에서 사물을 육안으로, 이성 또는 신앙으로 본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게 보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천국을 위해 창조되었다. "사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습니다."[히브 13,14]

그렇다면 하느님을 뵙기 위해 지성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

가) 이성과 지성의 올바른 사용.

나) 신앙의 덕信德.

33. 윤리철학과 수덕신학의 현대적 표현을 빌리면, '덕스러운 습관' Abitudini virtuose.

하느님을 보지 못하게 지성을 '방해'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 거짓말, 잘못 그리고 의도적인 나쁜 생각.

나) 신앙을 거스르는 죄.

신학 원리는 다음과 같다. "도덕적 행위는 이성을 따르고 최종 목적과 일치하며, 부도덕한 행위는 이성을 따르지 않고 최종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양심은 확실하게 행동하기 위한 규범이다. 그러므로 양심이 명하든 금하든 결코 양심을 거슬러 행동해서는 안 된다. 언제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확실한 길이다.

22. 이성의 빛과 신앙의 빛

지성의 올바른 사용은 다음과 같다. 곧 하느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는 것, 또는 진리를 따라 생각하며 교육, 면학,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를 들면 진보, 덕, 의무, 직무를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것에 마음 쓰는 것이다. 실제로 이성과 지성을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진실을 구하되 팔아넘기지 마라. 지혜와 교훈과 예지도 그리하여라."(잠언 23,23) 그러나 이성과 지성을 초자연적 차원에서 바르게 사용하기도 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시고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신앙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34]이라고 했다. 이것은 곧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토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34. S. Agostino, *Ep*. 190.

리고 이에 대해 예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고, 오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앙의 진리는 절대적이다.

신앙은 영성생활의 토대다. "모든 의화의 토대요 뿌리다."(트리엔트공의회) "믿음이 없이 하느님 마음에 들고 그분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히브 11,6 참조]

23. 성령의 은사인 지혜

SP,
1954년
10월호, 1쪽

이 은사는 신앙을 완성시켜 준다.

'지식, 지성, 지혜' 라는 은사는 우리에게 체험에 입각한 인식을 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 은사는 논리의 길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체험한 것처럼 파악하게 하는 드높은 빛의 길을 통해 신적인 것을 인식시키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은 분명히 신앙의 빛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신앙의 빛과는 달리 더 활발하고 더 강하게 비추는 이 빛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첫째 원리와 비슷한, 일종의 깨달음과도 같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준다.

'지식' 의 은사는 피조물과 하느님 관계에서 생기는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게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성령의 비추임 아래 피조물과 하느님 관계에서 생기는 것을 인식하면서 신앙의 덕을 완성시키는 은사다.'

'지성' 의 은사는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가 지닌 깊은 내면의 조

화를 알려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성령의 비추임 아래 신비를 명백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계시된 진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주는 은사다.'

'지혜'의 은사는 성 토마스가 말하는 바와 같이 "본성상 어떤 공통점에 따라"[35] 계시된 진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음미하게 하는 은사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애덕을 완성시키면서 하느님과 거룩한 것을 최고의 원리를 통해 식별하고 판단하며 음미하게 하는 은사다.'

이것은 가장 귀중한 은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서를 통해 기도하듯이 이를 열심히 바라고, 찾고, 끊임없이 청해야 한다.

"조상들의 하느님, 자비의 주님!
당신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인간을 당신의 지혜로 빚으시어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을 거룩하고 의롭게 관리하며
올바른 영혼으로 판결을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 어좌에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저를 내쫓지 말아주십시오.
정녕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연약하고 덧없는 인간으로서
재판과 법을 아주 조금밖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35. "Secundum quamdam connaturalitatem…"(S. Tommaso, 「명제집 주해*Super Sententiis*」, lib. III, d. 26. – 직접적인 원천자료Fonte immediata, A. Tanquerey, 「…신학개론*Compendio di Teologia*…」, cit., parte II, lib. III: 일치의 길).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 눈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계명에 따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이 당신께 받아들여지고
또 당신의 백성을 의롭게 재판하여
제 아버지의 왕좌에 맞갖은 자가 될 것입니다."(지혜 9,1-12)

예지의 덕을 완성시키는 '의견'의 은사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일종의 초자연적 직관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재빨리, 확실히 판단하게 한다.'

이 은사가 지향하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다. 지식과 지성의 은사는 우리에게 일반 '원리'를 제시하고, 의견의 은사는 일상이 제시하는 | 많은 특별한 경우에 일반 원리를 적용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빛은 중요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영원한 구원 또는 자기 성화, 예를 들면 성소나 죄의 기회가 될 만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

SP, 1954년 10월호, 2쪽

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이 은사를 키워가기 위해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느끼며 성령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해야 한다.

24.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36]

지성은 흡수하는 능력이다.
지성은 소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지성은 밖으로 발산하는 능력이다.
지성에는 정신건강이 있다.
건설적인 정신 질서가 필요하다.
사회 발전은 지성의 발전에 달려 있다.
인격 발전은 지성에 달려 있다.
성바오로수도회는 지적으로 뛰어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수업, 설교, 사도직은 뛰어나고 건설적이며 지성의 계발과 교육을 위한 자연적, 초자연적 수단이 있다.
천사적 지성(성 알로이시오), 거룩한 지성(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경과 교회사를 읽을 것.

25. 착한 의견의 어머니, 상지의 옥좌이신 마리아

마리아는 착한 의견의 어머니요, 상지의 옥좌시다. 신학자들과 교회학자들은 신자들처럼 어려움과 오류와 이단이 널리 퍼질 때 늘 마리아께 의탁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과 교회의 가르침을 확인해 주고 명확히 해주고 보호해 주기 위해 개입하셨다.

36. 1티모 4,13.16: "Attende tibi et lectioni."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추고 인도해주셨는가! 얼마나 많은 젊은이가 학문의 길에서 어려움과 의문에 직면했을 때마다 도움을 받았는가!

복음사가들, 사도들, 저술가들, 교황들도 펜과 혀를 마리아께 봉헌했고, 어떤 의미에서 마리아의 전구로 거룩한 성령강림이 되풀이되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 성 보나벤투라, 성 대 알베르토는 아직 탐구하지 못한 신학의 깊은 데까지 파고들어 갔다.

복자 페리니Ferrini,[37] 만초니Manzoni,[38] 로즈미니Rosmini,[39] 본기Bonghi,[40] 레카미에르Récamier[41]와 같은 뛰어난 사회인과 학자들은 학

37. B. Contardo Ferrini(1859–1902), 로마법 관련 법률가요 역사가. "깊은 종교심을 지녔고 거룩하게 산 사람."

38. Alessandro Manzoni(1785–1873), 문학가, 역사가, 정치가, 이탈리아 왕국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비신자 신분에서 개종하여 가톨릭 신앙의 호교론자가 되었다. 그의 작품 중 유명한 작품 몇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약혼자들*I promessi sposi*」, 「아델키*Adelchi*」, 「거룩한 찬가*Inni sacri*」, 「가톨릭 윤리에 관한 고찰*Osservazioni sulla Morale cattolica*」.

39. Antonio Rosmini(1797–1855), 트렌토 출신 사제요 철학가로서 가톨릭 문화 연맹의 주창자요 수도회 창설자다. 정치가들의 친구요 조언자 역할을 했으며, 만초니의 친구요 「성교회의 다섯 가지 재앙에 대하여*Delle cinque piaghe della Santa Chiesa*」라는 교회 개혁에 관한 유명한 제안을 추진한 장본인으로 존경받았다.

40. Ruggero Bonghi(1821–1895), 문학가요 나폴리 출신 정치가. 로즈미니와 만초니의 친구로서 그들과 이상을 함께했고, 그 두 사람과 협력하여 이탈리아 왕국과 교황청 사이의 화해를 모색했다. 「예수의 생애*Vita di Gesù*」,(1890) 저자요, 교황 비오 9세와 레오 13세에 대한 역사작가다.

41. Joseph Claude Récamier(1774년 Ain에서 출생, 1852년 파리에서 사망), 유명한 의사로서 부인과 창시자로 추앙받았다. 의료 협회Académie de Médecine(1820) 회원이요, 프랑스 콜리지 Collège de France Lennec의 후계자다(1826). 신앙에 적대적인 과학적 분위기에서 레카미에르는 강력하게 그리스도교를 증거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É necessario*

문이나 사업을 결정할 때를 마리아께 의탁했다. 지식과 신앙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지식을 깊이도록 자주 인도한다.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태양이 늘 비추고 있는 맑고 빛나는 하늘과 같다. 이 하늘은 늘 그 빛나는 광채를 받아들여 하느님과 구원을 갈구하는 사람의 지성에 빛을 전해주고자 준비되어 있다.

26. 이상理想은 행동으로 향한다

자연법칙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또는 우리를 거스르면서까지 작용한다. 이상은 온갖 내적 외적 행동의 원리다. 지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 지상 삶과 영원에서 성공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42] 조건이다. 지성은 자신의 '길동무'인 '생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생각이다. 외적인 것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자체는 비윤리적인 것이다.[43] 인간의 삶은 무엇보다 지적인 것이다. 가장 친숙한 친구는 생각이다.

같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유혹, 고통, 가난이 그렇다. 이와 같은 것은 내면의 생각에 달려 있다. 같은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회개와 기쁨의 기회가 된다.

pregare sempre」(알바-로마 1940, pp.284-285)라는 책에서 묵주기도의 강력한 효력에 관한 저명한 의사의 설명을 인용했다.

42. 'sine qua non'.

43. '윤리성의 결여'를 말하는 퇴폐적 의미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냉담한 상태를 말한다.

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칭찬이나 꾸지람, 성공이나 실패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생각, 확신, 이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상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판단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은 외적 내적 행동을 결정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요 그분의 가르침은 구원의 말씀이라는 신념이 성 바오로 안에서 어떤 작용을 했는가?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라고 성 바오로는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2코린 7,4 참조]

많은 사람이 선한 '원칙'을 지니고 살았기 때문에 성덕에 도달했고, 또 많은 사람이 나쁜 생각 때문에 패륜의 길로 빠졌다. 성격은 생각에 달려 있다.

가장 큰 싸움은 지성의 싸움이다. 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문이란 문을 모두 닫아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해야 한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21] 예를 들면 쓸데없는 독서나 나쁜 독서 대신 건전한 독서를 해야 한다. 지성을 구원하면 그대 자신을 구원하게 된다.

27. 불타는 이상

이상은 분명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도착점이요 완수해야 할 등반, 획득해야 할 승리다. 이상은 우리의 영적 초자연적 신체적 모든 기능을 조직할 힘이 있고, 고귀하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내적 외적 모든 수단을 조직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상은 개인을 드높여주고, 성소에 따라 그의 사회적 사명을 확고히 해준다. 이상

은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관념이다. 예를 들면 「수도자의 이상인 그리스도」,[44] 「사목자의 이상인 그리스도」, 「성덕의 이상인 그리스도」, 「바오로를 살 것」, 「마리아와 | 일치하는 삶」,[45] 「모든 사도직의 넋」,[46]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47] 「파괴된 것은 아니다」,[48] 「내가 부서지고 깨져도 굴복하지 않는다」,[49]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등이다.

SP, 1954년 10월호, 3쪽

이상은 특별히 목적을 위해 유익한 생각을 모으고,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반대되는 생각을 없애버린다. 이는 수천 개의 작은 샘이나 개울이 모여 전력을 일으키는 많은 물과도 같다.

영원은 진지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며 다짐한다. "인생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고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이 집착하고 있는, 이 험난한 급류에서 길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50]

이상은 현세에서도 영원에서도 가장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따라야 할 기본노선이요 계획이다. 이상은 지성을 통해 깨닫고 열렬히 사랑한다. "삶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산만하게 살지 마라. 오히려 의욕과 인내와 쾌활함과 재능을 발휘해 살아라." 드러나려 하지 말고 존재하라!

---

44. 콜룸바 마르미온Columba Marmion 아빠스의 유명한 저서 제목.
45. 노이베르트E. Neubert, 「샤미나드의 마리아 영성 개론」의 다른 제목.
46.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쇼타르 아빠스의 저서.
47.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복음 구절.
48. "Non excidet"[하느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로마 9,6).
49. "Frangar non flectar": 영웅주의의 로마식 수사학적 표현으로 많은 인물이 공명정대한 정치 표어로 내세웠다.
50. F. Petrarca 시집 「승리*I Trionfi*: 영원한 승리*Triumphus æternitatis*」, 45-48.

생생하고 활동적인 이상은 조금씩 하나의 사고방식이 되어간다. 그렇게 되면 많은 요소로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배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28. 지배적인 생각

활기찬 생각일수록 그 사람의 의지를 거슬러 물리적으로 작용할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다. 넘어지거나 충돌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정말 넘어지거나 충돌하게 된다. 성공한다는 신념은 힘과 정열, 결단과 희생을 자아내며, 힘을 두 배로 늘려준다.

이것은 자연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본성과 은총이 결합되어 형성된 지배적인 생각이 있다. 이러한 경우 본성보다 은총이 더 강하다. 이렇게 되어 성 바오로, 성녀 테클라, 성녀 아녜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녀 [프란치스카 사베리오] 카브리니, 성 비오 10세, 성 요한 보스코 등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간 성인들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상이 아니라 천국이 설명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감실의 빛과 좋은 지도자, 아니 좋은 스승의 인도에 의해 확립되면 지배적인 생각, 기쁨의 원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원천, 사고방식이 될 것이다. 초자연적으로 보면 '하느님의 권능' 은 기도를 통해 인간에게 봉사하도록 주어진다.

29. 사고방식

사고방식이란 '지성의 존재양식forma mentis', 한 사람 또는 어

떤 범주의 사람들이 지니는 독특한 생각의 방식이요, 결과적으로는 행동방식이다. 예를 들면 군인의 사고방식, 예술가의 사고방식, 사제의 사고방식, 수도자의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어린이의 사고방식, 어른의 사고방식, 노동자의 사고방식, 자본가의 사고방식 등이다. 사고방식은 인생의 여정을 결정한다.

교육한다는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인다는 것, 곧 제일 먼저 모든 기획과 판단, 계획과 결단, 삶과 활동을 비출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깊이 있고 확고하며 정해진 '원칙'에 따라 사물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천상적 지혜가 필요하다!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고, 성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 밖에 유치원, 12세까지의 아동에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고, 12세에서 25세까지의 사람을 위한 양성이 있다.

30.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요소

하나의 사고방식은 내적 외적 요소, 자연적 초자연적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이 요소는 때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소홀히 다루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요소는 마치 갖가지 음식물이나 화학물질이 인체의 혈액, 뼈, 조직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인격을 형성한다. 모든 것이 잘 짜여져 하나의 성격과 하나의 사고방식을 구성한다. 인간은 단일한 존재다. 거기에는 배움의 장場과 삶의 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배움의 장은 삶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

첫째 요소는 유전적 작용의 '자연적 경향'과 '모범' 그리고 어

린이가 성장하는 '환경', 주어지는 '교육'이다. 이상, 생각, 여러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동료, 서적, 만화, 라디오, 대화, 영화, 텔레비전, 학교, 공장, 직장, 본당, 교육 등)에서 다가와 뇌의 주변으로 모여든다. 그리고 입구가 보이면 안으로 밀고 들어가 맞서다가 자리를 잡고 혼합되어 하나의 결과를 내게 된다. 마치 많은 포도 알에서 포도즙이 나와 큰 통 속에서 섞이고 발효되면서 포도주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사춘기에서 청년기로 옮아가는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나타난다. 어린이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 단순한 신앙과 순종하는 인격 대신에 논리와 독립을 꿈꾸는 인격으로 옮아가고, 자신을 지도하는 사람을 비판하며 허물을 찾아내려 애를 쓰기도 한다. 자신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분별없이 대담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과묵해지거나 수다스러워지며 거침없이 비판하는 시기가 번갈아 다가온다.

'젊은이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이다. 억압하면 젊은이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는다. 특히 사춘기나 위험한 시기에는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다. 대신에 그들이 말을 하도록 도와주고, 설명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깨닫도록 도와주고 쉽게 자신을 열게 도와준 다음,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고, 적합한 책을 읽게 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지혜와 선의를 다해야 한다.

고해소에서조차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지 않는 젊은이들은… '한낮의 악마'[51]가 풀려났을 때처럼 생각지도 않은 충격적인 일을

51. '한낮의 악마'라는 표현은 시편 91(90)에서 추론한 것이다. 현대적 표현으로는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라고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일반적으로 40대에 겪게 되는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했는데, 이러한 시련을 통해 인간은 하느님을 확고하게 선택하

벌이거나 놀랍고 역겨운 과오를 저지르기도 한다. 젊은이가 자신을 열게 하고 신앙과 이성에 따라 지침을 주고 합당한 대우를 하며 | 그들을 존중하고 가끔 미심적을 때에도 믿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건전한 '원칙', 신앙, 궁극적 목적을 상기시켜야 한다. 세상에는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육자들이 있다. "현명한 교육자에게는 자극하고, 행동하게 놓아두며, 인도하고 바로잡아준다는 법칙이 있다."[52]

SP, 1954년 10월호, 4쪽

비합리적인 부모, 교육자, 스승도 있다! 그들은 자녀나 (제자)를 언제까지고 갓난아기 상태에 놓아두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갑자기 그들이 완전한 어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12세부터 21세까지 오랫동안 인내와 지혜로써 나이에 걸맞는 방법으로 그들이 겪게 되는 수천 가지 시련을 염두에 두면서 양성해야 한다. 사춘기 소년소녀는 틀림없이 서서히 변화한다는 확신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어떤 유혹에 빠지고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방황하는 경향, 그런 생각, 그들에게 수염이 나고 변성기가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리 놀라지 말아야 한다.

31. 역효과를 내지 마라

예를 들어 수도서원이나 사제서품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결혼이나 세속적인 생활을 동경하게 하는 소설, 잡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잡초 씨를 뿌리면서 잘 영근 곡식을 거두

라고 초대한다.

52. 카노니코 F. 키에사 신부가 자주 인용하여 설명했고, 알베리오네 신부가 애용한 유명한 교육학적 표현.(「스승 예수*Gesù Maestro*」, 알바 1926, pp. 214–215 참조)

려는 것과 같다.

젊은이의 손에 무신론, 이교도, 자유주의 등의 영향을 받은 교과서를 들려주고, 성경, 교부, 윤리적으로 건전한 서적을 거의 맛보지 못하게 하면서… 바오로인으로 양성하고자 한다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공부는 오히려 설교에 해가 되고 사람을 망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더 잘 순종한다. 결정된 일의 내면에 있는 이유를 잘 알고,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공로임을 알며, 장상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특히 결정하는 사람의 생각을 잘 알고 도달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스승을 온순히 따르고 모든 말을 소중히 여겨 활용하며 설명을 청하고 온 힘을 다해 시간을 이용하고 성공적으로 끝맺는다.

32. 감각적인 사고방식

감각적인 사고방식은 맛있는 음식을 찾고 화려한 옷을 입는 미식가의 사치스런 사고방식이다. 온갖 좋은 의미의 인간성을 한쪽으로 밀어놓았을 뿐 아니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주고자 라자로의 상처를 핥던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되고 만다.

감각에 의해 완전히 지배당한 동물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하느님과 미래의 삶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많은 만족을 얻으려 하고 고통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피하려 한다.

'현세적 인간'[53]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삼는 자들이다."[필

53. "동물적인 사람Animalis homo".(1코린 2,14) CEI의 번역: "본성적인 사람

리 3,19 참조] 육신에 빠져들수록 그 사람 안에서 인간다운 이성과 양심의 빛은 꺼져간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의 빛을 비추소서."(시편 4,7)라는 말씀이 그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상에 지나지 않게 들린다. 육체는 그를 약하게 만들고 소진시키기도 한다. 태만, 탐식, 색욕은 이성과 생각에 흙탕물을 끼얹는다.

이러한 현상을 보쉬에Bossuet는 잘 묘사하였으며, 근대 작가들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인간의 온 존재가 고깃덩어리가 된 것이 아닌가하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교만으로 가득찬 이 고깃덩어리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고 만다. 육신은 영혼을 부정한다. 감각은 정신을 뒤덮고 내적 빛은 잠시든 또는 불행하게도 오랫동안 꺼지고, 영원히 꺼져버리기도 한다! 도덕적 태양은 자신의 위성에 가려 일식이 생긴다. 곧 지성은 육신에 가려지고, 심리적 생명은 신체기관의 생명에 봉사하기 위해 가려진다. 아주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감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된다.

33. 인간다운 사고방식

인간다운 사고방식은 진리, 도덕, 신심 면에 논리의 '원칙'으로 이루어진다.

'진리'에 관해: 인간은 하느님과 그분의 몇 가지 속성, 특히 인간에 대한 정의正義를 인식할 수 있다. 창조, 인간 본래의 목적과 이에 관련된 다른 진리, 예를 들면 개인과 사회, 미래의 생명 등

uomo naturale은 [하느님의 영에서 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을 위해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덕' 에 관해: 인간은 십계명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의무와 금지사항을 대체로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와 장상에게 순종할 의무, 이웃사람의 재산, 명예와 인격 존중의 의무, 진리를 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살 의무 등도 알 수 있다. 계시를 모르면서도 올바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자연적 양심이 있어서 해도 좋은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성과 예지에 따라 올바로 판단한다.

'신심' 에 관해: 첫째 원리요 궁극목적인 하느님께 감사와 흠숭을 드려야 한다. 매일 하느님께 기도해야 하고, 일생의 어느 기간과 일 년 중 한 기간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해야 하며, 온 생애에 걸쳐 하느님의 섭리를 간구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사람은 '주님의 기도' 를 음미한다.

34.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나의 성姓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이름은 가톨릭이다."[54]

자연질서의 진리, 도덕, 종교심에 관한 인간다운 올바른 사고방식에 그 토대를 둔다.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 신앙, 도덕, 신심이라는 초자연적인 '원칙' 으로 구성되어 있다.

SP, 1954년 10월호, 5쪽

그리스도교 신앙에 관해: 내세의 상이나 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창조, 인간의 타락, 강생과 구원, 교회 등. '신경信經' 외의 다른 진리와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진리다.

54. 바르셀로나의 주교, 성 파치아노(Paciano, 320-390)가 한 말이다.

그리스도인 윤리에 관해: 신덕, 망덕, 애덕 그리고 정의, 용기, 절제, 현명에 대한 실천적 지식, 순명, 겸손, 인내, 정결과 같은 윤리덕에 대한 실천적 지식, 교회의 계명과 참된 행복과 성령의 은사에 관한 지식, 신분과 직무와 사회적으로 져야 할 의무에 대한 지식 등이 있다.

신심에 관해: 성사, 미사, 전례기도, 개인기도와 같은 은총의 수단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과 마리아 신심 등 주요 신심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성인처럼 가장 높은 단계에 오를 수도 있고, 조금 알고 있던 것도 거의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장 낮은 단계에 머물 수도 있다.

복음서에서 자양분을 섭취하는 사람은 묵상을 사랑하며 영적 독서를 많이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이러한 '원칙'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영혼의 넋이 되게 하여 거의 제1의 본성 위에 제2의 본성이 겹쳐져 침투하고 흡수된다. 이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언어를 말한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성인을 미쳤다고 단죄하며 하느님의 지혜이신 스승 예수를 두고도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교 원리가 몸에 배어 이론적 실천적 사고방식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나의 하느님, 나의 전부여",[55] "그때 가련한 나, 무슨 말을 하오리까?",[56] "이 사람도 하

55. "Deus meus et omnia"는 성 프란치스코가 한 말이다.
56. "Quid sum miser tunc dicturus?"는 토마스 다 첼라노Tommaso da Celano 수사의 〈격노의 날Dies iræ〉이라는 성가에 나온다.

고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57]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태 16,26], "하느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이것은 영원을 위해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58]

우리가 복음서를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사랑의 표시요, 특별한 천상의 빛을 받을 만한 행위다.[59] "성자께서는 저희에게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주소서." "복음말씀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복음 봉독이 구원과 보호가 되게 하여 주소서."[60]

35. 언제나 우리 자신을 다스릴 것

천상 도시 예루살렘을 지향하는 우리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늘에 이르는 길인 규칙을 지켜 탈선하는 일 없이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모든 것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교통규칙을 비롯하여 학교규율, 정치규율, 군대규율, 식이요법 규칙, 기억증진법 규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오늘은 유치원(예: 몬테소리 방법)에서부터 시작하여 교사, 의사, 사제, 사법연수까지 어느 부분에든 방법이 많

57. "Si isti et illi [illæ], cur non ego?"라는 표현은 성 아우구스티노가 한 물음이다.
58. "Quid hoc ad æternitatem?"는 성 베르나르도의 좌우명이다.
59. 알베리오네 신부의 자전적 증언. "32년간 몸에 지니고 다닌 복음서는 참으로 효력 있는 기도였다."(「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145항)
60. 성경봉독 시작이나 끝에 바치도록 제시한 로마전례 기도문. 하나씩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Verba sancti Evangelii doceat nos Filius Dei", "Per evangelica dicta deleantur nostra delicta", "Evangelica lectio sit nobis salus et protectio."

이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성 바오로의 개념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 homo Dei' 으로 양성되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실한 규범으로 하나의 답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여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위해 복음서, 사도행전, 성 바오로와 성 요한의 서간 등은 비록 다른 배경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7 참조] 라는 하나의 영성을 우리에게 제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영성에는 '죽음' 이 지배적인 영성, '생명' 이 지배적인 영성, 신심이 거의 또는 전부인 영성, 의지가 거의 또는 전부인 영성 그리고 '신앙' 이 3분의 1 또는 전부인 영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훌륭한 성인들에 따르면 참된 성덕은 첫째 계명에 있다.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자연은 자연 위에 놓여 있고 자연을 드높여준다.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른 규율은 먼저 이러한 '사고방식' 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선을 알고, 선을 원하고 바란다.

그러므로 인간은 늘 신앙 행위를 하고 이어서 희망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행위를 한다.

지성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수학과 라틴어 공부가 유익하다. 이 공부는 이점이 많으나 그 중에서도 지성의 성찰과 분석능력을 키워주며 지성이 규칙에 따라 움직이고 적용하도록 '교육한다.' 여기서 재검토, 교정, 재시도가 이루어진다. 그리스어와 라틴어 어원에 대한 연구, 화학에서 철학에까지 여러 부문으로 넓혀가는 연구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

36. 수도자의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은 그리스도인 삶에 관한 교의, 도덕, 전례의 모든 '원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초 한 자루를 받쳐주고 있는 멋진 촛대에 붙어있는 튼튼한 세 개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부자청년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사고방식이 지닌 고유한 요소로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 것들은 제가 젊어서부터 |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SP, 1954년 10월호, 6쪽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

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이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마태 19,27-30; 마르 10,28-31; 루카 18,28-30)

1) 부자청년은 영원에 대해 걱정하며 물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젊은이는 특히 종말에 대해 숙고하며 양성되어 간다. 곧 죽음, 심판, 지옥, 천국, 마지막 부활, 최후심판, 영원에 대한 묵상이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집회 7,36][61]

참된 행복을 찾아라.

목적은 이에 적합한 수단의 선택을 요구한다. 목적을 묵상하

61. 원문에는: "In omnibus operibus tuis memorare novissima tua et in æternum non peccabis."

는 사람은 자신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시를 알고 있으며 그곳에 가고자 하는 바람을 지닌 사람과 같다. 떠날 결심을 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에도 그 길을 선택하고 가장 확실하고 빠른 수단을 취한다. 사말四末에 대한 묵상은 본질적으로 한 곳으로 인도한다. 곧 목적을 생각하게 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고 사고방식의 구조와 조직이 형성되어 있을 때, 기도하면 근본적인 오류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며, 만일 빠진다 해도 다시 일어설 것이다.

2) 예수께 다가온 '젊은이'는 이미 유년기를 지낸 사람이다. 신분의 선택은 어느 정도 성숙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젊은이는 의식적인 자세로 삶에 직면한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보람 있고 가장 시의적절한 것이며 더 확실한 성공을 약속한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충만한 선물이 된다.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지 말고 서두르지도 마라.

3) 복음서에 나오는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이것은 기본이다. 먼저 하느님의 십계명, 그 다음에 복음적 권고가 따른다. 완전한 청빈을 지키려면 먼저 제7계명을 지켜야 한다. 완전한 정결을 지키려면 먼저 제6계명을 지켜야 한다. 완전한 순명을 지키려면 먼저 제4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고 사도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5계명과 그 적극적인 면도 지켜야 한다.

4) 네가 원한다면: 수도생활은 하느님의 선물이요 완전하고 계속되는 영원한 사랑의 행위다. 아무런 매개수단 없이 직접 하느님께 오르는 사랑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의지행위요 단순한 계명 이상

의 무엇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제안하시는 첫걸음이다.

그러므로 하느님 편에서 특정한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사랑의 선택이다. '하느님의 뜻',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

성부, 성자, 성령의 개입을 통해 본성, 은총과 영광을 동시에 언급하는 복합적인 선물이다.

5) 완전한 사람: 늘 계명을 지켜왔다고 하는 젊은이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마르 10,21] 그 순간 은총에 은총이 더해졌다.

수도자의 첫째가는 주요한 활동은 진보하는 것, 곧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수도회의 첫 번째 의무다. 두 번째 의무는 수도회의 회칙에 따라 각 수도회가 헌신하고 있는 특정한 임무와 사도직이다.

수도서원 후 이 활동의 의무는 서원이 지속되는 한 계속된다.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진료소[62]를 맡은 의사가 악단을 지휘하고 외국어를 가르치면서 의사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진보해야 하는 것은 '신분상의 의무'[63]다. 신분상 주어지는 은총은 이를 위한 것이다. '회헌', 통솔, 신심 등은 이를 지향하는 것이다. 결점이 | 많아지고 애덕, 겸손, 순명 등이 줄어든다면 성소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SP, 1954년 10월호, 7쪽

6)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말해 청빈의 덕과 서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청빈의 스승, 귀감, 학자, 용기를 주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빈을 사는

62. '진료소' : 특정 지역에서 건강 증진을 도와주는 곳.
63. '신분상의 의무' : 삶의 조건과 연관된 도덕적 의무로서,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서원의' 의무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청빈한 수도자의 부, 영원한 '최고의 선' 이시다.

회헌에 따라 실천한 청빈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에서 이탈하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을 마련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청하며, 부유한 사람의 손에서 재물이 가난한 사람과 사도적 활동이 옮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상은 복음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곧 구유, 이집트 피난, 나자렛, 공생활, 수난, 십자가,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7) 와서: 완전한 정결로 주님께 육신을 봉헌하기 위해, 모든 힘, 곧 육체적 지적 도덕적 영적 힘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가족과 자기 가정을 이루려는 생각도 포기하는 것이다. 첫째 가는 계명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와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모든 시간, 매 순간을 바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마태 19,11]

회칙 「거룩한 동정생활」[64]은 이 모든 가르침을 확인하고 트리엔트공의회의 결정을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결혼에 대한 동정성과 독신생활의 우수성과 우월성은 트리엔트공의회에서 신앙조항으로 장엄하게 결정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늘 그렇게 가르쳐 왔다.

8) 나를 따라라: 다시 말해 순명을 요구한다. 나의 권고, 나의

64. *Sacra Virginitàs*: 봉헌된 동정생활에 관해 1954년 3월 25일에 반포한 비오 12세의 회칙.

모범, 나의 바람을 따라라. 이로써 수도자는 나무 열매만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자체를 바친다. 수도자가 실현해야 할 완덕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든 그저 좋은 것 또는 방법 그 자체가 뛰어난 것이면 그만인 그런 성화가 아니라 정결, 청빈, 순명 서원, 공동생활과 수도회의 회헌을 더욱 잘 실천하는 완덕이다. 수도생활에서는 가장 완전한 것이라도 '선택'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반 신자라면 새벽부터 오후 1시까지 계속 미사에 참례하기로 결심할 수도 있지만) 수도자는 규정에 따라 직무를 시간 내에 정한 대로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고 수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 의지, 마음,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제시한 사람의 지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순명의 덕과 서원의 참 의미를 많이 상실하고 있다.

9)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수도생활을 통해 인간의 인격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로 계발된다. 이에 비례하여 하늘의 영광스런 자리에 오를 것이다. 복음서에는 분명히 수도생활에 적용되는 두 가지 확실한 비유가 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마태 13,44-46] 수도자는 하늘의 위대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10) 백배로 받을 것이다: 올바른 사람이 드높여지고 공경받는 최고의 삶의 상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위로의 샘이다. 교회

와 인류에게 가장 귀중한 행위를 수행한다. 사람을 하느님 안에 안정시키고 하늘나라의 서곡인 평화 안에 머물게 한다. 현세 생활에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고뇌와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다. 영혼의 성화를 위해 특별한 도움과 기회를 제공하고 공로를 더해 준다.

그러므로 유혹은 적어지고, 넘어지는 일이 드물며, 더 빨리 일어서고, 더 평안히 죽음을 맞게 되며, 하늘에서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수도생활은 예수님이 택하신 삶이고, 마리아와 요셉이 온전히 살으신 삶이며, 사도들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받아들인 삶이다. 이 수도생활은 신앙을 영웅적으로 수호한 사람들, 학문과 예술에 뛰어난 사람들, 사회 각 분야에 공헌한 사람들을 교회에 배출했다.

11)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수도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고 영원한 구원의 표시와 보증은 없다. 수도자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지옥을 면할 뿐 아니라, 소죄를 피하고 끊임없는 극기의 삶을 살아가기에 연옥을 피하고 공로를 쌓는다. 지상에서는 하느님 가까이 머물며 충실했기에 하늘에서도 하느님 가까이 머물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이중의 공로를 쌓는 높은 신분에 속하게 되는데 모든 행위를 늘 수도적 덕행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12) 부자청년은 재산에 대한 탐욕과 애착 때문에 자기 성소에 응답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슬퍼하며 되돌아간 젊은이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어떤 욕정에든 지배를 받으면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이다. 특히 가장 지배적인 욕정이라면 더욱 그렇다. 게으름, 교만, 시기 등이 그렇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싸워야 한다. "승자 아니면 패자다."

SP, 1954년 10월호, 8쪽

37. 바오로인의 사고방식

"하느님, 복된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65] [이는] 바오로가족의 제2의 목적[66]에 부합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교의, 도덕, 전례에 대한 가르침 등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현대적 수단을 통해 널리 알리는 것이다.

바오로가족은 오늘, 성 바오로가 살아 있다면 행했을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살며 기도하고 자신을 성화하면서, 오늘의 성 바오로를 살고 재현할 것을 지향한다. 성 바오로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만큼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하나의 방법으로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성 바오로는 성바오로수도회를 세운 창립자다.[67] 성바오로수도회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택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우리를 낳았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복음을 통하여

65. 원문에는: "Deus qui multitudinem gentium Beati Pauli Apostoli prædicatione docuisti…."(「로마 미사경본」,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본기도)

66. '둘째 목적 또는 특수 목적'을 언급. 이에 비해 첫째 목적(일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회원들의 성화'에 있다.(SSP 회헌, 1949,1-2조)

67. 참조: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2;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Ut perfectus sit homo Dei*」 I, 11.43.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1코린 4,15]

성 바오로가 살아 있다면 하느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열의와 여러 나라 사람에 대한 열의라는 두 개의 불꽃을 지닌 하나의 불길이 되어 계속 타오를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소리가 더 널리 퍼져 나가도록 더 높은 단상에 올라갔을 것이고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시대적 진보가 가져온 수단을 사용했을 것이다.[68] 그의 가르침은 무덤덤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어느 곳에 도착하든 단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잘 알아듣고 납득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며 그들을 양성했다." 자신이 가르친 사람들 안에 도덕성이 확고히 서지 않으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을 이어가도록 원로를 세우고 편지를 자주 보냈으며,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자 했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성 바오로는 바오로인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은 스승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스승을 따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1코린 11,1] 이 초대는 신자들과 추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반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특별한 것이다. 자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그 안에서, 그에게서, 그를 통해 살아간다. 테살로니카에 있는 신자들에게 자신은

68. 바오로가족의 초기 10년 동안 자주 인용하던 마곤차Magonza의 주교 빌헬름 폰 케틀러Wilhelm von Ketteler의 가설을 암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성 바오로께서 오늘 살아 계셨다면 저널리스트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귀감' 임을 상기하라고 한 말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꼭 맞는 말이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2테살 3,9][69]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원형이시다. 바오로의 삶은 우리를 위해 귀감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현되시도록 우리는 바오로를 본받아야 한다. 성 바오로를 귀감으로 삼는다는 표현은 외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덕, 열의, 신심… 모든 것, 곧 그의 인격을 최대한 닮는 것이다. 바오로가족은 많은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조직체로서 살아 있는 바오로라야 한다.

성 바오로의 생애, 업적, 서간을 통해 성 바오로를 알고 묵상해야 한다. 그래서 성 바오로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활동해야 하며, 아버지에게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38. 사제의 사고방식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가 믿는 바를 사랑하고 가르친 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주소서."라고 교회는 어느 사도의 기념 미사에서 기도한다.

사제의 사고방식 '원칙' 은 복음서가 부여한 것이다. 바오로인 사제는 인간다운 사고방식,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 수도자의 사고방식, 바오로인의 사고방식에 사제의 사고방식을 하나 더 첨가한다.

이 사고방식은 세 가지 요소, 곧 진리와 도덕과 전례에 대한 깊

69. 라틴어역 성경에서 인용한 본문은: "ut nosmet ipsos formam daremus vobis…."

은 확신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강인하고 굳은 의지로 이루어져 있다.

바오로인 사제는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곧 지식, 건강, 기도, 힘, 생명까지도 그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 이는 삶으로 살아낸 가장 큰 사랑이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지성과 마음이 충만하고 의지가 불타오르고 강해질 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성령강림 후 사도들은 최고의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하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사도 4,20 참조]

열성은 여기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성녀 마리아 마르가리타 알라코크에게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는 당신 성심을 보여주시며 강력한 사랑을 더 이상 감출 수도 억제할 수도 없어 모든 사람에게 계시했다고 말씀하셨다.

천상 스승은 사제의 사고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셨다.

ㄱ)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ㄷ)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라."

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시 말해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 백성을 인도하고, 그들을

성화시키라는 것이다. 하느님과 사람들 관계에서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이다.

너희는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백배로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사제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사제는 사람들을 위해 하느님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 사람이다.

SP, 1954년 10월호, 9쪽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 사도들에게 하신 이야기를 한데 모으면 사제의 사고방식이 모두 형성된다.

39. 모든 사고방식의 넋

"제 마음을 당신 법으로 기울게 하소서."[시편 119(118),36]

이는 하느님이 겸허한 사람, '미소한' 사람에게 주시는 지혜다. "아버지, 지혜롭다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루카 10,21] "지혜의 근원은 주님을 경외함"[시편 111(110),10]이다. 이로써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 "어린이는(역주: 한국어 성경에는 '어리석은 이'로 되어 있음) 누구나 나에게 와서 마셔라."[잠언 9,4-5 참조]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마태 16,26] 그것은 참 하느님의 아들이요, 겸손과 신앙을 통해 '주님의 기도' 정신을 지닌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느님 업적이다.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하느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바람, 천국에 대한 사랑, 천국을 얻고자 하는 굳은 의지, 복음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 우리 어머니 마리아, 모든 면에서 진보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온 존재에 스며들고 침투하고 지배하고 인도한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70] 영혼 깊은 곳에 하나의 이상이 형성된다. 이 이상을 향해 모든 능력이 하나의 의욕으로 모아지고 통합되며, 매일 사고, 상상, 기억, 기도, 마음, 관계, 면학, 독서 등으로 강화시켜간다. 모든 것이 개인의 성덕과 사도직이라는 큰 건물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된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실현하게 된다. 하느님의 진리 안에 있는 영혼이 이러한 정신적 평온에 이르렀을 때, "의인의 입은 지혜를 자아내고 그의 혀는 올바른 것을 말한다. 자기 하느님의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있어 그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다."[시편 37(36),30-31]

* * *

70. 「준주성범」 1권 3장 3: "모든 것을 통합된 것으로 보고", 또는 "모든 것을 하나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발을 땅을 딛고 서 있지만 머리와 지성은 빛으로 충만한 높은 세계, 드높은 빛 속에서 그리고 정신적 평온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의 헛됨'은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평가하며, 갖가지 사건을 높은 관점에서 헤아린다. 모든 것은 자기 성화와 인간의 구원을 통해 증진시켜야 할 하느님의 영광, 곧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견고한 신앙,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는 소망, 하늘의 빛, 성령의 선물과 그 결실, 성소에 대한 기쁨, 천상적 재화를 미리 맛봄, 참된 행복에 대한 깨달음이 그 사람 안에서 서서히 일어나며… 모든 것이 영원히 하느님을 직관하고 소유하고 맛보고 즐기는 준비다. 그 사람이 추구해온 것을 얻기 위해 육신이라는 실체에서 떨어져야 할 일만 남게 된다.

"지혜는 지각의 빵으로 그를 먹이고, 이해의 물을 그에게 주리라."(집회 15,3)

하느님을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고방식의 넋이다.

40. 성 경

성경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편지다." 곧 인류에게 보내신 하느님의 편지다. 성경, 특히 '신약성경'은 하느님의 생각을 알기 위한 첫째가는 중요한 편지다.[71]

참으로 신심 깊은 사람들에게 복음서는 그들의 기쁨이다. 복음

71. 원문에는 '편지lettera'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작품lettura'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을 발견하게 되기에 복음서 이상으로 신심생활을 견고히 해주고 또 효과적으로 천상 스승을 본받게 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덕에 관한 우리 주님의 귀감과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겸손, 온유함, 인내, 무례함을 참음, 동정성, 자기희생에 이르는 형제적 사랑이 무엇인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교도 철학자들, 특히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여러 가지 덕행 중 몇 가지에 대해 여러 편의 아름다운 글을 썼을 것이다. 그러나 문학적인 습작과 설득력 있고 효력 있는 천상 스승의 말씀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철학자들과 문인들에게서는 자주 "무지한 대중을 멸시하고 멀리하려는",[72] 서민 위에 군림하려는 교만한 도덕주의자를 느끼게 된다. 그 대신 우리 주님에게서는 당신 백성의 지성에까지 당신 지성을 낮추시는 완전한 단순함이 눈에 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을 실천하고, 당신 영광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으신다.

더 나아가 신앙인은 스승의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에는 그분의 이야기를 읽고 덕행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은총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문자라는 껍질 속에 숨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흠숭하고, 비추임을 받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깨닫고 맛들이며 실천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러한 성경봉독은 묵상과도 같고 예수님과의 경건한 대화와도 같아 사람은 이러한 대화를 통해 경탄하며, 사랑하는 분을 따르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

72. Orazio, *Carmina*, III, 1: "Odi profanum vulgus et arceo."

'사도행전' 과 '서간' 은 신심생활에 자양분을 제공한다. 이것은 제자들이 살아온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계속하라고 위탁하신 사람들이 신자들의 필요성에 알맞게 설명한 것이다. 복음서의 이 첫 주석서보다 더 감동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

'구약성경' , 특히 시편은 모든 사람의 수중에 있어야 하는 책이다. 라코르데르Lacordaire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시편은 우리 선조들의 신심생활 안내서였다. 가난한 사람의 식탁에서도 볼 수 있었고, 왕들의 | 장궤틀에도 얹혀 있었다. 오늘도 사제는 자신을 제단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위험 사이를 지날 때 그를 동반해 주는 뜨거운 열망을 이 시편에서 길어낸다."[73] 시편은 기도서다. 이 시편에는 생명과 신선함이 충만한 언어로 표현된 기도, 경탄과 흠숭, 자녀의 경외심, 감사와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느낌이 묘사되어 있으며, 참으로 다양하고 고뇌에 찬 상황에서 바치는 탄원, 박해받는 의인이 하느님의 정의에 호소하는 부르짖음, 죄를 뉘우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죄인이 통회하는 울부짖음, 용서받는다는 희망과 삶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시편에 일치시킴은 분명 성화를 이루는 일이다.

SP, 1954년 10월호, 10쪽

'지혜문학' 도 경건한 사람들이 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에는 생활을 개선하도록 간절히 권하는 하느님 지혜의 말씀이 있고, 분별 및 하느님과 이웃과 자신에 관해 실천해야 할

73. 잔 바티스타 도미니코 라코르데르Gian-Battista Domenico Lacordaire (1802-1861), 도미니코회 회원으로서 당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가 중 한 사람.

주요한 갖가지 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서와 예언서'를 유익하게 읽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느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우상숭배에서 보호하시고, 반복하는 탈선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참으로 하느님을 흠숭하고 참된 해방자를 고대하며, 정의와 평등과 특히 보잘것없는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에게 애덕을 실천하도록 계속 인도하신 하느님 섭리의 활동을 그 안에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준비를 갖추었을 때 아주 매혹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하느님 종들의 선행과 나약함을 함께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떠올리며 뉘우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찬미하게 한다.

41. 각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74]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진 시기와 이기심을 품고 있거든, 자만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시기와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행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야고 3,13-17)

인류는 다방면에 걸쳐 진보하였으나 지성, 과학, 경제, 정치, 사회, 학술, 교육,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편집 등의 세계를 지

74. "Probet seipsum homo."[1코린 11,28]

배하는 계층이 있다. 마치 파도가 몰아치는 대로 떠도는 배와도 같다. 그 결과 항해자들은 파도와 바람에 희생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아주 근사한 비행기지만 방향을 잃은 비행기, 핸들이 고장난 자동차와 같다.

그리스도교 문명은 과학을 어머니로, 계시의 하느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다. 과학과 신앙이 이혼하면 그 결과 고통당하는 것은 인간이다. 부모가 이혼한 다음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은 자녀인 것과 흡사하다.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로마 1,21)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0-25)

* * *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요한 17,3.8]

SP, 1955년 1월호, 1쪽

42. 지성의 병

치유의 은총은 죄가 인간 안에서 일으키는 질병을 치유한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역사다. 인간 지성에 관한 질병은 특히 다음과 같다.

– '무지'는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만 아니라 때로는 자연법에서 오는 중요한 의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 '경솔함'으로 인해 여러 번 듣고도 다시 생각하지 못하고 묵상도 하지 못하고 동화되지도 못한다.

– '망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멍청이 같으므로 하느님 말씀이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진다.

– '완고함'은 자연적인 진리와 초자연적인 진리를 이해하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이 돌밭에 떨어지게 된다.

– '오류'는 갖가지 이유로 지성을 어둠에 가두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아주 조금 밖에 침투하지 못하거나 아예 침투하지 못한다.

–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우며, 자신의 입장을 지키거나 반대하기 위해 명백한 진리마저도

거부한다.

– '지성의 타락' 은 지성을 혼란케 하는 그릇된 사상체계(자연주의, 과학만능주의, 기계론, 유물론, 비판주의, 주지주의 등)에서 나온다. 이러한 경우 지성은 한동안 매우 단순한 진리도 받아들일 능력을 잃어버린다.

진리에 대항하는 사람들, 정신이 썩고 믿음의 낙오자가 된 사람들이다.(2티모 3,8 참조)

인간 지성에 타격을 입히는 이 모든 질병을 생각할 때 인간의 마음, 정신, 의지 중 가장 치명적으로 허약해지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묻게 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허함과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신뢰심이 있는지 자문해보자. 육신의 질병 이상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같은 질병 (예를 들면 하느님 없이 살고 있는 현재의 무신론)의 | 진단은 때때로 복잡하고 거의 불가능할 때도 있다. 그리하여 자주 마음이 온갖 정욕을 동원하여 지성을 아프게 한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티토 1,15)라고 성 바오로는 티토에게 써 보냈다. 그러나 때때로 이 질병의 치료와 그 과정은 단순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겸손하고 신뢰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의 기도로써 하느님의 전능을 자기 것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제나 천상 의사에게 가기 위해 중개자이신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가 계시다.

SP, 1955년 1월호, 2쪽

43. 치료를 위한 대책

무지에는 '교육'으로 대처한다. 오늘날 신앙에 관한 무지가 가장 큰 악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여러 교황 문헌들에서 확인되고 있다.(비오 10세, 베네딕토 15세, 비오 11세, 비오 12세)

일반 교양과 일반 교육이 많아지고 있다!

지적 노동은 가장 고귀한 것, 가장 힘든 것, 바르게 행하면 공로가 가장 많은 것,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비례하여 종교교육과 종교적 문화도 동등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세의 삶과 특히 영원을 위해 많은 선을 가져왔다.

학교수업을 조직적으로 더 잘 계획하는 동시에 교리교육의 계획도 세워야 한다.

바오로인의 삶에서 면학은 충분한 시간, 뛰어난 교사, 효과적인 방법을 갖추어야 하고,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신심과 덕과 더불어 성소를 위한 첫째 조건으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종교과목을 즐기는 훌륭한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스승이나 사도가 되겠는가?[75]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이를 간직하고 사랑해야 한다.

'경솔함'에는 지성으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트지 않는다. 땅 속에 깊이 묻혀야 한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고"[루카 2,19] 묵상하셨다. 좋은 이야기를 들은 후 묵상하지 않고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하지 않는 것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75.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98항에 나오는 내용에서 볼 수 있다.(성바오로수도회 회헌, 1949판, 면학에 관한 조항에서 발췌함)

사람과 같다. 이 의미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야고 1,22-23 참조]이다. 그만큼 책임이 커진다.

설교를 들은 다음 반성하고 결심을 세워 적용하는 것은 설교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지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성과는 확실하다.

지적 '태만'은 그 어떤 지적 활동도 하지 않는 것, 지적 관심의 부족은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든 이를 희생시키는 위험한 상태에 지성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지성의 '태만'에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활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성은 언제나 활동한다. 어떠한 음식이든 섭취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지성이 좋은 일에 전념하고 있다면 나쁜 일에 사용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은총에 의지할 필요가 있으나 하느님을 떠보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상식과 사려 깊게 처신해야 한다. 여러 가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건전한 음식으로 자양분을 섭취하는 지성은 독毒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완고함'에는 '온유함'으로 대응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1사무 3,9]라는 관대한 자세를 지닌다면, 필요한 조건 하나를 갖추는 셈이다. 바리사이들은 이러한 자세를 지니지 않았다. 따라서 분명한 것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다. 토마스 사도는 주님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하는 다른 사도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마르 16,14]라고 할 만큼 사도들도 모두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었다. 예수님을 여러 번 보았으면서도 그분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류'에는 '진리'로 대응해야 한다. 거짓말과 위선은 태초부

터 악마의 속임수였다. 악마는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했다. 오류에 젖은 사람 안에는 진리가 침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슬람교, 유다교, 불교 신도의 개종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 세기에 걸쳐 사람들 안에 자리해온 오류는 복음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방해한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릇된 신념이 형성되고 나면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고 방어태세를 취한다.

오류와 악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들 한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어떤 조건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먼저 지성이 올바른 비추임을 받아 진리 안에서 강해지고, 권고와 합당한 허락이 개입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선입관'에는 '올곧은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위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반된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지배적인 욕망이나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다면… 하느님의 말씀은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동의하고 받아들인다 해도 일시적인 것으로 마치 가시덤불이 덮인 땅에서 싹이 튼 씨앗과 같을 것이다. 마음이 곧은 사람에게는 설교하기 쉽고, 교정하기 쉬우며, 충고하기도 쉽고, 항구하기도 쉽다.

지성의 '타락'에는 건전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궤변주의, 배타주의, | 그릇된 사상체계가 만연해 있다. 오류는 자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세밀하고 설득력 있는 형태를 취한다. 원칙은 이것이다.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마태 23,10] 그리스도와 교회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SP, 1955년 1월호, 3쪽

학설은 의심하는 것이 좋다. 의심은 뛰어난 신앙의 스승, 논리의 연구와 기도를 통해 정화된다. 생각이 올바르면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부족에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

지성과 마음이라는 두 개의 흐름이 나란히 흘러야 한다. 끊임없는 지도指導로 마음이 이성을 따르게 하면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진리를 알아야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도록 마음을 자극해야 한다. 참된 가톨릭 신자는 신앙 면에서 무지한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신앙에 관련한 지식을 습득하고 깊이며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는 사도가 된다.

44. 지성의 타락을 방치하지 마라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마태 7,15] 거짓 예언자는 독서, 친구, 라디오 청취, 영화, 여러 종류의 연극 등 사방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는 복음서와 성인들의 전기에 대한 독서로 생각과 열망과 삶이 얼마나 현격하게 변화되었던가! 돈키호테는 다른 의미에서 사상과 독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성녀 아빌라의 데레사는 어린 시절에 좋은 독서를 한 다음 관대한 선교 열의에 불타올랐다.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작은 실개천이 천 가닥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흐른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러나 백 가닥이 큰 수로로 흘러들어 한 곳에 모이면 빛과 열을 내는 발전용 자원이 된다. 이와 같이 평범한 지성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힘을 모으면 여러 가지 것에 생각과 시간과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 많은 일에 아주 분주한 사람은 미미한 결과를 낼 뿐이다.

좋은 일을 잘 하는 데에도, 아무렇게나 하는 데에도 같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으로 한 학년 진급하는 데에도, 적당히 해서 '낙제' 하는 데에도 걸리는 시간은 같다. 이와 같이 [성체]조배, 신심실천, 사도직도 마찬가지다.

45. 사 상

오늘의 세계가 종교, 사회, 정치, 철학, 도덕,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상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76] 일본 사상과 스페인 사상, 중국 사상과 영국 사상, 인도의 영성과 이슬람의 영성, 개신교의 영성과 가톨릭의 영성은 서로 얼마나 거리가 먼가! 사회학이나 종교에 한정시켜 보더라도 자유주의, 그리스도교 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은 서로 반대되는 이론에서 출발하여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 가정, 사회, 정치, 종교, 도덕 생활에서 반대되는 실천적 결론에 이른다.

가족을 위해 사제직을 지망하는 신학생은 사제가 되면 힘, 금전, 영향력을 친인척을 위해 쓰고 소비한다. 주변에 친인척을 두고 이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신학생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복음서와 성인들의 정신, 곧 사제직을 하느님과

76. 여기서 저자가 사용한 '사상ideologia'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문화, 종교적 전통, 사고방식' 을 지칭함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을 위한 봉헌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생은 사제가 되면 온전히 하느님과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신학생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46. 위험한 경향

지성은 진리, 특히 하느님과 거룩한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느님은 지성의 참 태양이요 '이성' 과 '신앙' 이라는 이중의 빛으로 사람들을 비추신다. 현 상태에서 이 두 빛의 협력 없이는 진리 자체에 이를 수 없다. 둘 중 어느 것이든 하나를 거부하는 사람은 눈이 멀게 된다.

지성은 의지를 비추어 선을 향하게 할 수 있으므로 지성의 훈련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성이 '양심'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이것은 도덕적 삶과 초자연적 삶의 규범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기심, 성급함, 교만, 완고함 같은 나쁜경향을 억제해야 한다.

1) '호기심' 은 무지를 조장하는 지성의 질병이다. 실제로 유익한 일에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에만 지나치게 열성적으로 알고자 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호기심을 부추기는 공부에 덤벼들어 '덤벙대고', '성급하게' 구는 바람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공부를 희생시키게 된다.

호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77] 도움이 되는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한다. 성 베르나르도는 "제일 먼저, 더 필요한 것에 집중하라id prius quod est magis necessarium."

77. 라틴어 'maxime' : '최고로, 대단히' 라는 뜻.

고 말했다. 그 밖의 것에는 다만 쉬기 위한 방법으로 마음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소설이 그런 것처럼 지성보다 상상을 키워주는 것, 또는 신문이나 잡지처럼 세상의 소식과 헛소문에 관한 것은 '신중하게' 읽지 말아야 한다.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로 대해야 한다.

2) 독서를 할 때에는 짧은 시간 내에 한 권의 책을 허겁지겁 '삼키듯' 읽어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빨리 읽는 것도 피해야 한다. 좋은 책을 읽을 때에도 읽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맛들이기 위해서는 천천히 읽는 것이 좋다. 이러한 독서방법은 호기심 때문에 공부하는 것, 자신의 지식을 |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자연적 동기로, 자신과 이웃의 선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쉽게 성공을 거두게 한다.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해 할 때 이는 애덕이요, 자기 계발을 위해 할 때 이는 현명한 것이다." (성 베르나르도)[78] 성 아우구스티노가 말한 것처럼, 지식은 사랑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식은 애덕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한 도구[기계]로 사용해야 한다."[79] 이 말은 영성의 주제를 다루는 학문에도 적용된다. 실제로 이같은 학문을 하면서도 마음을 정화하고 극기하며, 영적 집을 짓기보다는 호기심과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SP, 1955년 1월호, 4쪽

3) '지성의 교만'은 가장 위험하고 치료하기가 가장 어렵다.

이 교만은 신앙과 장상에 대한 순종을 어렵게 한다. 자기 이성을 신뢰하는 나머지 자신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여 신앙에 대한 가

78. 원문에는: "Ut ædificent, et caritas est…; ut ædificentur, et prudentia est."
79. 원문에는: "Sic adhibeatur scientia tanquam machina qædam per quam structura caritatis assurgat." [Ep. 55,39]

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나 신앙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이성으로만 해석하려 한다. 또한 자기 판단을 너무 신뢰하는 나머지 다른 사람, 특히 장상의 권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현명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며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다른 의견을 단호히 부인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화를 초래하는 가장 잦은 원인 중 하나로서, 때로는 가톨릭 저자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같은 불행한 분열이 평화와 일치와 애덕을 파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성의 교만을 고치려면 어린이와 같이 온순하게 신앙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인내와 힘든 연구를 통해 얻은 교의의 설명을 구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일이요, 이를 위해서는 성 아우구스티노, 성 토마스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교부와 교회학자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가르치듯이 이같은 연구는 경건한 마음과 절제가 필요하다. "지성을 찾는 신앙"[80]이라는 성 안셀모의 금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의를 설명하려는 일념에서 이를 희석시키거나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극단적인 비판정신'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뿐 아니라 교황의 지침도 따라야 한다.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는 문제 안에서는 자유롭게 토론하며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 평화가 깃든다.

4) '완고함', 토론을 할 때에는 교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말고

80. 문자대로는: "지성을 찾는 신앙fides quærens intellectum". 다시 말해 계시의 내용을 지적으로 깨닫기 위해 지성과 학문에 호소하는 것이다.

자기 생각의 승리가 아니라 진리를 찾아야 한다. 반대자들의 의견이라 해도 진리가 완전히 배제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만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 반대자들의 논리를 주의 깊고 공정하게 들으며 그들의 관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진리에 다가가고 겸손과 애덕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 정신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항구하게, 진리를 알고 사랑하고 실천하려는 의지로 연구해야 한다.

47. 지성의 죄

"너희가 가난한 동족을 괄시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신명 15,9) 몇 달, 몇 년 동안 성소와 서원에 어긋나는 생각을 지성에 담고 있는 수도자들은 나쁜 생각과 결정적인 영적 파멸의 기회에 몸을 맡기는 이중의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따라서 정결에 어긋나는 생각과 상상보다 더 중대한 것이다.

순명이나 청빈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나 의견을 지니고 있으면 실제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며, 계속 순명이나 청빈을 남용하며 서원과 덕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미련한 자는 죄악만 꾸며 낸다."(잠언 24,9)[81]

이 사람 또는 저 사람과 반대되는 생각을 지니기 때문에 판단, 의심, 어긋난 해석, 애덕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

81. 원문에는: "Cogitatio stulti peccatum est."

성당, 공부방, 학교, 사도직 터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다스리는 온갖 노력을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산만하게 사는 사람은 분명 모든 것에서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며 참된 결실을 내지 못하며, 머리는 비어 있다.

야심에 찬 꿈은 스포츠, 비행술飛行術, 웅변, 학문, 음악 등 여러 부문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갈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그때부터 더는 절제할 줄 모른다! 종교, 도덕, 어느 사회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경제나 운동 방면으로 나아가든 각자는 자기 관심 분야를 향해 나아간다. 현실적 감각으로 매일 조금씩[82] 단순하게, 곧 꿈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덕이 있는 사람의 걸음처럼 숙고하고, 바라고, 권고할 만한 최종목적을 향해 밑바닥[83]에서부터 천천히 확실하게 나아가야 한다.

100세의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지적 발육상태는 14-18세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들의 몸이 자라는 동안 교육은 지속되었으나 위선적이고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는 어린이 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진 미숙한 사람들이다. 연령으로 보아서는 어른이 되었으나 아직 미숙한 상태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의 의견의 노예요, 분명한 원칙과 방향도 | 없고 나침판도 닻도 없이 높은 파도에 떠밀리고 있는 배와도 같고,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와도 같다. 인생의 기점을 찾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들에게는 경험도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22-24세가 되어서

SP, 1955년 1월호, 5쪽

82. 알베리오네 신부의 교육학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그가 제시한 제안이었고, 마조리노 비고룽고가 실행했다. "매일 조금씩 진보할 것."
83. '반합Gavetta' : 군인들이 음식을 담아 먹는 알루미늄 용기. "반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특권을 누리지 않고 평범한 조건하에 있다는 것을 뜻한다.

도 삶에서 무엇을 바라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아직 모른다.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며 사람을 오싹하게 만드는 말을 내뱉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논리도 사용하고 다 큰 사람 같아 보일 때에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느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는 교만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때그때 느끼는 기분으로 살면서, 칭찬을 들으면 마냥 좋아하고, 주의를 들으면 있는 대로 기가 꺾인다. 자신만만하여 타인의 권고를 무시하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하느님께 다가갈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루카 1,51]

48. 성령을 거슬러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거스르는 죄 중에는 '진리를 알고도 이에 대적하는'[84] 죄가 있다. 이는 실제로 하느님께 다가가고, 하느님을 신뢰하기 위한 첫째가는 중요한 수단을 거부하면서 진리의 선물과 정면으로 맞서는, 구원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하느님도 구원하시지 못할 것이다. 진리를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암시적으로 진리와 하느님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진리를 거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미워하고, 진리가 주는 유익한 빛과 그 덕이 백성에게 도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성 대 그레고리오) 예수 그

84. 동사 고어古語 impugnare(라틴어 pugna: 주먹, 싸움에서 파생됨)는 확실하게 '싸우다' 라는 의미다.

리스도를 대적하는 바리사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고쳐준 베드로와 요한을 대적하는 바리사이들이 그 좋은 예다.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마르 16,16]

이것은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죄,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죄, 중대한 죄다. 그릇된 사상, 그리스도와 그 대리자인 교황과 맞서는 싸움, 정부, 정당, 신문, 영화, 라디오, 교사, 연사, 텔레비전 등도 진리이신 하느님과 맞서기 위해 일치하여 힘을 모으는 것 같다.

이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처럼,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통회해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진리를 알고도 이를 거부하는 죄인인 한, 용서받기 위한 자세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죄를 통회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며 진리 안에 머물 것을 진정으로 약속해야 한다.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 편에 있지도, 하느님과 함께 있지도 않으며 하느님과 함께 가지도, 하늘에서 하느님을 뵙지도 못할 것이다.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입니다."[사도 3,19-20]

49. 양심의 소리

'회개하십시오.' 가장 어려운 양심성찰은 내면에 관한 것, 특히 지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양심성찰은 첫째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공부하나? 거룩한 지식을 어떻게 심화하고 있나? 지성을 위한 양식은 어떻게 섭취하고 있나?

지성의 여덟 가지 질병[85]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안에 자연적 초자연적으로 건전한 사고방식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검토해야 하며, 초자연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들여 신앙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이러한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

성찰은 지성과 생각에 있는 모든 죄의 근원, 원인과 구성요소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

가장 귀중한 지성이지만 지성만큼 낭비되는 하느님의 은총은 없다. 특히 오늘날 독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을 통해 독이 든 양식이 얼마나 많이 퍼지고 있는가! 신앙과 덕에 어긋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가! 지성은 아주 많은 경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매우 이상한 것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모두 내면에서 저질러지는 나쁜 행동이 있다. 나쁜 행동임에도 이에 동의하고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한다. 말과 행동으로 저지르는 나쁜 행동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는 언제나 지성의 역할이 있다.

외적으로는 매우 결백해보이고, 정중하게 대하며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불순하고 바람처럼 가볍고 모든 덕에 반대되는 판단과 생각으로 가득 찬 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

50. 깨어있음!

신앙, 윤리, 전례, 교회, 사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등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에 '동의하는 것' 은 죄가 된다.

85. 42번 소제목을 보라.

이러한 죄는 소죄일수도 있고 대죄일수도 있다. 신앙, 애덕, 제4계명, 제6계명, 제9계명, 제10계명에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는 언제나 성찰이 필요하다.

외적 고요와 내적 갈등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는가! 반항심, 허영심, 육욕, 광적인 망상, 비이성적인 속된 생각… 등은 독서, 수다스러움, 영화관람, 야심… 등에서 생긴다. 같은 공동체 안에도 단순한 사람, 온전히 하느님의 것인 사람, 평화로운 승리에 가득 찬 사람이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성 바오로는 사슬에 묶여 있으면서도 이렇게 썼다. "나는 위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그 모든 환난에도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2코린 7,4) 다른 사람 같으면 절망하고 하느님과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할 것이다.

돈 많은 미식가는 배가 부르면서도 불행했고, 라자로는 상처가 온몸을 덮고 있는 허기진 상태에서도 큰 평화를 누렸다.

SP, 1955년 1월호, 6쪽

우리 성격은 대부분 생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이끄는 내적 훈련에 달려 있다.

'신경과민'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결코 이겨본 적이 없는 교만, 야심, 저속한 질투심… 등에서 유발한 씁쓸한 생각이 질풍노도와 같이 난무한 다음에 오는 결말이 아닌가? 그리고 참으로 부드럽고, 한결 같은 태도, 이해심, 새롭고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 잡동사니를 이용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늘 탐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다스리는 습관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만초니는 페데리코 추기경의 침착함을 뛰어난 솜씨로 묘사하

고 있다. “페데리코의 빼어난 모습은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다. 페데리코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당당했고, 세월이 지나도 전혀 손상되거나 나태해지지 않았다. 근엄하고 활기찬 눈과 깨끗하고 사색적인 이마는 창백한 얼굴과 맞닿은 백발과 함께, 금욕과 명상과 고된 노력의 흔적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일종의 순수한 활력이 돋보였다. 이목구비는 좀 더 젊었다면 말 그대로 아름답다고 할 만큼 잘생겼다.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엄숙하고 자비로운 생각, 오랜 삶에서 거듭된 마음의 평화, 사람에 대한 사랑, 형언할 수 없는 희망으로 가득 찬 기쁨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했고, 화려한 붉은 복장과 순수한 정신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다.”(A. Manzoni, 「약혼자들*Promessi Sposi*」, cap. XIII)

내적 수양 없이는 어느 누구도 그 삶이 평온하지 못하다. 감각의 절제나 수도회의 봉쇄, 도움 등과 같은 외적인 절제는 어느 순간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의 압력에 굴복될 수 있으며, 사람을 망치거나 걸림돌이 되는 행동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51. 기억과 상상력

우리는 사라진 과거와 어둠에 싸여있는 미래 사이에서 덧없이 지나가는 순간을 살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과거에서 가장 유익한 경험, 교훈, 경고를 길어내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예감이 건전한 낙관주의와 결합되어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야 한다. 여기에 과거에서 보물을 모으는 기억과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올 일을 현실적으로 그리

고 거의 감지할 수 있게 하는 상상이 있다. 길을 비춰주는 상상의 횃불로 결단력 있게 앞을 향해 응시하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인 이 두 개의 위대한 힘은 해이함, 침체, 패배,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과거의 역사는 빛바랜 꿈의 기억이 되기도 하고, 무력하게 만들고, 비관주의에 빠뜨리며 절망에까지 몰아넣어 불안이나 애석함이 스펙트럼 형태를 자아낼 수 있다!

상상력은 발명품을 만들어 내고 영웅을 키우며 성인들이 하늘에 오르도록 가장 잘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었다. 그러나 게으름을 즐기고 이기주의, 어리석은 꿈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람이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삶의 형태를 만들어내어 일종의 최면 작용과 같은 행동으로 꿈속에서 생을 마감해도 만족해하는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의 이상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다. 선의의 바다 속에 악을 가라앉힌다.

지성의 훈련은 바르고 투명하고 균형 잡힌 가운데 일치를 이루도록 이 두 개의 힘을 모을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충만, 더 나아가 수도생활의 충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과거에 뿌리를 둔 지성, 마음, 의지와 하나가 되고 상상력으로 우리의 실존보다 더 진솔한 미래의 천국을 느낀다면…. 그렇게 된다면? 의지의 활동은 힘에 넘칠 것이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의 드높은 보상을 향해 걸음을 서두를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52.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한 대책

결심, 성찰, 고해, 신심실천과 같은 내적 작업은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질서정연하게 할 것.

언제나 훌륭한 고해사제, 친구, 저자, 잡지, 은행, 체계, 청취, 서적 등을 택할 것.

기억의 직감력을 활용해야 하고, 강연과 설교, 수업 중의 설명에서 건설적이거나 교훈적인 가르침을 기록할 것.

수첩, 메모용 카드, 장부, 사무용 현대 기기를 널리 사용할 것.

단순한 방법이지만 많은 일을 성공시킨 비결은 "깊이 생각하는 것"[86], 지혜를 활용하는 것, 계획을 잘 세우는 것, 훌륭한 조언과 감실의 빛에 따라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성의 평온은 이러한 현명함에서 온다.

'지나친 노동', (내적 외적으로 지나치게 바쁜 것)은 절제를 거스르는 죄다. 그러나 대단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더 많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덕이요, 공로다.

53. 머리를 써서 일할 것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87]

천상 스승께 드리는 첫 번째 순종은 머리를 써서 일하는 데 있다. 공로가 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란 몸과 마음, 의지 그리고 지

86. F. Chiesa, 「깊이 생각하라*Pensarci su*」, Alba 1939 참조. 젊은이들을 위한 소책자.

87. 원문에는: "Sine fide impossibile est placere Deo."(히브 11,6)

SP, 1955년 1월호, 7쪽

성이 협력하는 것이다. 곧 사랑을 다하고 | 지성을 사용하여 힘껏 일하는 것이다. 지성은 첫 자리를 차지한다.

계명과 복음적 권고를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의 가르침과 우리 회헌과 교회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장상, 책임자(마에스트로), 고해사제, 사도직 부서 책임자들의 지침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성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며 수단과 방법을 늘 연구하면서 지성을 다 기울여야 한다. 그리하면 고해소, 편집실, 주방, 인쇄소, 학교, 회계 등 모든 면에서 언제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선교하러 가는 수녀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서원에서 일하는 수녀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자연적인 면과 초자연적인 면에서도 그러하다. 예를 들면 신앙으로 일하고 하느님께 의탁하며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위한 일에서도 더 잘할 것이며, 그의 일은 더 큰 공로를 쌓으면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제대 위에서 계속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지향에 따라"[88] 일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도와 기술적인 일, 수업에도 머리를 써야 한다. 서적, 친구, 영화, 상담자, 고해사제 등에 대해서는 언제나 뛰어난 선택을 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를 위한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은 첫째가는 사랑이요, 성화의 으뜸가는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도들

88. 1957년판 성바오로수도회 기도서에 나오는 '선종을 위한 기도'(초판)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올바른 지향'으로 모든 일을 하도록 초대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자주 반복했다.

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7]

54. 성령의 칠은 베푸소서[89]

고통의 신비 제3단에서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묵상한다. 이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련한 가장 잔혹한 고통 중의 하나다. 사실 지성으로 범하는 죄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빈번하게 범하는 죄로서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통해 우리 죄를 보속하셔야만 했다. 지성으로 범하는 죄는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요한 18,37]고 말씀하신 스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오류와 이단을 펴는 사람들은 거짓증언을 하면서 유일하신 스승의 가르침을 거슬러 교단에 오르는 것이다.

이 고통의 신비는 '마음의 빛'[90]이신 성령의 강림, 곧 영광의 신비 제3단과 부합한다. 성령의 일곱 가지 은사 중 처음 네 가지인 지혜(슬기), 통찰(깨달음), 의견(일깨움), 지식(앎)은 지성과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신비를 번갈아 기도하면 좋을 것이다. "임하소서, 성령이여! 믿는 이들 마음속에 임하소서."[91]

* * *

89. "Tu septiformis munere."(성령강림 대축일 찬가)
90. "Lumen cordium"(성령강림 대축일 부속가).
91. "Veni… mentes tuorum visita…."(성령강림 대축일 찬가)

SP, 1955년 3월호, 2쪽

구원 또는 재건은 사람을 복원시키는 것,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창세 1,26)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느님의 지혜, 권능, 선이라는 걸작품인 인간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하나이고 삼위이신 하느님을 닮은 걸작품인 인간을 악마가 야만인, 곧 상처를 내고, 망가뜨리고, 넘어뜨려 '지성 의지 마음' 이라는 골격만 남겨놓았다. 그리하여 성자는 이 작품 위에 훌륭한 설계를 하여 다시 세우기 위해 오셨다. 부분적으로는 설계를 완전히 다시 해야 했으므로 더 뛰어나게 하셨다. 이는 죄 때문에 모욕을 당하신 하느님께 합당한[92] 보상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다"[요한 7,18 참조]고 하셨듯이 더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였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느님의 걸작품이었다. 순수한 물질과 영 사이의 고리였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 눈에 보이는 자연을 다스리며 하느님의 소리가 되어 하느님께 '찬양제물'[93]을 드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이시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인간을 세 가지 능력으로 꾸미기를 원하셨다. 이 세 가지 능력에는 각각 한 분이시고 삼위이신 하느님의 걸작인 성부의 의지, 성자의 지성, 성령의 감정이라는 하느님의 위격이 새겨져 있다.

그런데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결집한 것 같은 놀라운 걸작, 당신의 놀라운 작품(역주: 'edizione' 는 편집, 출판이라는 뜻이지만 문맥상 '작품' 으로 번역함), 이미지, 자기 사진을 보고 기뻐 전율하셨다. 마치 경탄할 만한 '모세' 의 상을 조각한

92. '걸맞는Condegna' 라는 표현은 '합당한adeguata' 이라는 말 대신 사용했다.
93. 'sacrificium laudis' , 시편 50(49), 14 참조.

예술가가 그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보고 황홀하여 대리석 조각이라는 것도 잊고 끌을 내던지며 "왜 말이 없소? 왜 당신 안에는 생명의 피가 돌지 않소?"[94] 하며 외친 것처럼.

하느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신적 생명이 돌게 하여 우리 모습을 닮게 합시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을 드높이셨다. 그리하여 인간은 초자연적 존재가 되었으며,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드높여졌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그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 인간적인 작품을 초월하는 하느님의 작품인 하느님의 아들이 되었다.

죄는 이 하느님의 걸작품을 모두 부숴버리는 동시에 인간적인 작품에도 상처를 입혔다.

신적 건축가이신 성자는 더 나아지고, 수정한 새로운 두 번째 걸작품의 설계를 제시하셨고, 성부는 이를 마음에 들어하셨으며, 시행하도록 성자를 파견하셨다.

그래서 성자가 오셨다. 성자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권위로 진리와 계명과 참 신심을 굳히셨다.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마태 7,29) 더 나아가 인간이 하늘에서 하느님을 뵙고 소유하고 누리도록 신적 진리와 신적 계명, 새로운 신적 예배가 추가되었다. 한 분이요 삼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고, 영원하고 신적인 생명을 살아야 한다. 경탄하고 경탄할 일이다. 인간이 하늘에서 행복하고, 더 힘 있고 지혜롭고 행복한 존재라는

94. 미켈란젤로의 모세와 연관된 전설이다. 모세상은 율리우스 2세의 무덤 기념건조물로 조각되었으며, 현재 산 피에트로 인 빈콜리 로마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것을 보았으므로 악마는 패하고 말았다.

더 값진 것은 지성, 의지, 감정을 바르게 훈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것으로 삼으시고 흡수하신다. 그러므로 드높여진 그 행위는 하느님의 새롭고 무한한 영광을 드러내며, 그 행위를 완수하는 사람에게는 은총과 상급을 선사하신다. 마땅히 거쳐야 할 길이신 중개자 그리스도를 거치면 그분의 행위가 된다. (예를 들면 한 걸음을 내딛는) 인간의 미천한 행위도 이성에 의해 방향을 잡으면 인격적인 행위가 된다.

55.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치워버려라[95]

진리를 위해 창조된 존재로서 지성을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인간이라면, '첫째가는' 그리고 '가장 심각한' 유혹은 지성을 향한 것임이 분명하다.

이미 하늘에서 있었던 첫 싸움은 '생각과 사상의' 싸움이었다. 첫 오류 때문에 사탄은 하느님과 자신을 비교했고, 신적 영예를 갈망했으며, 미카엘은 이에 맞서 "하느님 같은 자가 누구냐?"[96] 하고 외쳤으며, 착한 천사들은 그를 따랐다.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따랐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창세 3,4-5 참조] 그리고 하와는 그 꾐에 넘어갔고, 아담을 설득시켰다. 먹지 말라고 금한 과일을 먹었고, 그들의 눈이 '열렸으며'

SP, 1955년 3월호, 3쪽

95. "Auferte malum cogitationum vestrarum ab oculis meis."(이사 1,16)
96. 원문에는: 외경 전통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Quis ut Deus?"

저지른 악과 그에 따르는 결과를 알았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싸움이었다.

하늘에서 벌어진 싸움이 오늘날 이 지상으로 옮겨졌다. 민족 간의 싸움은 기관총과 폭탄을 손에 들고 싸우기 전에 "하느님, 그리스도, 교회, 영원한 생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사상의 대립이라는 형태로 일어난다.

이와 같은 일은 각 개인 안에 그리고 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다. 진리는 하나로 모으고, 거짓은 반목의 씨를 뿌린다. 의지의 폭동 이전에 지성의 폭동이 일어난다. 삶에서 독립정신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지성의 독립이 일어난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후에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참행복을 믿는 사람이 적다. "그들은 하느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리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로마 1,25-26)

56.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97]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거짓말을 성경에 있는 신적 진리로 물리치셨다.

사탄이 말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탄이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

97. "Sermo tuus veritas est."(요한 17,17)

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이 말했다. "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마태 4,3-11 참조]

우리의 싸움에서 복음서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복음 봉독이 저희 구원과 보호가 되게 하소서."

전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복된 이들의 참 빛이신 당신(그리스도)의 온유한 얼굴빛으로 저희를 비추어주시고, 지성의 졸음을 몰아내소서."[98]

57. 지성으로 짓는 죄[99]

- 무익한 독서로 지성을 낭비하고
- 무익한 방문으로 지성을 낭비하고
- 우유부단함으로 지성을 낭비하고
- 무익한 대화로 지성을 낭비하고
- 지나친 놀이, 규정보다 긴 휴가, 영화관람,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로 지성을 낭비하고

98. 원문에는: "Tu (Christe) vera lux Coelestium, vultu sereno illumina, mentisque somnum discute."
99. "Mentis reatus corruat".

–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타인을 제멋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여 지성을 낭비하고
– 공상으로 지성을 낭비하고
–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 지성을 낭비하고
– 두려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 불안으로 지성을 낭비하고
– 참 도움이 되지 않는 서신왕래의 폭을 넓혀 지성을 낭비하고
– 무질서하고, 성급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여 지성을 낭비하고
– 고해사제, 영적 지도자, 방침, 결심을 경솔하게 바꾸어 지성을 낭비한다.

58. 자유로운 지성의 탁월함[100]

온 힘을 다해, 곧 언제나, 어디서나, 온갖 주의를 기울여 악이 자리할 여유와 시간이 남지 않도록 좋은 생각으로 지성을 가득 채워야 한다. 이는 사람에게 하느님, 신심, 공부, 사도직, 자기 의무에 대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지성의 게으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지적 관심의 부족… 등은 지성이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 자리 잡는 밭이 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건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자신의 관심을 무엇인가에 항구하게 전념하면 많은 유혹과 좋지 않은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은총은 지혜롭고 건전하며 점잖은 사람과 언제나 함께한다.

100. "Eminentia libera mentis".

특히 위험이 닥쳐올 때나 이미 위험한 상황일 때에는 지성을 건전한 생각과 자연적 질서와 초자연적 질서로 채워야 한다. 신중하고 침착하게 하느님을 신뢰하며 협력해야 한다.

"주님, 저희에게 건전한 지성을 허락하소서."[101] 인간이 품고 있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의 지성이다. 열매는 나무를 알게 하고, 포도주 병은 그 속에 있는 포도주를 준다. 건강하고 힘 있는 지성은 건전한 생각을 낳고, 병든 지성은 악한 생각을 낳는다.

나약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부당한 생각이란? 지성의 건강상태가 나쁘거나 지성에 대한 교육이 좋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지성'[102]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성을 재교육해야 할 것이다.

59. 나는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낳았습니다[103]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으며, 이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살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예禮는 하느님께 대한 예禮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요한 4,24)

진리를 준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느님을 주는 것이요, 하느님에게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복음서와 성전聖傳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진리를 전하고, 시대의 필요에 적

101. "Da nobis, Domine, sanitatem mentis…."(복되신 동정마리아 공통축일 본기도)

102. "mens sana in corpore sano".(Giovenale, 「풍자*Satire*」, X, 356)

103. "Per evangelium ego vos genui."(1코린 4,15)

용하여 살게 하는 것은 신약의 사도들, 성 바오로, 교회, 교회학자, 교회저술가, 그리고 바오로가족의 임무다.

60.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리[104]

성 바오로는 복음의 위대한 해설자요 설교자였다. 그는 천상 스승의 계시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였으며, 여러 민족의 학자요 스승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구원의 진리가 전파되기 시작했고, 언제나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으로 흘러들듯이 | 물줄기가 모이고 불어나서 어디에든 은총과 성성을 가져간다. SP, 1955년 3월호, 4쪽

61. 진리의 기둥이요 버팀목[105]

그르칠 수 없는 영원한 교회는 언제나 진리를 설파하고 가르치고 수호한다.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교부, 학자, 설교자, 교회 저술가, 가톨릭 작가가 있다.

시간과 장소를 가로질러 흐르는 이 진리의 강에는 성 바오로의 정신을 따라 겸손한 제자요 스승의 일을 완수하는 바오로가족이 있다.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106][2티모 4,5]

진리의 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

104. "Est veritas christi in me."(2코린 11,10)
105. "Columna et firmamentum veritatis."(1티모 3,15)
106. 원문에는 "opus fac evangelstæ."

1) 교부와 학자 2) 뛰어난 저술가 3) 출판을 통해 진리에 봉사하는 바오로가족.

62. 진리의 종들[107]

1. 교회 학자들: 이들은 정통 가르침과 뛰어난 성덕을 갖추고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뛰어난 저술가들이다. 이 세 가지 조건에 고대성이라는 네 번째 조건이 추가되면 학자 또는 교부라는 이름을 갖는다. 이들은 적어도 28명이다.

교부-학자들, 교부 중 주요 인물은 여덟 사람이다. 서방교부 네 분은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 대 그레고리오이고, 동방교부 네 분은 아타나시오,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요한 크리소스토모다.

그 밖의 교부 학자들 가운데 나열해야 할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에프렘, 대 레오, 힐라리오,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예루살렘의 치릴로, 베드로 크리솔로고, 다마스쿠스의 요한, 스페인 [시빌리아의] 이시도로다.

교부시대 이후에는 가경자 베다, 베르나르도, 베드로 다미아노, 토마스 아퀴나스, 보나벤투라, 안셀모,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베드로 가니시오, 십자가의 요한, 벨라르미노, 대 알베르토가 있다.

교회 학자들의 미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주님은]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리라. 그는 즐거움과 환희의 화관을 얻고 영원한 명성을 차지하리라."(집회 15,5-6 참조)

---

107. 'Servi veritatis'.

그리고 별로 눈에 띄지 않으나 여러 시대에 걸쳐 가톨릭 사상을 이해하도록 뛰어난 저술로써 교회의 가르침을 설명한 사람들이 있다.[108] […]

바오로가족은 학자들 중 특히 철학부문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부문에서는 성 아우구스티노, 마리아론은 성 베르나르도, 자연과학 부문에서는 성 대 알베르토, 신비신학 부문에서는 십자가의 성 요한, 사목부문에서는 성 대 그레고리오, 윤리부문에서는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수덕부문에서는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를 존경한다.

2. 진리에 봉사하는 바오로가족: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17) SP, 1955년 3월호, 5쪽

바오로가족은 '교리교육부문에' 전념했다. 교리서는 바오로가족이 태어난 첫날부터 가장 많이 인쇄하고 보급한 책이다. 가장 단순하고 신적이고 사도적인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 첫째이기 때문이다.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편집한 학년별 교리교재는 성바오로딸수도회가 삽화를 그려넣어 출판했다.

교리교육용 단편영화도 마련하여 보급했으며,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보급했다. 성경, 전례, 복음을 위한 영화도 제작 · 보급했다. 교리교육용 공책, 앨범 그리고 모든 교리교재도 제작 · 보급했다.

---

108. 여기서부터 'Verba mea non transibunt' 라는 제목에 이르기까지, 잡지 「성바오로」와 연이은 출판물에 실렸던 이름, 저자, 표제의 차례는 주로 당대 바오로인의 참고서와 도서목록에서 다룬 것이다. 오늘의 독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내용을 무시하기로 했지만, 창립자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부 저자의 사항과 평가는 그대로 실어둔다.

교리주간, 교리대회, 교리 안내서, 교리잡지. […]

'성경부문에서는' 무엇보다 원문에서 번역한 「새 번역 성경 *Nuova versione della Bibbia*」을 상기할 수 있다. 로발도Robaldo 신부는 여러 종류의 복음서를 편찬한 인물로 특기할 만하다. 곧 「젊은이의 복음서」, 「교육자인 엄마의 복음서」, 「가정의 복음서」, 「노동자의 복음서」, 「매일의 복음서」. […]

'전례부문에서는' 매일 미사경본과 축일 미사경본…등 수많은 출판본을 발행했다. 전례교육에 관한 저서 가운데 궤랑제Guéranger의 기념비적 작품인 다섯 권으로 된 「전례의 해*L'anno liturgico*」를 꼽을 수 있다. 모원에서는 「전례 대백과사전*Enciclopedia Liturgica*」을 인쇄 중이다. […]

'사목신학부문에서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책임하에 사목전집을 시작했다. 세 부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 「교회의 가르침*Magisterium*」: 신경信經과 교의적 윤리적 진리에 관한 설명, 나) 「직무*Ministerium*」: 준성사와 전례, 다) 「통솔*Regimen*」: 사목실천의 문제를 다룬다. […]

'교부신학부문에서는' 무엇보다 성바오로딸수도회가 엮은 뛰어난 가치를 지닌 전집을 들 수 있다. '거룩한 교부들과 교회 저술가들의 꽃' 인 이 전집은 53권이 발간되었고, 차츰 새로운 책이 더해져서 풍부해지고 있다. […]

63.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109]

"주님은 그를 바른 길로 이끌고 하느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으

109. "Verba mea non transibunt."(마르 13,31)

며 ,거룩한 것들을 알려주셨다. 고생하는 그를 번영하게 하고 그 노고의 결실이 불어나게 하셨으며, 착취자들이 탐욕을 부릴 때에 그 곁에 있어주고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다. 또 그를 원수들에게서 지키고 매복한 적들에게서 보호하셨으며,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그에게 승리를 주어 깊은 신심이 그 무엇보다도 강함을 깨닫게 해주셨다."(지혜 10,10-12 참조)

겉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있지만, 신앙에 따라 깊이 숙고하면 설명을 아주 잘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명성, 권력, 학식, 돈, 큰일을 할 능력, 인간적인 도움, 건강… 등 모든 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세상을 움직였다. 곧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베네딕토,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성 요한 보스코, 성 주세페 베네딕토 코톨렌고, 예수의 성녀 데레사, 열두 사도와 다른 많은 이들이다. 이와 반대로 재산이 많고 내적 외적 자질도 받았으며,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들… 이들은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생명력이 있는 업적을 남기지도 못해 실망하고 타인에게도 실망을 안겨주는, 마치 잎과 꽃은 무성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처럼 되어버렸다.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를 설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쉽고도 어려운 일이다. 첫째 경우의 사람들은 겸허한 생각으로서 지도를 받은 신앙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둘째 경우의 사람들은 자기 지성을 자랑으로 여기며, 자기네 가치를 믿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병거를, 저들은 기마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 하느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네."[시편 20(19),8] 예를 들면 골리앗과 다윗, 나폴레옹과 교황 비오 12세, 참 개혁자와 이단자. 지성과

마음이 겸손한 사람에게 하느님은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나, 지성과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신다.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110] 그 말씀은 한 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64. 좋으신 주님, 저희 지성을 깨끗하고 새롭게 하소서[111]

신심 또는 성화를 위한 노력만큼 유혹, 오해, 탈선, 거짓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없다.

보통 1리라짜리 지폐는 위조하지 않지만, 1천 리라, 1만 리라짜리 지폐는 위조한다. 악마의 일도 이와 같다. 하느님의 길을 가르치는 체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태워버리는 것이 애덕일 것이다. 하느님의 길은 단순하고 숭고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를 가장 쉽게 전해주기 위해 당신의 가르침으로 가장 단순하게 요약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소박한 농부라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 모든 사람, 가장 박식한 사람이라도 자기 지식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언제든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첫째가는 것은 이것이다! 네 지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네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심은 무엇보다 지혜로워 이성과 교의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1코린 14,15]

신앙에서 비롯되지 않은 신심은 오래 가지 않으며, 종교교육과 신앙 없이는 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믿음, 희망, 사랑, 신심은

110. 원문에는: "Veritas Domini manet in æternum."(시편 117[116], 2)
111. "Purifica, domine, mentes benignus et renova."(전례 본기도)

같은 초자연적 차원에 있으나 뿌리는 믿음이요, 이 믿음은 결실을 풍부히 내는 튼튼한 나무를 키울 것이다.

65. 면 학

솔로몬은 "주님, 당신 어좌에 자리를 같이한 지혜를 저에게 주소서."[지혜 9,4]라고 기도했다. 안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뿐 아니라 삶을 드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일정한 계획에 따른 면학, 분명하고 상세한 계획, 체계적인 교육, 정기적인 시험.

젊은이는 자기 주변환경의 모든 것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상은 젊은이를 끌어당기고 거의 지배한다. 성찰은 큰 희생을 요구한다. 이와 반대로 젊은이는 자유, 스포츠, 파티, 놀이, 공연을 좋아한다.

특히 성찰로 이끄는 과목(라틴어, 수학, 철학 등)을 진지하게 공부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일생을 통해 매우 값지고 매우 유익한 것이다. SP, 1955년 4-5월호, 4쪽

교사 자신이 스승은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이해하고, 학생에게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교육하는 것' 임을 깨닫고 가르친다면 학교는 거룩한 장소, 곧 성전인 것이다.

천상 스승을 귀감으로 삼고 있는 스승과 온순한 학생 사이에는 점차 협력관계가 성립되어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수도회 안에서는 신성한 부자관계를 초월하는 대단히 다정한 관계가 확립될 것이다.

좋은 스승은 곧잘 소홀히 다루는 숨은 은인이지만 인류의 위대

한 은인이다. 하물며 한 수도회 안에서 매우 어렵고 필요한 이 역할을 완수하는 사람이 절실하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좋은 신문을 시작하는 것, 본당을 세우는 것, 교육적인 영화관을 개관하는 것, 건전하며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은 좋은 학교에 비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요, '여러 곳의 교도소를 폐쇄하는 것'에 견줄 만하다고 말할 수 있다.

66. 통 제

"지성의 더러움을 씻어라." 우리 생각의 통제는 생각의 통로를 견제하여 무의식 중에 강하게 사로잡히는 생각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1) 계속적인 경계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2) 어떤 생각은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는데 파고들어 몰아내도 나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3) 나갔다가도 몰래 되돌아오기 때문이고, 4) 아마 상상, 마음, 이성 자체가 이미 굴복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며, 5) 지성은 섬세하므로 갑자기 또는 난폭한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은 건강이나 지성의 균형을 위해 해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교만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겸손은 교만의 부재不在뿐 아니라 활기 있는 것이요 긍정적인 것이다.

67. 확실한 방법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로마 12,21)라고 한 성 바오로의 말은 적극적인 방법이다. 곧 하느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해 진리, 질서, 정의에 대한 생각을 기르는 것이다.

지성이 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악은 사라질 것이다. 병 속에서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가득 부으면 된다. 방에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빗자루나 수건을 휘두르기보다 등불을 밝히면 어둠은 곧바로 사라진다.

68. 영성체

"지성은 은총으로 충만하게 된다."[112] 영성체는 육신의 일치, 마음의 일치, 의지의 일치, 지성의 일치, 곧 온전한 친교라야 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하고, 자연적 차원이든 초자연적 차원이든 신앙에 따른 사고방식, 신적 지성에 따른 판단을 해야 한다. "주님, 천상 선물의 활동이 우리의 지성과 육신을 다스리게 하소서."[113]

신앙은 통합하고 변화시킨다. 거룩한 생각을 통해 우리를 친교에 들게 하면서 무한한 진리이신 하느님과 일치시킨다.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와 성자의 강생을 통해 계시된 분임을 알게 해준다.

---

112. "Mens impletur gratia"(따름 노래 '오 거룩한 잔치여O sacrum convivium').
113. 원문에는: "Mentes nostras et corpora nostra possideat, Domine, doni cælestis operatio."(영성체 후 기도)

"신앙을 통해 하느님의 빛은 우리의 빛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 하느님의 지식은 우리의 지식, 하느님의 지성은 우리의 지성, 하느님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된다."[114]

지성의 동정성, 신앙의 동정성이 있다! 이는 감각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지킬 수 있다.

영성체는 몸이나 마음 또는 의지뿐 아니라 먼저 지성의 친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곧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같은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 예수님의 지성에 우리의 가장 고귀한 능력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높은 차원의 존재가 낮은 차원의 존재를 자기 안에 흡수한다."[115] 전례문에 따라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의 빛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하신 구원의 첫째부분은 지성에 관한 것이다. 곧 예수님은 당신의 기쁜소식을 선포하셨다. 이 구원은 모든 거짓을 혐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닮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 커뮤니케이션의 결실이다. 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은 지성의 질병도 치유하신다. 무지, 경솔함, 망각, 둔함, 미신, 편견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성도 치유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갈라 2,20]고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생각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적 생활이 가장 우선적이며 가장 필요한 것이다.

영성체를 위한 준비와 감사행위:

1) 믿음의 행위,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이에 반

114. 샤를르-루이 가이Charles-Louis Gay(파리, 1815-1892), 저명한 설교가요, 제1차 바티칸공의회의 신학자로서 수덕신학과 교의신학을 다수 집필한 저술가.
115.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7권, 10장 이하 참조.

대되는 모든 가르침을 부인否認함으로써 제대 위에 현존하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흠숭해야 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순수한 결심으로,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덕과 수도자의 덕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물리쳐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 교회에 대해 더 깊은 사랑을 지니고자 하는 신뢰와 희망,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해 참된 열성을 얻고자 하는 희망을 지녀야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생각에 그친다면 그 영성체는 통합된 것이 아니므로 작은 결실만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가 기도하듯이 "영혼과 육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116] 통합된 영성체를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한다.

69. 양심성찰, 고해성사, 영적 지도

"지혜는 지각의 빵으로 그를 먹이고 이해의 물을 그에게 주리라."(집회 15,3) 생각을 살피고… 생각에 대해 고해하자. 생각에 대해 지도를 받자. 생각에 관한 자기 질책이 앞서야 한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것은 영혼의 지도와 젊은이의 양성과 그리스도인 성격 형성에 있어 첫째가는 부분이다.

SP, 1955년 4-5월호, 5쪽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애덕의 부족, 참 겸손의 부족, 참 신심의 부족, 곧 내면에 대한 경계를 자주 촉구하셨다. 산상설교의 중요

116. 영성체를 준비하면서 바치는 사제의 기도 참조(역주: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지키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한 부분은 지성과 마음의 성화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 복음사가, 특히 성 요한이 언급한 설교의 중요한 부분이 그렇지 않은가? '지성의 죄가 사라지도록' (전례).

모순: 외적으로는 겸손한 행동을 하지만 지성은 교만, 반항정신을 지닌 복종, 원한을 품은 친절, 단식을 하는 것 같지만 숨어서 먹는 것, 겉으로는 엄격한 것처럼 보이나 나쁜 생각과 불결한 상상을 품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는 대신 한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것 등은 모순이다.

장상, 고해사제, 영적 지도자는 위선자를 만들거나 경찰과 같은 일을 할 의도가 없다. 그와는 반대로 깊은 확신, 지성의 회개, 참된 수도자, 참된 그리스도인을 형성하고자 한다. 그들은 대화하고 읽게 하고 그릇된 사상에서 구해줄 것이고, 그릇된 사고방식에 지배당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 실망[117]은 모호한 생각이나 실패의 결과인가? 어찌되었든 나무를 갉아먹는 벌레요, '이상' 을 무너뜨리는 원인이다. 적대자가 건물의 기초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좌절과의 싸움에 집중해야 한다.

지옥에서 가장 추악한 악마는 실망이다.

신뢰해야 하는 인간적 초자연적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불행했던 과거라도 찬란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건축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죄에서 이점을 끌어내는 기술' [118]이

117. 문장의 주어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실수로 이전 편집본에서 빠졌다. 그러나 앞 단락의 결론에 의해 삽입해야 한다고 본다.

118. 「자기 죄를 활용하는 기술*L'arte di utilizzare le proprie colpe*」(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 따른, di G. Tissot, EP, Alba 1965[2] 참조.

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28]라는 말씀은 '죄까지도' 포함시킨다.

"희망은 마지막 신이다."[119] [이 격언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첫 번째 싸움에서 졌다 해도 새 전투에서는 승리할 여지가 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럴 것이고, 영원을 위해서라면 기회는 언제든 제공된다. "무력하게 땅에 주저앉지 마라. 지성이 이미 일어났다."[120](전례)

베드로를 생각해 보라! 바오로를 생각해보라! 아우구스티노를 생각해보라! 「약혼자들」에 나오는 크리스토포로 신부와 인노미나토를 생각해보라.[121] 많은 문학가, 군인, 예술가, 정치가, 교수, 교육자 등을 생각해보라.

은총이 있고 마리아의 자비가 있고 고해성사가 있고 수호천사가 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주님이 보내주시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 모든 것이 어둠처럼 여겨질 때에도…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통해 다시 빛이 비추어지고 힘이 되살아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요 부활이시다."[122]

70. 성체방문

사도에게 성체방문은 하나의 알현이요, 배움터, 제자나 봉사자

119. "Spes ultima dea", Publio Aurelio Stazio의 표현.
120. "Mens jam resurgat, torpida non jacens humi."
121. 알다시피, 만초니의 소설에 등장하는 이 두 인물은 1600년대 롬바르디아 지방의 개종사건으로 유명한 역사적 인물을 상기시킨다.
122. 원문에는: "In quo est salus, vita, resurrectio nostra."(성목요일 입당송)

가 천상 스승과 대화하며 머무는 배움터와 같다.

이 성체방문에서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를 흠숭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권한다.

이 방법으로 하는 성체방문은 시간을 세 부분으로 똑같이 나눈다. 여기서는 '첫째부분' 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 부분은 '지성을 다해' 행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훈련으로서 다음 세 가지 목적이 있다.

1)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요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생각하고 영광을 드리는 것,

2) 지적 영적 사목적 양성에서 얻은 자연적 지식과 초자연적 지식 모두를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 요약하고 분명히 하고 통합하는 것,

3) 복음서에서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요한 17,3)라고 말하는 대로, 모든 사람이 진리의 빛에 이르도록 탄원하는 것이다.

이 첫째부분에서 지성은 오류를 물리치고 신적 진리를 심화하며 신앙을 굳건히 한다.

우리 기도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첫째부분: 진리이신 예수께 영광을 드리고, 영적 지식과 믿음을 더욱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다. 가) '거룩하시다' 를 노래하거나 기도한다. 나)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다) 이어서 영적 독서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복음서나 성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바람직하다. 라) 숙고하고 기도한다. 예를 들면 기쁨의 신비 한 단을 바치거나 '신경' , '한처음

에 말씀이 계셨다', '유일한 빛 그리스도'[123] 등을 바친다.

다른 두 부분은 이 첫째부분에 딸린 것으로,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쓴다.

71. 묵 상

묵상에는 언제나 지성에 관한 부분이 있다. 진리와 교훈적인 사건을 떠올리거나 영혼에 유익한 가르침을 읽거나 듣는 지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실제로 묵상의 정의는 "하느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행위를 하고 더 나은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느님께 영혼을 들어 높이고 집중하는 것이다." 초보자들[124]에게는 '묵상서적'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권한다. 예를 들면 「준주성범」, 「영적 투쟁」,[125] 복음서.

묵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주요한 부분은 "얻고자 하는 덕의 필요성 또는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한 숙고요, 또는 인도해 주는 진리, 힘이 되는 생각을 지성 안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의지를 인도하고 자극할 만한 깊은 확신을 주는 것이 지성의 역할이다. 이는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의지를 움직이는 힘 있는 확신이다. 이 확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내 목적은 하느님이요, 예수님은 하느님께 도달하기 위해 내

---

123. "유일한 빛 그리스도 불안한 맘 비추시면 Lux una, Christe, mentibus", 스승 예수께 바치는 찬미가, '나는 진리다Ego sum Veritas'.
124. 'Incipienti'는 'principianti초보자들'의 고어古語.
125. 1530년경 오트란토Otranto에서 태어나 1610년 나폴리에서 사망한 테아티노 수도회 회원인 로렌초 스쿠폴리P. Lorenzo Scupoli 신부의 작품.

가 따라가야 할 길이다. 따라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오직 죄뿐이므로 죄를 피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 죄를 지었다면 곧바로 속죄해야 한다. 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이것으로 죄를 충분히 피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실천할 것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 바오로가 회심하던 순간에 한 말을 자주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사도 22,10] 그리고 저녁 성찰 때에는 나의 부족했던 점을 통회해야 할 것이다.

SP, 1955년 4-5월호, 6쪽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계획, 연간 계획과 결심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에 따라 생각과 결정을 내린다. "당신 말씀은 제 발에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시편 119(118),105]

성인들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많으나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다.

1) 묵상은 잘못을 뉘우치고 의지를 자극하며 미래를 위해 효과적인 결심을 세우는 것을 지향한다. 묵상은 지성, 마음, 신심, 의지의 훈련으로 이루어진다.[126]

2) 따라서 묵상은 지성에서 출발한다. 원리, 행위, 진리를 상기해야 한다. 독서를 하거나 설교를 들으면서 명확한 생각과 깊은 확신에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좋은 감정과 굳은 결심의 토대가 될 것이다.

3)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활동하신다. "자비로이 우리 지성에

126. "묵상은 지성, 마음과 신심, 의지의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성 바오로」

성령을 부어주시어 당신 지혜로써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로써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전례)[127]

4) 마리아는 거룩한 묵상의 스승이요 어머니시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

교회와 함께 기도하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해로운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어, 저희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하시고, 자유로이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128]

72. 미 사

미사에는 희생제물과 영성체가 있다. 첫째부분은 가르치는 부분 또는 교육하는 부분으로서 서간과 복음서 봉독, '신경'을 통한 신앙고백으로 끝맺는다. 미사경본에 따라 미사에 참례하면 모든 신자는 하루를 지내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며 신앙고백을 해야 할 가르침과 진리를 알 수 있다.

주일에는 사제가 신자들을 위해 복음서를 봉독하고 해설을 한다. 이렇게 교회는 영적 빵을 나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참조]

미사의 첫째부분, 곧 지성의 부분에는 참여하지 않고 미사에 참례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심행사에 참여한 정도의 결

127. "Mentibus nostris…Spiritum Sanctum benignus infunde; cuius Sapientia conditi sumus et Providentia gubernamur."

128. "…Deus, universa nobis adversantia propitiatus exclude; ut, mente et corpore partier expediti, quæ tua sunt liberis mentibus exsequamur."(성령강림대축일 후 제19주일 본기도)

실밖에 얻지 못한다. 지성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73. 경건한 행동과 정신으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소서[129]

'균형' 에는 회복하고, 속죄하고, 재통합해야 하는 인간적 신적 이중의 과제가 있다.

지성은 단련되어야 한다. 진리를 생각해야 하고,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도록 고무되어야 하며, 의지는 평탄한 곧은길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삶의 과제는 하와를 유혹한 악마의 기만을 보속하기 위해 천상 스승의 활동이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어맡기는 것이다. 철학과 예술은 서로 손을 맞잡는다.

지혜와 사랑으로 행한 교육은 특성 있는 사람을 양성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참조]

비지성적인 사랑은 어리석은 것이요, 파괴를 거듭하게 한다. 추상적이고 차가운 지성은 실제로 거의 실효성이 없으며, 고통과 후회를 거듭하게 한다.

'균형' 은 육신을 날라야 하는 두 다리처럼 의지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성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어 발달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알게 되므로 지성에 많은 공헌을 할 것이다. "시인은 우리에게 과학이 전혀 모르는 것을 보게 해준다."

사랑은 눈을 뜨게 해준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

129. "Una sit fides mentium et pietas actionum."(전례)

지 못합니다."[1요한 4,8 참조]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되었다."[루카 24,35 참조] 거룩한 사랑을 지닌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데레사,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비오 10세.

이와 마찬가지로 지성을 소홀히 하면서 사는 사람은 참 애정의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예를 들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자연을 관상하는 데서 나오는 지적 사랑이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처럼 하느님의 활동에 관한 관상을 통해 나오는 지적 사랑이 실제로 존재한다. 시인이기도 한 과학자는 균형 잡혀 있을 것이다. 시적 감각과 신심이 없는 과학자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지성의 소양과 마음의 지배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제 지망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므로 깨끗한 거울처럼 지성이 진리를 완전히 반사하도록, 우리의 부족한 면을 계발하거나, 우리가 인식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추기도록 해야 한다.

죽음처럼 강한 사랑에 열중하고 마음을 다듬을 줄 아는 위대한 이상과 신앙을 지닌 사람들, 곧 성 요한 보스코, 성 요한 드 라 살, 성 요셉 베네딕토 코톨렌고,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단테,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 베드로 클라베르, 성 [프란치스카] 카브리니, 성 비오 10세, 복자 안젤리코, 만초니, 마르코니 등이 있다.

올곧은 사람과 성인은 이 흩어진 지체를 모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과 사회를 창조의 모습대로 새롭게 세우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상황을 더 아름답게 다시 세운다. 이것이 바로 재건이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130]

SP, 1955년 4-5월호, 7쪽

74. 지성의 고독[131]

잠심을 몸에 익히고 우리의 몫인 의무, 면학, 소임, 성무, 대화 등에 익숙해질 것.

기도 중의 잠심: "헛되고 어리석고 부당한 온갖 생각에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소서."[132]라고 기도하듯이, 하느님과 우리 영혼에 전념하는 것이다.

면학 중의 잠심: "성경봉독과 권고와 가르침에 열중하십시오." [1티모 4,13]라는 성 바오로의 권고에 따라 잘 선택하고, 잘 이해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잘 기억하고, 은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모든 사도직과 일상의 태도에 대해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거룩한 동정*Sacra Virginitas*」에 표현된 것처럼 살아야 한다. "결코 '생각만으로도' 죄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위험에서의 도피는 외적 기회를 멀리하는 것뿐 아니라 (예를 들면 세속을 떠나는 것), 무엇보다도 유혹을 당할 때 '지성'을 드높이는 데 있습니다."

---

130. "Instaurare omnia in Christo"(에페 1,10) 성 비오 10세가 교황재위 기간 동안 간직했던 좌우명.

131. 'Solitudo mentis' 성 대 그레고리오에게서 영감을 받아 중세 영성에 많이 등장되던 표현.(「욥기 해설」 1,30, c.12)

132. "Munda cor meum ab omnibus vanis, perversis et alienis cogitationibus."(과거에 성무일도를 바치기 직전에 드리던 기도)

75. 그대 자신을 돌보고 주의하십시오[133]

교황 비오 12세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모든 성인 성녀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부지런히 모든 죄의 기회를 피하기 위해 유혹을 멀리하고 주의 깊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에 와서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사제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격리되어' 서는 안 된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하고, 따라서 저항할 힘이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 자신의 정결을 위험에 노출시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젊은 신학생들은 무엇이든지 겁내지 않고 보는 데 익숙해지고, 위험한 모든 것에서 무감각해지기 위해 무엇이든지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도록 쉽게 허용합니다.

젊은 신학생에게 영화, 때로는 교회가 검열하여 금하고 있는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 것도, 외설 잡지까지 포함하여 모든 잡지를 읽는 것도, 금서나 자연법 자체가 금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소설을 읽는 것도 허락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느냐고 물으면, 이미 현대에는 대중이 흔히 이런 볼거리나 책에 의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돕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은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견해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젊은 신학생을 성직자 신분의 성덕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러한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위험한 것인가를

133. "Sollicite cura teipsum."(2티모 2,15 참조)

이해하기란 아주 쉽습니다.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집회 3,26) 성 아우구스티노의 충고는 매우 타당합니다. '불순한 눈을 가졌다면 깨끗한 영혼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한 눈은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악한 양성 방법은 매우 혼란한 논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셨고, 또 다음과 같이 성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같은 원칙에 따라 사제들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통상적으로 만나기 쉬운 위험에서 그들을 멀리하도록 적절하고 현명한 규범을 정했습니다. 이 같은 규범을 통해 그들 삶의 성덕이 세속생활의 동요나 쾌락에서 충분히 지켜지도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영적 생활과 사제적 수도적 완덕에 이르는 양성을 위해 젊은 신학생은 삶의 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더더욱 세속적 소란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합니다. 서서히 그리고 현명하게 우리 시대의 문제에 관한 것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 세세하고 정성스레 교육을 받기 위해 신학교나 연구소에 장기간 머물러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교황 권고 「우리의 지성*Menti Nostræ*」(1950년)에 담긴 내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각에 관해서는 성 바오로 사도의 다음과 같은 말

씀이 이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말씀이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필리 4,8]

인간 양성

들어가면서

이 글은 「성 바오로」지 1953년 9월-10월호에 처음 발표되었고, 모음집으로 출간된 「바오로가족에게」(1954년 성 요셉 축일)에서 다시금 출판의 기회를 맞이했다. 이 소책자는 인간의 삶과 봉헌생활을 위한 초기양성 단계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바오로인 수도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을 잘 선별하고 준비하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바오로인이 완수해야 할 사도직에 전념하도록 '기초요, 출발점' 인 견고한 인간 양성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양성 목표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 결론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먼저 지혜롭고 올바르며, 사회성 있는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하느님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사회에서도 정직한 인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성해야 한다. 곧 살아 있는 신앙을 통해 스승을 본받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공동생활을 통해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며, 바오로적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완덕을 지향하는 거룩한 수도자가 되도록 양성해야 한다."

인간교육과 그리스도인 교육의 기본원칙 몇 가지를 전제로 언급하면서 창립자는 각자가 자기 삶의 주체요 교육자가 되기 위해 인격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곧 미래의 봉헌생활이 요구하는 태도는 사회성, 정결, 순명, 노동정신과 책임감, 예의바름과 유연성, 육체적 훈련이며, 무엇보다 마음과 상

상력에 대한 교육이다.

이와 같은 주제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그의 저서에서 발전시켜 다시 다룬 것이기도 하다.(참조: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148-149항;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4권, 27-38; 83-84 등)

이 소책자의 원천은 다른 저서와 마찬가지로 알베리오네 신부의 많은 글과 설교, 모든 경험과 인간관계에서 나온 창립자의 위대한 능력의 결실이다. 곧 많은 독서, 카노니코 키에사 신부[1], 카노니코 프리에로Priero 신부와 나눈 대화와 제자들과 협력자들이 많은 공헌을 했다. 적어도 첫 자료수집을 위해 창립자는 일부 남녀 바오로인의 도움을 받은 것 같고, 추적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은 아주 친숙한 저자들에게서 자료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이 내용에 영향을 주었을 저자와 저서 가운데 다음 몇 가지를 나열해 본다.

- 인간 개념, 인간 관계, 인간 능력에 관해, 그리고 알베리오네 신부의 표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개체 유전인자의 소책자'와 같은 기술적 표현에 관해 저명한 의사 니콜라 펜데 Nicola Pende[2]의 영향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 다른 여러 가지 관점도 롬바르디

1. 키에사 신부의 주요 저서를 상기해보자. 「교리교사들을 위한 교육학적 양성*Formazione pedagogica dei catechisti*」, 「수덕신학 입문*Introduzione all'Ascetica*」, 「생명의 열쇠*La chiave della vita*」, 「교의신학 강의*Lectiones theologiae dogmaticae*」 4권, 「철학사*Storia della Filosofia*」, 「성직자 양성의 일치를 위하여 *Per l'unità nella formazione del clero*」,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Gesù Cristo Re*」, 「스승 예수 그리스도*Gesù Cristo Maestro*」, 「성경의 열쇠*La chiave della Bibbia*」, 「보속*Riparazione*」, 「완전한 속죄*Contrizione perfetta*」, 「성 가정*La sacra Famiglia*」, 「깊이 생각하라*Pensarci su*」 등.
2. Nicola Pende는 풀리아 대학교의 교수(1880-1970)요 의사로서 생물물리학과 내분비학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였다.

Lombardi[3]의 저서를 반영하고 있다.

– 양성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작품보다 지로토Girotto의 저서가 비록 훨씬 후기의 작품[4]이지만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자와 저서를 인용하고 있어 도움이 된다.[5]

이 소책자를 집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과 역사적 배경은 이 글을 이해하는 데 빛을 주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같은 해 「성 바오로」지 마지막 부분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서양(칠레, 브라질, 미국)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메리카 대륙의 여러 공동체를 방문한 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실었다. 아메리카 대륙 여행은 1953년 봄, 동양(일본과 인도) 방문의 위험한 여행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해에는 수개월에 걸쳐 여행을 했고, 그 기간에 창립자는 새로 개원하는 여러 분원과 여러 사도직 센터를 축성했다. 이탈리아에서만 성소자 공동체(바리와 비첸차)가 두 곳에 생겼고, 여러 곳에 서원을 개원했다. 결국 창립자는 자신이 세운 여러 수도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을 개혁하고 성화하는 것보다 분원을 세우는 것이

3. 특히, R. Lombardi, 「근본적인 방향지침*Orientamenti fondamentali*」, Roma 1951.

4. Samuele Girotto, 「인간적 교육과 신적 교육*L'umano e il divino nell'educazione*」(초판 1955).

5. 특히 다음 작품을 들 수 있다. G. Nosengo, 「그리스도 중심의 양성 *Formazione Cristocentrica*」, A.V.E., Roma 1941; G. Nosengo, 「예수의 교육학 *La pedagogia di Gesù*」, A.V.E., Roma 1947; A. Baroni, 「교육*educazione*」, Roma 1946; G. Bonomelli,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통해 보호와 교육을 받은 젊은 학생*Il giovane strudente istruito e difeso nella Dottrina Cristiana*」, Brescia 1926(2권. 진리이신 예수님과 길이신 예수님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흥미롭다).

훨씬 쉽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교육과 성화가 그의 지대한 관심사로서 그 일에 자신의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인간 양성

1. 원 리

SP,
1953년
9-10월호,
1쪽

1) 수도회의 교육 목적은 바오로인 수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지혜와 사랑을 통해 양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하나의 기초, 하나의 출발점이 필요하다. 곧 올바른 인간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인간 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아들을 양성할 수 있고, 이러한 그리스도인 위에 평수사든 수도사제든 거룩한 수도자를 양육할 수 있다. 그리고 거룩한 수도자는 성 바오로의 위대한 귀감에 따라 사도가 될 것이다.

논리에 따라 지성과 힘과 마음을 사용함에 있어 올바른 인간이라는 기초가 부족하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버릴 것이다. 마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 자명한 것처럼 말이다.

2) 성부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완전한 인간' 이셨다. 그분은 '길' 이시기도 하다. '완전한 인간' 이라는 개념은 그분이 이성적인 영혼과 유기적인 육신을 지니셨을 뿐 아니라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완전한 능력을 지니셨음을 의미한다. 누가 감히 그분을 죄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은 한 가정의 완전한 아들, 완전한 아이, 완전한 젊은이, 완전한 노동자, 완전한 시민, 완전한 신하, 완전한 왕이셨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언행에서, 기

도에서, 고독 중에도 완전하셨다. 예지, 정의, 용기, 절제에 있어 완전하셨고, 제자처럼 배움에 있어서도 완전하셨고, 스승으로서 가르치실 때에도 완전하셨으며, 사도로서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추구함에서도 완전하셨다.

3) 우리 내면과 외면은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그분을 닮았다. 모든 것, 가장 물질적인 것까지도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셨다. 인간은 이 모든 것을 하느님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선은 완전한 원인原因에서 기인하고, 악은 어떠한 결점에서 오는 것이다."[1] 예를 들면 시간, 건강, 눈을 선용해야 한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1코린 3, 22-23][2]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은 하느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이는 하느님의 자녀다운 것이다.

트리엔트공의회는 사제가 태도, 의복, 걸음걸이도… 완전하고 귀감이 되기를 원했다.

"우리는 교양인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권고사항이다. 예를 들면 잘난 체하지 말고 평온하고 신중하고 품위 있게 대화를 해야 한다. "인간은 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3]고 성 예로니모는 말했다. 잘난 체하거나 공문을 읽듯이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허풍쟁이나 코미디언이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

1. "bonum ex integra causa, malum ex quocumque defectu." 성 토마스가 신플라톤학파 디오니시오의 다음 표현을 인용했다. "…bonum procedit ex una et perfecta (integra) causa, malum autem procedit ex multis particularibus (singularibus) defectibus."(Dyon. IV, XXII, 572)
2. 원문에는: "Omnia vestra sunt; vos autem Christi; Christus autem Dei."
3. 원문에는: "Talis efficitur homo, quali conversatione utitur."

것도 아니다.

4) 성사는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에게 질료, 곧 물질은 육신을 상징하고, 형상은 영혼을 상징한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에게서 위임받은 성사에 대해 형상과 더불어 질료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예를 들면 세례성사에 사용하는 성수는 순수해야 하고, 축성된 것을 세례대에 보관해야 하며, 적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유는 올리브 기름이라야 하고, 성목요일에 장엄하게 축성한 것이라야 하며, 소중하게 보관하고, 정확한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른 성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몸에 대해서도 주의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체력을 단련하고, 몸을 소중히 여기고, 위생관리를 잘 하고, 절제 있는 영양 섭취와 휴식을 취하고, 위험과 악을 피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훌륭한 교육자는 훌륭한 장상이나 부모처럼 이 점에 관해 적어도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아주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4] 하느님은 생명이시다! 지나치게 놀거나 일하느라 몸을 혹사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가진 힘과 가치를 경솔하게 축소시키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좋은 교육학적 방법으로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자기 자신과 사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신의 | 직무를 향상시키며, 자신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키고, 인식을 넓혀야 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리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인격을 계발해야 한다. 부지런히 해야 할

SP, 1953년 9-10월호, 2쪽

4. 원문에는: "Mens sana in corpore sano."(Giovenale, 「풍자*Satire*」, X, 356)

일은 가장 순수한 힘이 근원이신 하느님을 본받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이는 지성이나 도덕 또는 육신 면에서 중요한 극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에페 5,1] 재화는 하느님의 선물이기에 잘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된다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신을 신어라!"[5] 하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말했듯이 하느님은 신발까지 신경을 쓰신다! 그러므로 옷, 집, 가구, 책, 작업 수단 등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한다.

창조된 만물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합당하게 섬기게 하려는 것이다. 사물과 우리 본성과 이성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은 우리 목표인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드높여지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시편과 성인들 안에서 실천적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태양의 찬가'를 노래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서 찾아보자.

* * *

덕행 다음으로 지식은 인간 지성의 가장 소중한 완전함이요 보화다. 지식은 모든 자연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지성은 영혼의 빛이기에 이를 훈련하여 견고하고 유익한 지식을 넓히는 것은 대단히 큰 이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하느님의 뜻은 우리의 선을 바라며 모든 존재가 완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면학에 힘쓰며, 자주 숙고하고,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5. 원문에는: "Calcea te caligas tuas!"(사도 12,8 참조)

2. 좋은 지원자를 택할 것

잘 출발한다면 잘 도달하리라 희망할 수 있다. 그런데 잘 출발하지 못하면 어떻게 잘 도달하겠는가? 만일 책이나 영화 주제를 잘못 선택하여 출판한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보급을 이 잘 되기를 바라겠는가?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바라는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젊은이가 계명들을 항상 지켜왔다고 단언한 다음 비로소 그에게 완덕의 길을 제시하셨다.

3. 신체적 자질

젊은이는 눈에 띄는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평범한 신장과 용모, 건장하고 튼튼한 신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의사에게 세밀한 진찰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수도회의 입회 초기에 검진하는 것보다는 입회수락 전에 의사의 건강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신적 육체적 결함이 생긴다. 어떤 이는 유전 때문에,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환경, 영양상태, 질병…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는 지원자를 요양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도생활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특별한 극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노동과 희생을 해야 하는 성소이기 때문이다.

나이에 관해서는 회헌과 교회법에 규정된 대로 장애요소[6]에 대

6.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분명 1917년판 교회법 규정을 말한다.

해 이야기하고 기록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족수가 많고 건실한 가정에서 훨씬 더 건강한 신체와 도덕성을 갖추게 마련이다. 가능한 한 입회를 허락하기 전에 젊은이에 대해, 학력과 자질 그리고 부모, 그가 성장한 가정과 본당 환경을 알아보아야 한다.

4. 공동생활의 전제조건

- 천성적으로든 교육의 영향으로든 온유하고 잘 어울리는 낙천적인 성격,
- 너그럽고 친절하며, 이해심 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장상들, 후배들에 대한 올바른 마음자세,
- 공손함, 예의바름, 순종, 친절한 태도로 규칙을 준수하며 특히 함께할 줄 아는 역량,
-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멀리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못에 대한 비난이나 수치심을 안겨주지 않는 마음자세,
- 늘 일관성 있으며 단순하고, 성공이나 명예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반대되는 상황일지라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꿋꿋한 자세.

5. 정결 준수의 전제조건

- 숭고한 생각을 간직하며,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려는 노력과

인간답게 살려는 확고한 결심,
-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등 감각을 제어하는 습관,
- 자신을 다스리는 법과 강한 의지력,
- 삶에 대한 참된 개념, 육신에 비해 영혼이 고귀함과 육신은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참된 개념,
- 사물, 사람, 볼거리, 장소, 독서, 청취 등, 악과 위험의 직접적인 기회를 피하도록 깨어 있음,
- 태만과 탐식, 개인이나 동료와 함께 누리는 자유의 남용을 피함,
- 열성을 다해 자주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며, 마리아께 대한 감미로운 신심을 지님.

6. 청빈정신의 전제조건

- 사소한 일에도 정의를 실천함,
- 지상의 재물은 현세생활과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
-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
- 청결함과 시간을 선용함,
- 올바른 재정관리.

집안을 잘 정돈하며, 의복, 가구, 작업 도구 등을 잘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 가정에서도 일치하여 알뜰한 살림, 예산, 예비비를 잘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야심, 헛된 만족, 사치, 허황된 치장과 화장을 피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SP, 1953년 9-10월호, 3쪽

7. 사도직의 전제조건

- 현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반 교육과 이를 더 넓히려는 원의,
- 전체에 속한 개인으로서 공동선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할 의무에 대한 깊은 확신,
- 인류와 각 개인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폭넓은 개방된 지성을 갖춤,
- 신체적, 도덕적, 지적으로 부족한 모든 사람에 대한 연민의 마음,
- 자기 인식과 확신을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과 선교에 대한 열의.

8. 순명정신의 전제조건

- 온유하고 균형 잡힌 온순한 성격,
-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상에 대한 존경과 순명의 수도서원을 이해하는 충분한 지적 능력,
- 본당 신부와 일치하는 모범적 가정 출신의 지원자.

9. 지적 자질

평수사를 지망하는 사람은 제자[7]의 고유한 활동을 완수하기 위

7. 제자Discepolo라는 단어는 성바오로수도회에서 사제에게 협력하는 봉헌된 평신도, 곧 평수사를 가리키는 고유 용어다.

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수도사제 신분을 지망하는 사람은 거룩한 학문과 직무를 위한 적성도 갖추어야 한다. 수도회에 입회할 때 교육을 많이 받았다면 그만큼 면학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0. 외관外觀에 대해

수도원의 실내는 안전하고 통풍이 잘되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와야 한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성스러운 것이나 사도직에 관한 것은 적절한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식사는 그 사람의 나이와 하는 일에 알맞게 충분히 주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릇에 잘 담고 먹음직스럽게 차려야 한다. 성장기에 있는 이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주어야 한다.

개인적인 청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두가 말끔하게 단장하고, 의복은 검소하나 깔끔하게 입어야 하며 치아, 손, 얼굴, 발, 책, 공책, 교실의 책상과 의자 등도 깨끗해야 한다.

이 점에 관해 모든 책임자는 매일 매 순간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지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일은 모든 예의범절, 세련미와 통상적인 건전한 사회생활 규칙준수처럼 내적 삶을 완성시키는 덕행을 이미 절반은 이루어주는 것이다.

11. 도덕적인 면에 대해

인간이 자신의 자유를 잘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모두가 하느님 앞에 있다는 의식과 확신을 통해 행동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의식은 이성의 목소리요 하느님의 음성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간을 인도하고 지탱해 주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비록 그대가 혼자 있더라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거짓을 통해서든 위선을 통해서든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웃의 명예, 소유,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를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

섬세한 양심을 통해 끊임없이 죄를 피하고, 좋은 동료와 함께 지내며, 장상들과 기쁘게 잘 지내고, 그들을 부모와 은인으로 사랑하며, 경험이 풍부한 그들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12. 예의 바름

예의바름은 타고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예의바른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말 훌륭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의바른 사람일 것이다. 섬세하고 예의바른 사람은 필연적으로 훌륭하고, 적어도 외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내면 또한 공손해야 한다.

상류가정 출신이라고 해서 모두가 교육을 잘 받는 것은 아니

다. 낮은 계층의 자녀들은 적응하느라 어려움을 겪지만, 실제로는 덕행과 선한 마음과 참된 공손함으로 부딪치는 어려움을 극복한다.

편지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더라도, 답장을 써야 하는 것은 자연덕에 속하는 의무다!

사회적인 예절을 모르거나 무시하는 체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곧 세련된 태도와 존중을 표시하는 것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쉽게 만드는 길이요, 존중받는다는 마음을 갖게 한다. 반면에 냉소적이고, 저속하고, 교양 없고, 폭력적인 말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불화와 불만을 낳는가! 지혜로움, 교육, 덕행만으로는 부족하다. 참된 수도자가 지녀야 하는 태도와 방법을 통해 모든 것이 갖추어져야 한다.

어린이는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에 입을 맞추는 데에 익숙해질 수 있다.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싫증을 내면서도 거룩한 신앙행위를 할 수 있다. 그 대신 말하는 사람의 살아 있는 모범과 지도는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을 양성할 것이다.

13. 성격 형성[8]

의지를 교육하면서 젊은이들의 성격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좋은 성격을 지닌 젊은이는 | 거룩해지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

8. 이 주제는 「성 바오로」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오로가족에게」라는 소책자에 첨가된 것이다.

SP, 1953년 9-10월호, 4쪽

며, 사도직 등 모든 것, 곧 신심, 면학, 수도회에 대한 사랑, 지도자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상을 획득하게 된다.

강하고 확고한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양성해야 한다. 곧 깊은 신념 위에 인격을 형성하며 늘 이러한 신념을 항구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다. 언젠가는 약한 이들과 결단력이 없는 이들을 이끌며, 다양한 의견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이상을 끊임없이 실현시켜가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완고한 고집쟁이도 아니요, 육체적으로만 강한 사람도 아니다.

평온하고 단순하며 열린 사람이다.

모든 이에게 자비롭고 온화하며 침착한 사람이다.

호감이 가는 겸손하며 성실한 사람이다.

생각, 감정, 상상, 혀, 자신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좋은 성격을 지니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수양해야 한다.

14. 마음의 양성

젊은이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하고, 인간을 사랑해야 하며, 연민을 지녀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관대해야 한다. 마음은 위대한 힘이다.

언제나 모범이 주는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양성은 허위로 꾸미거나 피상적인 것일 수 없다. 생명에서 오는 것은 생명을 형성한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금세 귀를 스쳐지나간다. 행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한 것을 실천에 옮길 줄 모르는 어린이는 외적으로 실행할지 몰라도 독립하는 순간, 자신의 본능에 따라 행동하기를 갈망할 것이다.

종교는 형식, 의식, 외적 행위로 축소되지 않는다. 교육, 신앙, 확신이 필요하다.

마음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호감이나 반감을 조심해야 한다.

마음속에 악에 대한 영원한 미움을 불어넣어야 한다.

무지한 이들을 교육하려는 열망,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려는 바람,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는 경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젊은이의 마음속에 성소에 대한 이상이 뿌리내려야 한다.

늘 착한 마음, 좋은 생각, 다른 사람의 선을 바라는 참된 열망을 형성해야 하고, 이기주의와 계속 싸워야 한다.

양성을 잘 받으면 원한과 질투를 키우지 않고, 온갖 위험한 우정관계를 피하며, 모두를 사랑한다.

스승, 부모와 고해사제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도를 통해 겸손해지고, 단순한 신앙을 지니게 된다.

신심, 면학, 사도직, 청빈과 같은 일상적 의무를 올바르게 행하도록 가르치고 특히 교육해야 한다.

15. 상상력 교육

젊은이가 상상력을 깨어 지키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 오늘날은 더더욱 그러하다. 오늘날의 만화영화, 만화책, 이상한 이야기가 목소리나 글을 통해 현실을 상상으로 대체하고, 의지와 마음을 상상으로 교체하는 폐해를 자주 입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교육과 지도를 잘 받은 상상은 좋은 양성을 위해 큰 역할을 한다.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의 첫 걸음은 현실과 상상 사이를 구별하는 것이다. 어린이는 기억하고,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 상상을 사용한다. 어린이는 주의 깊은 관찰과 논리를 통해 삶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상상은 나쁜 일이나 위험한 일을 재현할 수 있고, 좋은 일이나 향상시켜주는 능력을 재현할 수도 있다. 젊은이의 다양한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상상력을 교육해야 한다.

그러므로 영화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해야 한다.

16. 신체 단련

건강과 정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한다. 가능한 한 몸을 움직이는 레크리에이션을 해야 한다.

놀이를 잘 선별해야 하고, 항상 품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다리와 팔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고 삶에 가장 필요한 심폐기관, 심장박동, 혈액순환, 소화기 등 신체기관의 점진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겸해야 한다.

정신건강을 위해 게으름을 부리지 말아야 하고, 산만하거나 마음에 공허감을 남기는 잡담을 늘어놓지 말아야 하며, 면학과 신심과 사도직 의무를 싫어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 *

모든 장상이 양성을 위해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다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17. 맺음말

먼저 지혜롭고 올바르며, 사회적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하느님 앞에 정직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며, 사회에서도 올바른 인간이어야 한다.

– 더 나아가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양성해야 한다. 곧 살아 있는 신앙을 통해 스승을 본받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 여기에 덧붙여 공동생활을 통해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고, 바오로인의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완덕을 지향하는 거룩한 수도자가 되도록 양성해야 한다.

사회의식

들어가면서

「성 바오로」지 1953년 11월호에 발표된 이 소책자는 모음집 「바오로가족에게」 (20-49쪽)에 첨부되었다. 우리는 이 초판이 초고라 생각하기에 이를 택했다.

창립자 사상의 발전은 의미 있는 소제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곧 원리, 사회학 연구, 자연적 토대, 초자연적 토대, 수도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의 친화력, 바오로가족 사이, 국내 관계와 국제 관계….

작품의 열쇠를 제공하는 네 가지 '원칙'이 있다. 1)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2) 삶은 "모든 이가 살아야 하는 의무요, 자신의 완덕을 위한 것이고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성이 필요하다." 3)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 안에서 살라고 하느님이 정해주셨다." 4) 사회는 "개인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공동목표를 위해 모인 집단이기에 합법적 권위의 통치 아래 힘을 수렴하며 그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사회학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 사도직을 실행해야 하고, 관계를 성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성은 '대단히 다양한 성격과 기질이 모인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하면서' 일상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다. 그러나 신비체 사상이라는 높은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성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여기서 '사회의식'을 무엇보다 수도회 내부에 적용시켜야 하고, 이러한 의식이 바오로가족을 결속시켜야 한다.

이 소책자는 사상의 명료함과 현실성이 있고, 사회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관련된 일련의 지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룹 안에서든 국제적 범위에서든 사회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 소책자의 자필원고는 총원의 문서고 안에 있는 '성바오로'라는 이름이 붙은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데, 두 가지 크기(11cm×18.2cm와 15cm×19.3cm)의 종이 23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필원고는 삭제, 첨가, 수정 및 통합 등 다양하게 공을 들였다. 저자는 제목을 사회적 양성이라고 기록했지만, 사실 이 제목은 어디에도 없고 다만 언급한 소책자 표지에만 남아 있다. 비서의 손을 통해 '날짜는 1953년 10월 28-31일, 성 바오로San Paolo'라고 원고의 수신처가 쓰여 있다. 사랑의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네 장의 종이가 1953년 9월 19일자로 "이미 출간된 「성 바오로」지에 덧붙여"라는 글로, '바오로가족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삽입되었다. 자필원고에 비해 출판된 두 개의 출판본에 나타난 수정과 위치 변경은 비평 대조판을 만들기에 매우 힘든 작업이었을 것이다.

다른 비슷한 주제처럼, 이러한 작업은 사회학 주제에 대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지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사실 창립자는 사회학 주제에 관한 서적을 이미 출간했다. 출판을 거듭한 「그리스도교 사회학 기초*Elementi di Sociologia*」(1950)의 마지막 수정판은 루치아나 비안키니 수녀(FSP)와 루이지 조반니니 신부(SSP)가 많은 문헌과 참고도서를 탁월한 자료로 제시하며 엮어 「사회교리*Catechismo sociale*」(1985)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바오로인들에 의해 두 권으로 편집된 이 소책자를 위해 저자가 길어온 원천은 강조할 만하다.[1]

끝으로, 흥미로운 것은 같은 회지 뒷부분에 나오는 '소식' 난에 실린 내용이다. "펠라L'On. Pella[주세페, 이탈리아 공화국 참사회 대표]께서 성바오로수도회를 방문하셨다. 먼저 사도의 모후 성당과 지하 경당을, 이어서 성바오로딸수도회를 방문하셨다. 곧 인쇄소, 보급소와 영화관, 그 다음 우리가 했듯이, 3부작으로 된 단편영화 〈마리아〉의 한 부분을 직접 상영해보기도 하셨다. 우리의 소박한 식사를 기쁘고 친근하게 함께 나누며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감사에 응답하셨다. 짧지만 찬사와 격려가 담긴 말씀을 하셨고, 자신의 무거운 힘든 과업을 위해 우리에게 기도를 청하셨다."(「성 바오로」, 1953년 11월, 7쪽, 로마; 역주: 펠라 주세페는 1902년 4월 18일 피에몬테에서 태어나 1981년 5월 31일에 선종함. 이탈리아 그리스도교 민주당 소속 정치가로서 1953-1954년 이탈리아의 32대 수상을, 1954-1956년에는 유럽의회 의장을 역임함)

1. Giulio Monetti S.J., 「사회 현안 문제, 특수 사회학과 응용 사회학 강좌 *La Questione Sociale, Corso accademico di Sociologia particolare ed applicata*」, Scuola Tipografica Editrice di Alba, 1921; Natale Busi, 「사회생활을 통한 인격 *La persona umana nella vita* Sociale」, Pia Società San Paolo, Alba 1945.

사회 의식

SP,
1953년
11월호, 1쪽

1. 원 리

1) 온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첫째가는 중요한 계명이다. 그러나 첫째 계명과 비슷한 둘째 계명이 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한 본보기로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그는 히브리인이 아니라 '외국인'[1]이었다.

2) 교육은 젊은이가 자유의 선용을 길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자유의 사용은 하느님께 상을 받거나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은 많은 이에게 '짐'이 되거나 '소수'를 위한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며, 자신의 완덕과 이웃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성이 필요하다.

3) 하느님은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도록 정하셨다. 인간은 고립되어 홀로 살 수 없다. 혼자 힘으로는 자신의 신체적 도덕적 지적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 부족하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가정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수도생활에서든 다른 이들과 협력하여 자신의 부족을 채워 통합시키고자 하는 경향을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적 권리다.

1. 'Alienigena'는 문자 그대로 '다른 지역 태생의 외국인, 이방인'이다.

4) 사회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함께 모인 집합체, 각자 사회 계층을 이루며 합법적 권위의 통치 아래 힘을 결속하여 실행해야 할 공동목적을 위해 일치한 집합체다. (기계적인 조직이 아니라) 개인의 선을 위해 하느님의 섭리 아래 성장하고, 이성과 신앙에 의해 성숙한 단일한 유기체다.

2. 사회학 연구

오늘날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더 사회학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 삶은 전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전개된다. 사도직 실행과 관계를 성화기켜가는 것도 사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다.

사회성은 평화로운 공존과 함께 광범위한 인류가족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며 사도적' 공존을 지향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로마 9,24)

3. 수도회 안에서

가족, 단체 또는 수도회라고 불리는 여러 수도단체는 항상 사회적 성격을 띠며 목적, 수단, 권위, 회원이라는 구성요소 를 지니고 있다. 시대의 필요에 부합하고, 사회적 수단을 통해 회원들의 완덕을 지향하는 수도단체의 설립은 교회의 고유하고 통상적인 권리다.

완덕의 목적은 모든 수도단체에 공통된 것이다. 교회 안의 수

많은 수도단체는 각기 고유한 사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고유한 수단을 마련한다. 회원들을 이끌어 그들의 능력을 특수목적과 공동목적을 위해 조정하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 필요성이 나온다. 곧 순명과 사랑이다. 순명은 건물의 기초요, 사랑은 모든 회원을 일치시키는 수단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느님의 집은 믿으면서 기초를 닦고, 희망하면서 세우며, 사랑하면서 완성된다."[2]

성바오로수도회의 두 가지 목적은 회헌의 첫 두 조항에 표현되어 있다.[3]

SP, 1953년 11월호, 2쪽

인간은 자연적 초자연적 완덕이라는 이중의 완덕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회범주가 있게 마련이다. 곧 자연 | 질서의 사회와 초자연 질서의 사회다. 첫 번째 범주는 가정사회, 시민사회 등에 속하고, 두 번째 범주는 교회, 수도단체 등에 속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 사회의 일원이 될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세례성사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탄생으로 목적과 수단을 통해 초자연적 사회에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교회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초자연적 사회다. 그 수단은 신앙, 성사, 그리스도교적 덕행, 그리고 사목자에 대한 순명, 특히 교황에 대한 순명이다.

---

2. 원문에는: "Domus Dei credendo fundatur, sperando erigitur, amando perficitur." (성 아우구스티노, 「강론집*Sermo*」 27)
3.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회헌은 분명 당시에 효력을 지니던 회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느님의 영광과 회원들의 성화", 그리고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한 복음화"라고 두 가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 *

바오로인에게 사회성은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4]

– 수도가족 안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형제들, 장상들, 후배들에 대한 존중

– 다른 수도가족에 대한 존중

– 바오로가족의 다른 수도회에 대한 존중

– 신자 개인이나 집단으로 모인 신자단체에 대한 존중

– 시민, 국민과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

– 온 인류 가정에 대한 존중

– 교회 전체, 곧 투쟁하는 교회, 정화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에 대한 존중

4. 성소의 표지

사회성은 그 사회에 속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근본 자질이고, 그 사회가 수도회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사회성은 성소를 드러내는 긍정적인 표지이므로,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성소가 없다는 뚜렷한 표지이요, 근본적인 장애가 된다. "교회법과 회헌 규정에 따라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도단체에서는 서원誓

4. 앞선 출판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바오로인을 위한 사회성은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이러한 표현은 문장구성상 잘못되고 모호한 표현이다. 만일 동사를 수동태(요청되었다)로 해석해야 한다면, 이어지는 '존중rispetto' 이라는 단어는 부사적 의미가 된다.('…에 관하여' : in riferimento a) 그 대신 동사가 능동태(요구한다)라면, '존중rispetto' 이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 명사(존경, 경의)의 의무를 지닌다. 여기서는 두 번째 형태의 의미를 채택하기로 했다.

願 외에도 완덕을 지향한다고 분명히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공동생활은 공로의 원천이요, 성화의 수단이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을 공유한다. 곧 일과표, 면학, 사도직, 신심, 식사, 의복 등.(회헌 1,133-136조)

회헌 169조, 170조를 상기해보자. "모든 선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완성되는 것임을 수도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리며,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낸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거룩한 사람답게 사랑이 명하는 바를 지체하지 않고 지켜야 한다."

5. 타고난 성품

수도회에 입회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울릴 줄 아는 성격이어야 한다. 이미 위에서[5] '공동생활의 전제조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 선천적으로든 교육의 영향으로든 온유하고 잘 어울리는 낙천적인 성격
- 너그럽고 친절하고 이해심 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 가난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장상들, 후배들에 대한 올바른

5. "인간 양성", 4 참조.

마음자세

– 공손함, 예의바름, 순종, 친절한 태도로 규칙을 준수하며 특히 함께할 줄 아는 역량
–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멀리 하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못에 대한 비난이나 수치심을 안겨주지 않는 마음 자세.
– 늘 일관성이 있으며 단순하고, 성공이나 명예 앞에서 자만하지 않고, 반대상황에서도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꿋꿋한 자세.

* * *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제외시켜야 한다.

– 유별난 사람, 궤변론자, 타인의 아픔에 무감각한 사람, 이기주의자
– 비관적인 신앙인, 편협한 사람
– 히스테리 환자, 과도하게 신경질적인 사람, 불안정한 사람
– 정신병자, 늘 불만에 차 있는 사람, 옹고집쟁이
– 충돌을 일삼는 사람, 투명하지 않은 사람, 보복하는 사람, 공격적인 사람
– 교육할 수 없는 사람, 요지부동한 사람, 무례한 사람, 불안한 사람
– 가족 중에 이와 같은 질병과 일종의 심각한 증세가 있거나, 예를 들어 광기에 가까운 애정이나 다른 유전적인 질환을 가진 사람.

6. 초자연적 토대

사회성은 신심처럼 신앙을 바탕으로 한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를 발견하고 '우리 아버지' 안에서 형제들을 발견한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서 진리, 교육, 기도에 빚진 사람임을 알게 된다.

'신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 죄인, 고통받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 그분은 순수하게 인성만 지니신 것이 아니라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니셨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민족주의를 지닐 것이며, 특히 조국에서 사람과 사람의 구원을 항상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복음에 반대되는 민족주의를 지향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성격이나 경제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바라서도 안 된다. 모든 것, 곧 법, 가르침, 도덕, 신심실천이 교황의 가르침에 부합해야 한다.

'신앙을 통해' 수도회 회원이 서원자라는 새로운 명칭 때문에 우리는 형제임을 인정한다.

SP, 1953년 11월호, 3쪽

'신앙을 통해' 영원을 향해 가는 여정의 동반자요, 상호협력의 의무를 수행해야 함을 알게 된다.

'신앙을 통해' "모두 나에게 오너라".[6] 하시며 모든 사람을 당신께 초대하고 설교하시는 천상 스승의 성심, 마음을 넓혀 모든 사람을 품으신 이방인의 학자 성 바오로[7], 천상 성부의 모든 자녀,

6. "venite ad me omnes."(마태 11,28)

7. "doctor genitium."(1티모 2,7)

선교사, 설교가, 사도들을 인도하신 사도의 모후를 이해하게 된다.

7. 수도자가 지녀야 하는 사회성

우리가 살고 있는 수도회에는 같은 목적을 지향하며, 같은 수도복을 입고, 공동생활에 참여하고,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같은 결심으로 고무되어 영광의 화관을 얻기 위해 같은 길로 나아가는 형제들이 있다.

이러한 일치된 공통의 목적은 욕망과 이해관계와 인간적 음모에 의해 계속 분열되는 불행한 이 지상에서 사랑의 유대를 통해 우리를 결속시켜야 하고, 수도원을 평화의 감미로운 오아시스가 되게 해야 한다. 첫 공동체였던 사도단[8]을 결속시킨 형제애 정신과 하느님과의 일치가 우리 사이에 머물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얼굴에 평온함이 번지고, 우리 영혼을 고요하게 하며 수도생활의 직접 목적인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도록 기여한다. 이런 것이 부족한 곳에서는 잠심과 기도와 수도생활에 대한 사랑, 영적 삶의 열의를 지닐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본성상 사회적인 인간은 이러한 자기 본능을 만족시키는 곳에서는 쉽게 편안함을 느낀다. 순수한 애정의 열기로 훈훈한 가정을 떠날 때 삶의 불가피한 폭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우정 어린 안전한 버팀목 같은 친구를 찾게 된다. 가장 위대한 성인들도 인간의 원초적인 나약함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의 내면을 드러내는 편지가 그 명백한 증거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자신의 일생을 보내는 수도자는 그 안에

8. 사도 4,32-35 참조.

서 열린 마음, 관대하고 자비로운 영혼, 고상하고 섬세한 정신을 발견하면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 것이고, 진정으로 "이 지상에서 천상 예루살렘의 감탄할 만한 회중을 잘 대변해 주는 곳은 사랑으로 완전하게 일치된 수도회뿐이라는 것과, 우리 주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이 머무는 곳은 '하늘의 문' [창세 28,17 참조]"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자의 원수요 가장 무질서한 영인 악마는 그곳을 뚫고 들어와 평화를 교란시키고 불화를 퍼뜨릴 수 있는 무수한 길을 찾는다. 악마는 조화로운 일치와 형제적 이해가 꽃피지 않는 곳에는 하느님의 사랑, 섬세한 양심, 극기의 정신,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동체 안에 분열을 조장하고, 그곳을 불화와 몰이해와 온갖 종류의 오해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애쓴다. 위대한 영혼들 사이에서도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도 공동체에서도 여러분은 가장 반대되는 성격을 틀림없이 발견할 것이고, 다음과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이러한 점을 설명해줄 것이다. 자녀들을 수도회[9]에 봉헌하는 부모들의 마음자세가 각양각색이고, 각 출신지역의 특색도, 기질도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수도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매 순간 언제나 서로 가까이 지내며 조용한 사람과 침착하지 못한 사람, 심사 숙고하는 사람과 경솔한 사람, 진지한 사람과 신경질적인 사람, 균형

9. 여기에 나오는 '종교Religione' 라는 단어는 '수도회Congregazine', '수도단체 Istituto religioso',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를 가리킨다.

잡힌 사람과 공상가 등이 함께 지낸다.

자신과 화해할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와 함께 살게 된다면 세속인은 거주지나 업무를 바꾸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자에게는 그러한 탈출구가 늘 열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같은 사무실에서 완전히 자신과 반대되는 적성과 다른 시각을 가진 형제와 불가피하게 지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이 지상에 사는 한 우리는 연약함과 비참함 사이에서 살아야 할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하늘나라에서만 모두가 완전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마는 이러한 인간적인 나약함을 간교하게 이용하고, 서로 대립하여 부딪치게 하고, 자주 불화의 불꽃과 충돌을 일으킨다. 상상을 뒤엎고 욕망을 뜨겁게 달구며 영혼을 어지럽히고 의심하게 만들고 사소한 일을 과장되게 만들어 급기야 많은 경우 혼란을 조장하고 뒤흔들어 평화, 형제적 화합, 상호신뢰를 몰아내고, 그 결과 수도생활의 감미로운 멍에를 무가치하고 사소한 것 때문에 무겁게 만든다. 이와 같은 가라지가 자라는 곳에서 덕은 질식하고, 선을 위한 모든 도전은 감소되며, 영성생활은 활력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다. "파벌로 분열된 수도원은 비참하다."[10] 이 점에 관해서는 사도 성 바오로의 말을 상기하라고 제안할 수 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1코린 1,10)

---

10. 성 아우구스티노, 「강론집」 256, 'de temp'.

SP, 1953년 11월호, 4쪽

8. 사회성을 거스르는 죄

1) 최고 장상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형제들 사이에 영적 일치를 깨뜨리는 것은 죄다. 일치는 '사회적 선'이요, 힘을 분열시키는 것은 사회의 본질에 반대되는 일로서, 모든 이에게 해를 입히고 사회의 존립을 뒤흔든다. 이는 무절제한 비판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2) 직무, 사도직, 수업과 같은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수도회 밖의 일을 맡으며 힘을 빼는 것은 죄다. 이러한 일은 가족의 형제나 자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거나 친족과 친구를 돌볼 때 발생할 수 있다. 곧 무익한 외부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일에는 느리게 대처하는 대신 개인의 관심사에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 죄가 발생할 수 있다.[11]

3) 모두가 힘을 모아 목적을 위해 투신하지 않거나, 그들 개개인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맡겨진 직무를 거부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죄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험상 이미 자기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 직무를 열망하는 것도 죄다.

* * *

일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선'을 위한 직무와 소임은 장상의 뜻을 잘 헤아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실현해야 하기 때문에 지성, 의지, 마음, 육체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

---

11. tardus ad communia et ad singularia promptus.

9. 사회성을 거스르는 위험 요소

1) 수도회와 무관한 일에 대한 관심, 문제성 있는 사람에 대한 애착, 외출하고 방문하려는 열망, 외부인과 사적 관계를 맺거나 서신 관계를 계속하는 것, 장상이 알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숨기는 행동.

2) 특별한 우정관계, 호감이나 반감, 외부인들에게만 베푸는 과도한 친절, 고민 중이거나 기뻐하는 형제들에게조차 냉혹하거나 몰상식한 언행, 무관심, 저속한 언행.

3) 일상의 비밀이나 직무상 비밀을 지키지 않는 것.

4) 시기와 질투, 형제들과 장상들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자애심. 시기는 지극히 일반적이지만 대단히 해로운 것이다. 카인과 아벨,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관한 일화를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 청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쉽게 개입하며 나서는 사람들, 말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 충고는 잘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는 위험.

6) 영원한 삶을 위해 공로를 쌓지도 않은 채 외부인의 의견만 지나치게 찾아다니고, 자기 성소의 가치를 잃을 때 수도정신에서 멀어지기가 매우 쉽다. 예레미야가 자기 시대를 통탄한 만큼 명확하게 증명해보일 수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 “[정녕 내 백성이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을 저버렸고 저수 동굴, 물을 담아두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 동굴을 팠다.”[예레 2,13 참조] 이성과 신앙은 악, 대개 우리 때문에 야기되는 악에서 구제

될 다른 좋은 대책을 가르쳐준다.

7) 가까이 있는 장상에게 순명하지 않기 위해 사실을 기만하려 노력하면서 멀리 있는 장상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 또는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제삼자를 비열하게 부정적으로 비판함으로써 형제들이나 장상들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것이다. 자리에 없는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는 뛰어난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열심히 주의 깊게 바라보는 사람[12]은 애덕의 이유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다. 직무상 그러한 일을 맡은 경우는 예외다.

10. 성소에 부합하는 표지[13]

성소의 표지는 수도회에 대한 사랑이다. 수도회 조직에 대해, 회헌에 대해, 장상에 대해, 형제에 대해, 사도직 창안과 성과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는 것, 모든 이의 성성을 위해, 성소를 위해, 사도직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 성소를 위해 일하는 것, 각자의 위치에 따라 사도직과 물질적 재화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 진보와 지적 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기여하는 것, 곧 결점을 떨쳐버리고 선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다.

성소가 없다는 표지는 다음과 같다. 곧 파괴적이거나 경솔한 비판을 하는 습관, 수도회의 일을 함에 있어 무기력한 자세, 부당한

12. attende tibi.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1티모 4,16)
13. 이 소제목에 이어서 나오는 ("중개를 많이 해야 한다…"까지)의 부분은 1953년 11월호 「성 바오로」지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다. 소책자 「바오로 가족에게」에 첨가되었다.

일과 결점을 부추기는 행위다. 기계 전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바퀴나 톱니 하나가 파손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교회의 정신과 판단력에 따라 모든 수도회를 존중해야 하지만,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의 수도회를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이 부족한 사람을 피해야 한다. 자주 물질적인 면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여러분은 참된 바오로의 정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주 만나야 한다. 선, 진리, 평화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큰 공로를 쌓는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11. 사회성의 수단

서원자들의 모임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고 지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일 뿐 아니라 의무다.

모임에서 각자는 자기 견해를 단순하게 말하고, 모두가 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으며, 장상이 이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그렇게 한 다음, 신앙에 힘입어 오로지 하나의 생각으로 힘차고 기쁘게 열심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일치하여 살아간다.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힘을 모으고 그 지향으로 함께 간구한다."[14]

필리비 신자들에게 한 성 바오로의 말씀은 숙고할 만한 내용이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14. "Collatis consiliis, virbus unitis, multiplicatis intercessoribus…", 통치에 관해 수도회 권위의 결정 절차를 다루는 교회법의 표현.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수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은 모두 나와 함께 은총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필리 1,5-11)

12. 교회의 사회성

교회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사회성의 특별한 토대는 신비체 사상이다. 외적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살아 있는 지체 사이에는 예수님과 똑같은 피가 순환한다. 다시 말해 모두에게 활기찬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분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력이 순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지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이룬다.

그리고 이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 정화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15] 세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는 지상에서 순례 중인 교회, 또는

15. '투쟁/순례하는 교회, 정화하는 교회, 승리한 교회Militante, purgantae, trionfante' 라는 표현은 순례하는 교회(하느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투쟁하는 교회), 정화의 길에 들어선 교회 그리고 영광에 들어간 교회를 가리키는 전

이미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한 유일한 교회를 형성한다.

교회의 사회성은 (적어도 교회에 속하는) 모든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로 보도록 이끈다.

교회의 사회성은 교황과는 사랑, 순명, 존경하는 관계를 맺고, 이와 마찬가지로 주교와 교회 장상과도 그러한 관계를 맺기 바란다.

무엇보다 출판 사도직을 통해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아주어야 한다. 출판 사도직을 통해 우리는 독자, 관객, 청취자에게 다가간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과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어야 한다. 독자를 이해하고 너그럽게 잘 대해야 한다. SP, 1953년 11월호, 5쪽

우정관계는 분명해야 한다. 젊은이를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이 분명해야 하고, 구독신청이나 서적의 가격도 분명히 명시해야 하며, 할인율을 분명히 책정해야 한다. 발송은 정확하게 해야 하고 제때에 지불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계약을 정확하게 해야 우정이 길게 간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반기지 않고 멀리한다. 확실하게 주고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출판, 영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특히 어린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점에 관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자 인쇄분야에서 일을 분담할 때에도 젊은이를 위해 마음 써 가며 일을 주어야 한다.[16]

고려해야 할 점은 우리 회원의 부모와 친척과의 관계, 학생, 지원자, 청취자, 고해자들과의 관계다. 이에 관해 명료하게 말하는 작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통적인 용어다.

16. 당시 젊은이들이 바오로 출판사에서 책의 식자 작업을 하게 한 관례를 말한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서적이나 전집에 젊은이들의 협력을 권하지 말라고 강조한 점은 잘 알려진 바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기쁨을 누리는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눠야 한다. 특히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아파하고, 교회가 기뻐할 때 기뻐해야 한다. 교황의 보편적 심려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정신, 의지, 마음을 교황과 일치하여 살아야 한다.

어떤 특정 국가를 위해,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를 위해 바오로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정해진 지역에 가기 위해 바오로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왕국의 시민, 곧 교회의 시민이며, 어떠한 국가에 있든 우리는 항상 교회에 속한다. 교회는 가톨릭, 곧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는 로마교회[17]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로마시민이다.

* * *

이러한[18] 사회의식은 사도직에도 적용된다.

총원은 사랑으로 활동하고 존재하며 교회, 영혼, 수도회, 분원의 필요성을 배려한다. 총원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침과 용기를 주고, 기획하고 제안하며, 회헌의 정신에 포함된 어떠한 활동도 멈추지 않는다. 곧 출판물은 다른 국가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고, 출판할 수 있다. 총원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살고 활동하는 힘이 된다.

"현명한 교육자에게는 자극하고 행동하게 놓아두며, 인도하고

17. 이 같은 로마정신의 의미에 관해서는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48-57항을 보라.
18. 이 단락 또한 (이어지는 소제목까지) 소책자 「바오로가족에게」에 첨가되었다.

바로잡아준다."[19]는 법칙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 스승이요, 그 누구보다 인간을 존중하셨으며, 자연적 초자연적 역할을 통해 인격을 계발하셨고, 이 지상에서 그리고 영원에서 하느님 구원사업에 참여하도록 드높이셨고 인도하셨다.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20] 우리의 온 존재가 오류와 악과 거짓예배와 미신과 거짓열성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렇다. 수도회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이와 같이 활동해야 한다.

13. 바오로가족 사이에[21]

주님은 우리 수도회가 넷이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참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 계시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한데 모으니…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 되

19. 이미 인용한 ("네 정신을 다하여…" 각주 52를 보라) 교육학적 명제요 알베리오네 신부가 자주 애용한 표현이다.
20. 미사경본에서 발췌한 내용: "Da nobis… eius divinitatis esse consortes, qui humanitatis nostræ fieri dignatus est particeps, Jesu christus…."(포도주에 물을 부을 때 바치는 예물 준비기도)
21. 1950년대 초까지, 창립자가 사용한 용어는 자주 복수 형태('가족들, 각 수도회들Famiglie')에서 단수 형태('여러 수도회를 유일한 유기체로 통칭하기 위해 '바오로가족, Famiglia Paolina')로 변했다. 복수 형태의 표현은 곧바로 단수 형태로 바뀌었고, 여기서 '수도회들congregazioni' 이라는 용어를 통해 명료하게 표현되었다. 1953년 말경 네 개의 수도회를 나열했다. 아직 사도의모후수녀회와 병설 단체들은 태동하지 않았다. – 이 모든 주제에 관해서는 당대에 나온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33–35항에 동일한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다)에 잘 나타나 있고, 알베리오네 신부는 1960년에 세 차례에 걸쳐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I, 19–20; I, 375–382; III, 180–191 참조)

니 우리 마음 갈라질까 조심하세."[22]

바오로가족은 모두 감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밀접한 가족관계가 형성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교회에 봉사한다는 유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모두를 대신하여 감실 곁에서 전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큰 소리로 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은 개개인에게 다가간다.

그들 사이에는 영적 지적 윤리적 경제적 긴밀한 협력이 있다.

통솔과 경영관리는 분리되어 있지만, 성바오로수도회는 다른 세 수도회의 '모체altrice'[23]다.

분리되어 있음에도 혈연의 유대보다 더 고귀한, 사랑의 긴밀한 유대가 있다.

그들은 서로 독립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와 도움을 주고받는다. 활동은 분리되어 있지만 기쁨과 고통에 동참할 것이다.

'서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 공동생활을 향한 첫걸음은 이해하는 것이다. 좋은 이웃과 공존하는 삶이라기보다 생각, 정신, 열망을 나누기 때문에 속성상 가족관계다.

---

22. 따름 노래 'Ubi caritas et amor' : "Congregavit nos in unum Christi amor…. Simul ergo cum in unum congregamur, ne nos mente dividamur, caveamus."(미사 경본, 성목요일 주님의 만찬미사 성찬전례)
23. "altrice"(양분을 주는 자/모체)의 의미에 관해서는 F. Pierini (ssp), 바오로 가족의 "altrice"인 성바오로수도회의 역할, in "Il ministero dell' Unità nella F.P."(바오로 가족 안에서 일치의 직무), (제5차 총장 모임), 아리차, 1987년 9월, (바오로 가족 총본부 역사 문서보관소), pp. 135-160을 보라.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1코린 13,5]라는 말씀은 여기서 아주 적절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좋게 생각하고, 선을 바라고, 좋게 말하고, 선을 베풀어야 한다." 도와줄 줄 알아야 한다. 한 가족이 어떤 나라에 진출했을 때 다른 수도회도 진출하도록 준비해줄 줄 알아야 한다.

'서로 조정해야 한다' : 성소를 찾는 일에서 여자수도회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소를 북돋울 줄 알아야 하지만 젊은 여성이 자극을 받아 마음이 끌리고 적성에 맞는 수도회에 자유롭게 입회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한 수도회에서 퇴회한 젊은 여성을 다른 수도회에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각 수도회는 고유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다른 수도회는 그 수도회의 영역과 사업을 존중해야 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 협력해야 한다.

* * *

네 수도회 사이의 조정은 장상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소속 회원들은 해당 장상에게서 지시를 받게 될 것이다.

발생하는 세부적인 어려움은 가능한 한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이 부성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온순하게 따라야 하고, 요구하는 희생을 잘 감내하는 애덕을 지니는 것은 도움이 된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덕[24]은 교회의 사회적 활동을 조정한다. 애덕은 교회법과 교회가 정한 모든 규정, 교회와 수도회 당국

24. 이 단락은 (소제목 "국내 관계"까지) 소책자 「바오로가족에게」에 첨가되었다.

이 정한 모든 규정의 결정적인 원리, 동기, 요소다.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요한 21,15 참조] 사랑했기 때문에, 온 교회를 다스리고 규정하는 직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한이 아니라면 지상에서 어떠한 대리자도 그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애덕은 규정된 바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이끌어주고, 마찬가지로 애덕은 거룩한 실천으로 이끌어주며, 우리의 존재 전체, 곧 정신과 힘과 마음을 적용하게 한다.

우리 수도회들은 목적과 수단이 잘 구분되어 있다. 그럼에도 1밀리미터까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경계지역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물론 네 개의 수도회 모두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애덕은 회헌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바를 보충해준다. 예를 들면 선한목자예수수녀회는 본당신부의 지도하에 '수녀회가 진출한 본당 내에서' 주보, 도서관, 교리서 보급 등에 전념해야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애덕은 바오로 서원과 전례사도직 센터 활동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서로 만나고 느끼며 배려하는 것과 올바른 지향은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를 이루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알바의 한 훌륭한 본당신부가 '성 바오로'[25]에 우리의 두 번째 성작을 선물하면서 말했다. "성작 하단에 새겨둔 글귀를 보십시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천상 스승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여러분 사이의 일치는 수도회의 발전과 평화와 개개인의 열의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실 대사제의 기도에서 예

25. 여기서 '성 바오로San Paolo' 는 '성바오로수도회Pia Società San Paolo' 다.

수님은 네 번에 걸쳐 성부께 이러한 일치를 청하셨다. 먼저 사도들 사이의 일치, 그 다음 사도와 신자 사이의 일치, 신자들 사이의 일치 그리고 교회 교계제도와의 일치를 청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1.21.22.23)

당시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천상 스승의 간절한 기도는 심오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수천에 이르는 이교와 수십만에 이르는 이단이 활개를 치는 상황이었고, 신앙의 진리와 윤리원칙에 관한 무절제한 토론이 난무하였다.

* * *

사회성은 손님 대접을 잘 하게 한다. 성 바오로가 권고한 손님 대접은 손님을 환대하고 친절하게 접대해야 할 주인의 의무를 중시하지만, 주인을 존중하고 치켜세워야 할 손님의 의무도 강조한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1베드 4,9] 그 집안의 질서를 방해하지 말고, 최선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며, 필요 이상 머물지 말아야 한다.

어디에서든 우리 회원은 대접을 받고 형제적 환대를 받지만, 어디를 가든 형제들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여 중압감을 주는 일은 피해야 한다. 가능한 한 방해를 일으키는 일을 피해야 한다. 한 분원에서 다른 분원으로 악을 퍼뜨리지 말고, 오히려 선을 순환시켜야 한다! 그 대신 수도회 법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건설해나가야 한다.

* * *

사회성은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균형 잡힌 공동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활성화된다.

* * *

바오로가족은 출판 사도직 협력자들Unione Cooperatori Apostolato Edizioni[26]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그리고 협력자들과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음을 느끼며, 협력자회 회보를 통해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나가고 있다. 그들에게 베푸는 가장 큰 감사의 선물은 그들을 위해 매년 2400대의 미사를 거행하는 것이고,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 수도회가 완수하는 선행의 한 몫을 차지하고 대사를 받으며, 많은 공헌을 한 협력자를 위해서는 사후死後에 그레고리오 미사를 봉헌한다. 사회성은 우리

26. 이러한 명칭은 당시에 사용했고 새 회규가 승인된 1992년까지 사용하던 협력자들의 명칭이다. 지금은 '바오로 협력자회' 라 칭하고, 이 협력자회의 고유 회지는 「협력자 회보」다.

편의 생생한 감사를 요구한다.

협력자들의 성화를 위해 그들을 교육하고 한층 더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그들을 비추어주는 것이 우리의 두 가지 과제다.

* * *

양성소는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 초기양성소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서원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분원은 스스로 생활비를 쉽게 마련할 수 있고, 분명 그래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원은 이미 양성이 끝난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반면에 건물, 인쇄기, 학교, 영적 동반자가 있는 분원의 경우에는 일상적인 지출이 매우 많다. 서원자로만 구성된 수도회의 모든 분원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양성소를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아직 그러한 규정을 정하지는 않았다. 모두가 선으로 이해하고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사랑의 의무일 뿐 아니라 사회에서 정의를 실행하는 자연적인 의무조항이다. 예를 들어 (다섯 명으로 구성된 가정 공동체를 가정해보자.) 가족의 일원 중 누군가가 경제적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 가장인 아버지가 생활비를 책임지게 된다.

* * *

'사도직'에서도 사회의식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진출한 나라를 위해 지침이나 방향제시에 도움이 될 출판을 한다. '로마국제센터Centro internazionale di Roma'와 다른 나라의

센터에 관해 이미 설명한 것처럼[27] 여러 나라 사이에 출판교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내부의 채무에 대한 지불을 분명히 한다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14. 국내 관계

그리스도교 사회학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가톨릭 신자의 의무를 알려준다. "개인의 의무는 양심적인 존중과 합리적인 순종이다. 그 밖에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공동선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내놓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 현명하고 정직하며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고 공동선을 위해 주력하고 교회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의무다. 교황청은 명확한 가르침을 준다. 그리고 바오로가족은 이러한 가르침을 전할 방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SP, 1953년 11월호, 6쪽

이웃나라보다 자기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그러나 자기 나라를 위한 사랑은, 사랑 안에서 공정하게 자리 잡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여러 나라의 모든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

교회의 큰 적은 국수주의다. 전체주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이 로마[28]의 지침을 따르는 것을 자기 정권에서 이탈하거나 반역하는 것으로 여기고 외국 세력을 편드는 것으로 치부한다. 그 얼마나 이상한 논리고 치명적인 오류인가! 그럼에도 실제로 교회보다 조

27. 「성 바오로」, 1953년 11월호, 7쪽 참조: "출판 편집에 대하여: 총원에 있는 출판 사무국은 한층 더 효과적으로 출판 업무를 설치한다. 편집과 출판 선택을 위해, 이탈리아뿐 아니라 해외 분원들과도 점진적인 조정을 위해 일할 것이다.

28. 분명, 교황청의 지침을 따르는 나라를 말한다.

국을 선택하고, 사상 면에서 아니면 적어도 실천적인 면에서 권리와 특권을 고집하면서 교회가 과장한다고 의심하거나 선입관을 갖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사건의 객관성, 공공법규의 원칙, 인간의 최고요 영원한 선을 바라는 열망에 의해 인도되도록 놓아두는 대신, 여러 가지 충돌로 국가보다 교회를 고발하려고 애쓰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1860년부터 오늘날까지 발행된 교황의 회칙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사랑에 종속된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있어 국가 자체는 교회에 종속된다.[29] 물질적인 가치는 영적인 것에 종속된다. 이는 마치 국가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에 종속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비록 정당이 건전하고 가톨릭 신자들로 구성되었다 해도 이들이 교회를 대변할 수도 구성할 수도 없는 것이다.

복음을 지혜롭게, 전적으로 살아가는 수도자들과 사제들은 모든 나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동시에 모범적인 방법으로 시민의 의무를 수행할 줄 안다. 같은 수도회의 사제와 수도자라도 적국에 속한 이들은 전쟁 동안 병역의 의무를 완수했을 것이고, 그 중 많은 사람이 공을 세우고 훈장도 받았을 것이다.

15. 국제 관계

국제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 곧 국가의 공동기

29. '종속subordinazione' 이라는 개념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교회의 사회교리에 의해 사라졌고, 그에 적합한 고유한 질서에 해당하는 통합과 협력의 개념으로 대체되었다.(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참조)

원, 공동구원, 공동운명, 공동선에 토대를 둔다.

"인류는 비록 하느님이 정하신 자연질서 상 여러 인종으로 나누어지지만…,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윤리적 법률적 상호 유대관계로 결속되어 있습니다."(교황 비오 12세)

자연법과 관례적인 법은 관계를 확립시킨다.

조국에 대한 사랑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 사이의 재화의 교환을 통해 강화시킨다.

"지나친 민족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민족주의와 민족주의가 널려있기 때문입니다."(교황 비오 11세)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1) 올바른 생각, 다시 말해 인간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개념, 2) 인간 사이의 보편적 사고, 3) 인간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토대는 가톨릭 신앙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것.

국가 간의 회의에서 이탈리아는 인간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 그 전통적인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권좌가 있고, 문명화와 선교사명을 위한 자신의 소명 때문에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30]

바오로인은 모든 국가에 대해 좋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자기네 사도직을 넓혀가기 위해 널리 통용되는 언어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진출한 나라에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위대한 정신을 지녀야 할 것이다. 모두를 존중해야 할 것이고 복음, 교회, 문화의 풍요로움을 전해야 할 것이다.

---

30. 논의의 여지가 대두될 수 있는 평가이지만, 한정된 역사 안에서 성장했고, 세속적이 아닌 순수한 전망으로 방향을 잡고 있던 알베리오네 신부의 느낌이 드러난다.

우리의 설교와 묵상은 아직도 구원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자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에 모든 백성을 포함시키고 '주님의 기도' 의 보편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인류 전체에 대한 시각을 우리에게 잘 제공해주는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를 구독하자. 모든 바오로인은 회헌이 우리에게 보편적 정신을 심어주고, 다른 국가에 마음을 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그들을 형제처럼 환대해야 한다.

* * *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리, 역사, 문학과 그와 유사한 과목의 수업에서는 여러 대륙의 필요와 가치, 문명상태, 관습, 사상, 종교상황,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 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

수도자에게는 부자도 가난한 이도 없고, 미개인도 문명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고, 다만 하느님의 자녀요 구원해야 할 영혼이 있을 뿐이다. 수도자는 물질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원에 관련된 더 높은 사명을 위해 태어났음을 느낀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북쪽지방 출신과 중부지방 출신, 동쪽지방 출신이나 서쪽지방 출신을 똑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비록 적국이라 해도 다른 나라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절대로 피해야 한다. 바오로인에게는 오직 친구와 형제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억압된 분위기' 에서 온 사람들에게

SP, 1953년 11월호, 7쪽

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천국에서는 흑인이 백인을 앞설 수도 있을 것이다.

* * *

오늘날 국제연합에 속하는 여러 나라가 바라는 하나의 사회를 건설하는 세상의 염원이 실현된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는 창조주요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계획,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가톨릭교회의 계획, 성 바오로 사도의 계획도 실현될 것이다. 스승도 한 분이요, 학교도 하나요, 가르침도 하나요, 무르익어야 할 열매도 하나라야 한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교리를 공부하듯 우리의 모든 수도원에서 공부해야 할 「사회학의 원리」[31]라는 소책자를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고 제한된 사명을 가졌던 히브리 백성의 종교적 시민적 민족주의 장벽을 극복하셨고, 그리스도 친히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천상 성부께서는 당신 아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 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시편 2,8] 곧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당신 신비체인 교회는 인류 전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와 더불어 보편적 유산을 받았다. 또한 성 바오로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순수하고 강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인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

31. 이미 언급한 책을 말한다. 「사회학 요소*Elementi di Sociologia*」(1950) 또는 「사회교리*Catechismo sociale*」(1985).

도의 생각을 대변하는 권리를 맡겼다. 세계공의회였다. 바오로인은 그들의 아버지요 스승이요 학자인 성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가장 소중한 유산, 곧 사도의 마음, 열망, 무한한 사도직을 받아들였다.

* * *

개개의 사회, 각 나라는 인류라는 거대한 강에서 갈라져 흐르는 개천이다. 복음은 초자연적일 뿐 아니라 초국가적인 것이다. 복음은 때가 차면 끝나고 마는 제한된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와 영원의 결말을 한계로 삼는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로마 10,12)

참된 바오로인의 생각, 감정, 열망은 이러한 초자연성과 초세속성sit venia verbis[32]을 숙고해야 한다. 익숙한 환경, 교구나 교계제도가 확립된 현세, 또는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전파된 지역으로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언제나 더 앞으로 가야 한다! 사도들의 토대 위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인 모퉁이돌 위에 기초를 둔다면 확실히 도약할 수 있다. 사명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해야 한다.

미사는 보편적 기도인 동시에 일치의 기도, 공동의 기도, 사회적인 기도다. 일치는 하나의 신앙, 하나의 생명, 하나의 은총, 하나의 양떼, 한 목자, 하나의 천국,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축성된 포도주는 많은 포도알로 이루어졌고, 성변화된 빵은

32. 구체적으로는: '이런 표현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라는 뜻.

많은 밀로 이루어졌다. 집전자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33]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봉헌하는 것이다. 매일 아침, 비록 지상의 수많은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동일하고 가장 위대한 행위인 미사 안에서 일치한다. 사제도 하나요, 희생제물도 하나요, 같은 열매를 맺는다. '길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마태 15,32 참조] 각자가 취할 수 있는 하루의 양식이다. 보편성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희생제사를 바치기 전에 영적으로 사람의 무리, 곧 주위의 모든 사람을 제대 주위에 불러모아 천상의 모든 이와 "친교를 이룬다."[34] 미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체의 모든 지체를 살게 하는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다. 사회의식을 가지고 미사에 참례하는 것은 미사를 가장 생생한 사도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 * *

그러므로 사회성은 모두를 위한 모두의 덕행이다. 이것은 특히 수도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사도직이 광범위한 만큼, 국가가 넓은 만큼, 교회가 널리 퍼진 만큼, 오늘날 25억으로 집계되는 인류의 많은 숫자[35]만큼 아주 방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

33. "per ipsum et cum ipso e in ipso." 성찬전례의 마침 영광송.
34. 로마 미사경본Canone romano에서 산 이들을 '기억' 하는 전구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온 교회와 친교를 이루어…."
35. 1953년 11월의 이 통계 숫자는 오늘날 두 배 이상에 달한다.

노 동

들어가면서

「성 바오로」지 1954년 1월호에 "바오로가족 안에서의 노동Il lavoro nella Famiglie Paoline"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소책자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묵상한 것이다. 우리가 찾아낸 자필원고는 수정과 통합과정을 거쳤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관성 있게 통일된 것은 아니지만, 거듭 다루어 여러 단계로 확장되었다.

그 다음에 모음집 「바오로가족에게*Alle Famiglie Paoline*」(1954년 성 요셉 축일)에 실린 글에는 "노동Il Lavoro"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책에도 그 제목을 그대로 싣는다.

내용의 요약은 노동의 원리, 노동의 존엄성, 노동에 대한 교육, 성 바오로 사도 안에서, 부지런함과 게으름, 자선, 수도적 청빈, 바오로인의 기본재산, 노동을 가르칠 것, 균형 잡힌 노동, 헌신과 항구함, 시간을 활용할 것, 잘 행할 것, 초자연성, 좋은 편집, 기술노동과 보급, 휴식의 본질, 스승과 마에스트로들, 모두가 노동을, 신앙 등의 소제목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여기서 다루는 다양한 주제, 예를 들면 청빈과 자선은 비록 우리가 후에 언급하지만 연대적으로는 앞서 발표한 「섭리*Provvidenza*」라는 소책자에 나온다.

알베리오네 신부의 일부 사상은 완전히 선구자적인 것이다. 노동은 모든 인간 존재의 과제요 영광이다. 노동은 죄의 벌이 아니며, 열등함을 지칭하는 것도 않니다. "태만, 게으름, 무기력, 무관

심, 미지근함, '무위도식nihil agentes' 할 때 열등한 것이 된다."

노동의 존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귀감을 숙고하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없다. "노동자-그리스도의 신비는 수난과 죽음의 신비보다 더 심오하게 여겨진다. 수십년을 목수일에 전념했던 것이다!"

바오로인에게 사도직인 노동은 아주 고귀한 것이다. 사도직은 우리를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한다. 후배인 지원자들에게 노동을 가르친다는 것은 오직 기술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의 발전과 조직을 함께 알게' 한다는 의미다.

1987년에 성바오로수도회 안드레아 다미노 신부 엮음으로 역사적 입문과 각주를 곁들인 소책자 「노동과 섭리*IL Lavoro e la Provvidenza*」를 바오로가족 총원 역사 고문서 출판용으로 발간했는데(13번), 아주 공들여 만든 개정판이다. 여기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직접 노동을 했고, 노동하게 했다." 엮은이의 경험과 일화가 실린 매우 흥미롭게 부록(53-67쪽)으로 추가되어 있다.

우리는 별도의 소책자처럼 '섭리'에 대해서는 다음부분으로 넘기고자 한다. 그 대신 여기에 부록을 덧붙이고자 한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쓴 〈노동의 여왕 마리아Maria Regina del Lavoro〉에 관한 것으로 로사리오 에스포시토 신부가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Carissimi in San Paolo*」(1095-1096쪽)에 수록한 것으로 그 내용은 노동에 관한 이야기를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노 동

1. 원 리

SP,
1954년
1월호, 1쪽

노동은 유익하고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의식 있는 활동이다. 하느님은 세상을 엿새 또는 여섯 시기에 걸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1] 다시 말해 '외적으로ad extra'[2] 당신의 활동을 끝내셨다. 곧 모든 것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행하셨다.

노동은 활동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기능에 따라 다양하다. 지적 노동(면학, 상담), 내적 노동(기도, 정신활동), 영적 노동(설교, 성사집행), 윤리적 노동(통솔, 보좌), 육체적 노동(농부, 노동자), 온전히 자연적인 노동, 특히 초자연적인 노동 등이 있다. 그러나 항상 활동과 유익한 목적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 * *

1. '6일' 또는 '시기'에 대한 성서적 해석은 새로운 우주과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우주의 변화 또는 '계속적인 창조' 가설에 개방적인 현대 주석에 의해 극복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없다.(A. Masani, "섭리와 우주 질서Provvidenza e ordine cosmico", in 「신학 논평*Rassegna di Teologia*」, 4번 – 1999, 581–591쪽; – C. Taddei Ferretti, "계속적인 창조: 미래와 창조Creazone continua: il futuro e la creazione", 같은 잡지, 2번 – 2000, 223–259쪽 참조).
2. 하느님의 내적–삼위일체 생명으로 구별되는 하느님의 행위를 지칭하기 위한 스콜라 신학의 표현(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밖에 있는/외적인").

노동은 죄의 벌이 아니며, 원죄는 노동에 고생만을 보탤 뿐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창세 3,19] 인간은 노동을 해왔고, 죄를 짓기 전에도 일했을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창세 2,15)

"무릇 사람이란 재앙을 위해 태어나니 불꽃이 위로 치솟는 것과 같다네."(욥 5,7)[3]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노고는 개인과 사회 구원의 요소가 된다. 수난의 의미보다 더 넓은 '고생'은 예를 들면 나자렛의 거룩한 노동자의 노동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제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의 지향과 함께 저의 모든 활동, 기도, 고통을 당신께 봉헌하나이다."[4]

인간은 천국에서 거룩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의 극치에 이를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주신 탈렌트를 통해 변화된 육신과 하나된 영혼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안식'[5]이라는 말은 '편안히 쉬어라'나 '잠을 잘 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아직 우리는 어떤 종류의 활동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성 바오로도 우리가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지

3. "인간은 노동을 위해 태어나고, 새는 날기 위해 태어난다Homo nascitur ad laborem et avis ad volatum." 이는 인용한 성서를 문자 그대로 옮긴 것이다.(욥 5,7) 새로운 성서 번역에서는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CEI에 따르면, "불티가 높이 날듯이 인간은 재앙을 위해 태어난다." 그리고 TOB(프랑스 공동번역)에 따르면, "인간에게서 악이 생기는 것은 마치 불에서 불꽃이 치솟는 것과 같다."
4. '선종을 위한 기도' 「바오로가족 기도서」(초판) 1957년 참조.
5. "Requiescant".

않은 것이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두셨다."[1코린 2,9]

* * *

죄는 노동이 아니다. 비록 활동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함을 가져오는 목적이 없기에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어린이가 불꽃을 보기 위해 천 원짜리 지폐를 찢어 태워버리는 것과 같다.

자유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허가증이 아니다. 교육자는 한 인격체가 책임과 존엄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까지, 다시 말해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때까지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제도나 시간표는 인간, 그리스도인, 수도자, 사제라는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발판이다.

* * *

교황 비오 12세는 교황령 「그리스도의 신부*Sponsa Christi*」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노동, 손노동 또는 | 지적 노동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자연법을 통해서뿐 아니라 보속과 속죄의 의무를 통해서도 관상생활에 헌신하는 남성과 여성도 노동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은 영혼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고 더 높은 것을 향해 드높여주는 공동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우리는 의무처럼 자연질서나 초자연 질서를 통해 우리의

SP, 1954년 1월호, 2쪽

모든 활동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사랑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2. 노동의 존엄성

노동은 비천한 것인가? 노동자의 노동이나 ‘좋은 몫을 선택한’ [루카 10,42] 수도자의 노동은 비천한 것이 아니다. 비록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루카 16,19] 하더라도 게으르면 비천한 것이다. 안락, 게으름, 무기력, 무관심, 냉담, 미지근함, ‘무위도식’ 이 비천한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인간을 드높여주는 종교다. 고대 일반개념에서 노동, 특히 손노동은 비천함의 표시처럼 경멸 대상으로 여겼다. 따라서 ‘자유인domini’ 과 ‘노예res o instrumenta’ 사이에 차별을 두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크세노폰 그리고 키케로[6]도 이러한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스도교는 노동의 가치를 확고히 하여 당대의 사고방식에 변혁을 일으켰다. 복음서 전체가 노동의 세계에서 움직인다. 모두에게 노동의 의무가 있다. 비록 부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노동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탈렌트의 비유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은 정당한 급료(마태 10,10)를 받는 생계수단이기도 하다. 노동은 인격 향상과 구원의 수단이다.(요한 6,27)

6. 이 항목에서 저자는 무신론에 대해 언급하며, 노동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에 관해 다루고 있는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하느님의 구원*Divini Redemptoris*」(1937년 3월 19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 * *

하늘에 계신 성부는 오류에 빠진 인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복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리스도는 이를 가정에서 그리고 노동으로 시작하셨다.

노동자-그리스도의 신비는 수난과 죽음의 신비보다 더 심오한 것 같다. 오랫동안 목수일에 전념하셨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마태 13,55]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마르 6,3] 나자렛에서 그가 흘린 이마의 땀방울은 겟세마니에서 흘린 핏방울보다 구원의 효과가 덜하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분이 설파하신 많은 말씀보다 더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3. 존엄성의 근거

인간의 노동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수록 더욱 고귀한 것이 된다.

1) 지성, 자유, 창의력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행할 때 노동은 무한히 고귀하다. 그래서 수공예품은 공장제품보다 낫다. 작은 땅의 소유주라도 막노동자나 소작농보다 낫다. 스승의 직무는 교수의 직책보다 뛰어나다.[7]

2) 노동의 '목적에 따라' 고귀함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영혼을 돌보는 사제의 노동은 육체를 돌보는 의사의 노동보다 뛰어나다.

7. 여기서는 학생들의 정신, 의지, 마음의 양성장인 '마에스트로'에 대한 알베리오네식 개념을 떠올린다.

사도의 노동은 재단사의 노동보다 뛰어나다. 교육자의 노동은 군인, 경찰의 직무보다 뛰어나다.

3) '이로울' 수록 고귀하다. 수도자가 자기 영혼의 완덕을 위해 행하는 노동은("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화가나 조각가의 작업보다 뛰어난 것이다. 그리스도인 법률가와 사회학자의 노동은 세금 징수원의 노동보다 뛰어나다.

4) '진리와 평화와 선' 을 가져다주는 우리 평수사들의 '사도적' 노동은 (일반 기술자와 보급자) 외부 인쇄공, 서점 근무자, 기술자의 노동보다 뛰어나다. "기쁜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로마 10,15] 사도직은 현재의 삶을 위해 그리고 영원을 위해 최고의 선을 가져다준다.

4. 노동에 대한 교육

노동은 삶과 영원을 위해 무한한 효과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육체적 힘, 지적 힘, 도덕적 힘이 있고 그 힘을 소모하기 위해 일생을 살아간다. 하느님의 정신 안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그 힘을 소모해야 한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갈라 4,5]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고 고귀하게 된 이러한 힘은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 중에 하느님을 알고 봉사하며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우리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 지체로 모으시기 위해 파견하셨을 때 우리를 드높여주셨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 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은 올곧은 사람들에 의해 고귀하게 쓰이든지, 하느님을 위해 쓰이지 않고 이기주의의 노예요 돈의 노예가 되기 위해,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육의 | 노예가 되기 위해 쓰인다. 하느님에 대한 인식 안에서 그리고 그분 뜻에 속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라지고 마는 헛된 것에 쓰인다. 영혼은 영적인 것이고 불멸의 것인데도 말이다.

SP, 1954년 1월호, 3쪽

노동에 대해 가르칠 때 젊은이가 면학, 좋은 생각, 능력계발, 생산하는 일, 참된 인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익숙해지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참된 수도자의 삶, 참된 사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시신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볼 때 항상 반성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소질, 탈렌트-힘을 잘 사용했는가.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요한 9,4]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바쳐야 하는가? 그리고 내일이면 무덤으로 옮겨질 나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노동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은 삶과 영원을 위해 젊은이의 운명, 최고의 사랑, 최고의 선을 개척하고 드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규칙적인 삶을 살고, 가족의 친근함이나 사회 안에서 감각과 우연적 상황을 지배할 때 그는 존경받고 칭찬받을 것이다.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인류와 교회에 좋은 기여를 할 것이다.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인간이여, 힘, 힘을 내자vir, vis, forza."

이와 반대로[8] 게을러서 비참하게 시험에 '낙제' 하는 상황은 자

8. '그 대신' 은 '반대로, 역으로' 라는 말 대신 사용한 것이다.

신의 의무에 대해 열등감을 갖게 되고 비겁함을 느끼게 된다. 졸업시험에서 낙제하는 최악의 위기와 더불어 사회 안에서 경시되고 거부되고 만다!

성인은 모두 노동자다. 살아온 세월에 비해 매우 많은 활동을 했고 얼마나 많은 방향을 제시했는지 모른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베르나르도,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 주세페 코톨렌고, 성 요한 보스코, 성 알폰소 로드리게스, 성 요한 드 라 살, 십자가의 성 요한, 성 대 알베르토, 성 가밀로 데 렐리스,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 도미니코, 성 알폰소, 모든 성인이 그렇다! 내적 노동에 첫 자리를 주었고, 그런 다음 이 내적 노동은 모든 사람 안에 큰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놀랍고 풍요로우며 인도주의적 결실을 가져왔다.

5. 성 바오로 사도

성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2테살 3,10-12) "우리 손으로 애써 일합니다."(1코린 4,12) 성 바오로는 위대한 노동자였다. 성 바오로는 자기 동료에 대해 설교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사도 20,34]라고 여러 번 강조했고, 젊어서부터 익힌 기술로 밤에도 일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2코린 6,5) 성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게 본받고 살아간 행복한 분이다. 노동에 있어서도 그의 삶은 그리스도와 일치한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필리 1,21]

* * *

바오로인(사제 또는 평수사)의 노동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다. 노동자-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일에도 종사하셨다. 성 바오로는 군용천막을 제작했다. 그 대신 바오로인은 진리를 전하고, 교회가 사명으로 인정한 설교의 직무를 통해 직접 사도직을 수행한다. 사실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칭찬한다. "지도자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원로들은 이중으로 존대를 받아 마땅합니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에 애쓰는 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1티모 5,17)

노동은 형제들을 위해 구원의 효력을 지니지만, 노동자 자신도 구원한다. 감옥에서 어떤 죄수는 일하면서 구원을 받고, 다른 죄수는 태만에 빠져 다른 악행을 배우고 익힌다.

노동은 우리가 순수하고 무한하고 영원한 행위이신 하느님 가까이 가게 한다. 인간이 결심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만큼[9], 그만큼 하느님을 더 닮는다. 그리고 잠재력을 올바르게 행동으로

9. 힘에서 행동으로 옮아간다는 것(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은 가능성(잠재력의 실재)에서 노동 또는 실제 존재로 옮아간다는 것과 같다.

옮기는 만큼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느님 뜻에 더 잘 부합할 것이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이다. "네 정신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루카 10,27 참조] 여기서의 힘은 육체적인 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노동은 첫째요 기본적인 계명에 속한다.

신앙을 위한 순교가 있고 사랑을 위한 순교도 있다. 사도직의 노동은 고해사제의 노동처럼 사랑의 실천이다. "하느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순교자들이다."(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 소모한 동정의 힘은 동정의 화관, 순교의 화관을 받을 만하고, 교회학자의 영예를 누릴 만하다. 우리 육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 성 바오로의 깨달음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로마 12,1)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10]

6. 근 면

한 세기 전부터 교황들은 이 분야, 곧 노동의 참된 개념,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제시하고 가르쳤다. 한편으로는 노동자가 점차 자신의 인격을 상실해가는 것을 비판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급주의적 물질적 이론이라고 치부했다.[11] 그러나 교황들은 무엇보다

10. CEI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예배입니다."
11. 앞서 이루어진 두 개의 출판본에는 '계급주의적classista' 이라는 단어가 '고전적classica' 으로 되어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때문에 토니올로[12]씨는 그리스도교-사회학 강좌를 마련했다. 이어서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의 원리,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사십 주년*Quadragesimo anno*」의 원리와 교황 비오 12세의 담화가 나왔다. '가톨릭 사회 요약 또는 사회 법전의 구조' 는 사회 회칙의 사상을 요약해준다.

게으른 성직자와 수도자는 현대 사회에서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노동에 관한 것이다. 모두가 노동의 윤리적 경제적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있다.

여기서 수도자들이 열심히 노동하며 살아가기를 강조한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자는 노동을 거룩한 지향으로 하느님 앞에서 순명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포기로 연관짓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노동을 완수한다면 모든 덕을 끊임없이 실행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나자렛 성가정의 모범을 따라 관상생활을 활동생활에 일치시키는 감미롭고 효과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13]

부지런함은 성소의 표지요, 태만은 성소가 없다는 표지다. 비록 똑똑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은 늘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부지런한 젊은이는 시험 때만 공부하지 않고, 착복식이나 다음 단계가 다가올 때만 삶의 변화를 꾀하지 않으며, 누가 보거나 제재를 가할 때

12. 주세페 토니올로Giuseppe Toniolo(1845년 트레비소 출생 – 1918년 피사에서 사망)는 그리스도교 사회사상과 경제학의 저명한 스승으로서, 특히 「노동」(그의 「전집」, 27-54)에 관한 연구논문 때문에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중요했다.
13. 교황 비오 12세의 교황령 「그리스도의 신부*Sponsa Christi*」 참조.

만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느님을 위해, 영원을 위해, 사도직을 위해 자신의 젊은 힘을 봉헌한다.

7. 게으름

어떤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일곱 마귀가 필요하지만, 반면에 게으른 사람은 마귀 하나로 충분하다."[14]

지나친 레크리에이션과 스포츠, 어떠한 형태로든 즐길거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방해받지 않고, 중압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고된 일을 회피하고, 영적 일이나 공부, 사도직, 기도의 의무에 대해 권태, 무위도식, 게으름, 미지근함, 냉정함,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들게 한다. 하느님의 일에 대한 싫증은 죄악이요,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판하며 감각을 충족시키는 것을 즐김은 다른 죄의 뿌리다.

신학은 게으름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열성적이고 부지런한 사람을 증오하고 반대하며, 의무에 대해 가르치는 장상을 거부하고, 신심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며, 삶이나 직무, 덕의 실천에 실패할 때 좌절하고, 힘이 필요한 모든 일 앞에서 겁을 내고, 육체를 정신 아래 두게 하는 진정한 수양과 질서의식이 부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는 식의 비이성적인 비판기준으로 판단하고, 착수한 일, 예를 들면 면학, 성소, 기획, 결심, 수도서원, 사제생활의 중요한 의무를 쉽게 저버

14. 이 문장은 「성 바오로」지에는 없는데 「바오로가족에게」 재판에는 첨가되었다.

린다.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

"종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에게 일을 시켜라. 게으름은 온갖 나쁜 짓을 가르치기 때문이다."(집회 33,28-29)

"헛것을 뒤쫓는 자는 지각이 없다."(잠언 12,11)[15]

"헛것을 좇는 자는 가난으로 배부른다."(잠언 28,19)[16]

8. 자 선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수도회 안에서 노동의 역할과 자선의 역할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자선은 보완의 역할을 한다. 제일 먼저 노동의 자연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넘치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어라."(루카 11, 41 참조) 하는 말은 의무요, "부족한 것은 부자들에게 청하라"[17]는 말은 이에 부합하는 말이다. 유쾌한 소풍을 위해 기부를 청할 수는 없지만,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수는 있을 것이다. 성경에는 여분의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는 말이 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마태 25,41] 그리고 여분의 것을 준 사람에 대

15. "Qui… sectatur otium stultissimus est."
16. "Qui… sectatur otium replebitur egestate."
17. 원문에 나오는 두 문장: "Quod superest date pauperibus"와 "quod deest petite a divitibus". '넘치는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해석은 라틴어역 성경의 '여분의 것quod superest'에서 온 것이다. 현대 주석은 "(그릇) 속에 있는 것", 또는 "너희가 가진 것"이나 그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선호한다.

한 구원의 말씀도 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마태 25,34-35]

청하는 것은 덕행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기 위해 노력한 자캐오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루카 19,5] 그의 행동은 겸손이고 신뢰였으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하느님의 영광과 이웃의 선을 위한 일을 이루려는 열성이었다.

공동체는 자선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오늘날 이렇게 크고도 필요한 은총의 수단을 방문, 서신왕래, 출판물을 통해 관리하지 않는 | 수도 단체는 없다. 그리고 자선은 이를 받는 사람보다 베푸는 사람이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자주 상을 받고 하늘에서도 분명히 상을 받는다.

SP, 1954년 1월호, 5쪽

협력자들은 성바오로수도회를 동반하고 있다. 협력자들에게 활동을, (예를 들면 저술 또는, 성소자를 보내주도록) 청하고, 그들의 기도서에 있는 기도문을 바치게 하고, 돈이나 물품의 기부를 요청한다. 협력자들은 우리 기도로 충분히 보답을 받고, 특히 매년 그들을 위해 거행하는 2400대 미사로 보답을 받는다.

특히 오늘날 무위도식하는 수도자나 그릇된 재무관리자가 어떻게 부드러운 손을 내밀면서 고생한 거친 손에서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해 기부를 요청할 수 있겠는가? 천상 예수 그리스도는 못이 관통했을 뿐 아니라 목수의 톱질, 망치질, 대패질로 거칠어진 손을 내밀어 성부께 영광을 드리고 탄원의 기도를 드리셨다.

9. 수도적 청빈

탁발 수도회, 관상 수도회, 활동 수도회가 있고, 관상과 활동을 같이 하는 수도회가 있다. 이 모든 수도회가 교회의 승인을 받았다면 칭송할 만한 것이다.

수도생활은 아무런 노고 없이 살기를 바라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 사도직에서 자신이 싸워야 하는 역할을 피하기 위해 도피하고 수도원의 삶을 감수하는 사람의 열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수도생활을 가장 잘 이해하고 체득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성 요셉이 살아가신 삶이다.

참 수도생활은 열심한 삶, 곧 성화작업, 기도, 열성, 교황이 권고하는 보편적 활동에 참여할 필요성을 수반한다. 이는 힘든 삶이요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구원을 가져오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천하고 가르치신 것처럼 청빈의 권고와 개념은 모든 계명처럼 소극적인 요소와 적극적인 요소, '부정하고 견디다abnega et sustine'[18]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곧 사적 관리와 자율적 사용이 금지되고, 활동의 결실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도 금한다. 그리고 장엄서원을 한 수도자는 재물을 소유할 수 없다.[19] 한편, 수도회의 정신과 회헌에 따라 노동과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수도회의 재산과 "복음과 교회의 가르침을 보급함으로써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 사용과 완

18. 문자대로는 "자신을 부정하고 견디다." 스토아 철학가인 에피테토가 말한 '절제와 인내abstine et sustine'라는 표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하느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23항 참조)

19. 교회법적 의미에서 소유의 '자격 없음inabilitato'.

벽함에 따라 훨씬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줄"(회헌 237조)[20] 기술적인 수단을 관리해야 할 의무 또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서적, 글을 쓰는 펜, 인쇄기, 기구 등에도 적용된다. "사도직을 위한 기술적 노동은 거룩하게 변화된다."(회헌 239조) 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자본과 도구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21]

탁발과 자선은 고되게 일하는 의무를 다한 다음 행해야 하고 고유한 직무, 노고, 제대의 헌금으로 살아가기를 꾀해야 한다. 탁발과 자선은 새로운 공공 이익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 대중, 곧 이웃은 이익을 얻기에 그와 같은 활동이 증가하도록 기여해야 할 의무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로써 교회건립, 성소자 공동체 건립, 자선활동, 사도직 수단을 이루게 될 것이다.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동은 '기도하고 일하라'는 좌우명에 따라 그 시초부터 수도생활의 근본규범이요 법이다.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이 수도생활 규율에 대한 규범은 대부분 노동을 명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확립되었다."[22]

예수 그리스도는 30세까지 '동네 목수'로 일하셨다. 그런 다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창설하고, 당신 사명을 계승할 제자들을 모으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기부를 받으셨다. 심사숙고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남아 있는 기적의 빵 조각을 모으라 하시고, 사도들이 안식일에도 추수하는 이들이 떨어뜨린 밀 이삭을 줍게 하셨다.

그릇된 사상에 빠지지 않은 백성은 그 필요성을 이해할 것이

20. 이 회헌 조항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49년판 성바오로수도회의 회헌을 참조한 것이다.
21. 'et pretio æstimabilis'.
22. 교황령 「그리스도의 신부」.

고, 올바른 자세와 지혜에 따라 슬기롭게 관리하고, 백성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관대해질 것이다. 사회에 가장 좋은 법을 세우고 사회적 보장이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위한 영역은 언제나 아주 방대하다는 것을 교황 레오 13세, 비오 11세,[23] 비오 12세는 강조했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것"[마르 14,7]이고, 시대가 요청하는 새로운 활동을 위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새로운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사도들을 돈 없이, 여벌 옷도 없이, 비상식량도 없이 파견하셨으며, 사명을 수행하고 돌아온 사도들은 그들에게 질문하신 스승께 부족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게으른 이들에게 수도생활은 어떤 면에서 크나큰 불행이다. 그들은 노동에 대한 초자연적 이해력이 없으며 식사시간에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힘든 노동을 회피하려 한다. (그런데 노동에서 | 면제되기 위한 구실을 찾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세상에서 살았다면 필요의 법칙에 따라 일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드려야 할 결산은 덜 심각했을 것이고, 공동체 안에서 물의를 덜 일으켰을 것이며, 더 덕스럽게 살았을 것이다.

SP, 1954년 1월호, 6쪽

10. 바오로인의 기본 재산[24]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아버지의 유산은 그리스도교적 교육과

23. 다른 출판본에는 교황 비오 10세의 이름이 게재되었지만 오류다. 여기에 표현된 개념은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사십 주년」에서 다룬 것이다.
24. 앞선 출판본에서는 다소 모호한 복수형으로 된 "Le doti dei Paolini"라는 제목을 발견하게 되지만, 원칙적으로 친족 유산이라는 의미에서 'dote'에 관해 다루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복수형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기능직, 전문직 또는 손노동이다. 사람은 이 두 가지 수단을 통해 이 지상에서 잘 살고 영원에서 행복을 누린다.

성바오로수도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준다.

1) 공부와 사제서품: "제대에 봉사하는 사람은 제대의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25]

2) 잘 활용할 수 있는 편집능력을 제공한다.

3) 서점원, 인쇄기술, 편집자와 같은 고상한 전문직을 제공한다. 이 모든 일은 개개인의 삶과 성덕의 수단이다.

4) 무엇보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인간적이고 영적인 일반교육, 그리스도인 교육, 수도자 교육을 베푼다.

그러므로 수도회는 모든 면, 곧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완전한 양성을 하고 있다. 모든 바오로인은 그 소속 공동체와 나라를 떠나 어떤 소임지나 선교지에 머문다 해도 충분하고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 모든 '기본재산', 곧 주거, 기기, 필기도구, 라디오, 성소자, 사도직의 놀라운 성공은 겸손과 지혜, 열성과 '현명하고' 올바른 관리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어떤 수도회가 이와 같은 기본재산을 제공하는가?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이 모든 혜택[26]에 대해 누군가가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루카 15,11 이하)고 한 것처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함

25. "qui altari deservit de altari vivere debet,"는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라는 1코린 9,13의 의미를 인용한 것이다.

26. 여기서 말하는 '유산dotì'은 '능력', '적절한 전문성'의 뜻도 포함된다.

으로써 지나치게 일탈과 유혹의 문을 열어놓는 것은 아닌지 숙고했다.

11. 노동을 가르칠 것

빵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젊은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벌이를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두 배로 좋고, 두 배로 가치 있는 일이다.

교회에는 언제나 인간이 되신 하느님 아드님을 본받아 양성된 합당한 자녀들이 있다. 이를테면 성 바실리오, 성 베네딕토, 성 요한 보스코, 성 요한 드 라 살.

여러 가지 교육이 있다. 때로는 공부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일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공부와 일을 조금씩 할 때도 있다.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놀이, 스포츠, 체조를 하기도 한다.

비록 목적에 따라 어떤 것에 치중하더라도 교육은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참된 삶은 활동적이고 창의적이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참된 삶은 현명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어 준다. 힘써 수고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 부를 쌓는 것이다.

참된 삶은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요, 검소하나 품위 있고 존경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고,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이웃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을 주어야 한다!' 신학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실업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보다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일거리

를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27]

12. 균형 잡힌 노동

"모든 일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1코린 14,40) "질서를 존중하면 질서가 그대를 존중할 것이다."(성 아우구스티노)[28]

질서정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란스러운 사람도 있다. 명확하고 주도적이며 현실에 뿌리내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힘을 모아 거의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본다."[29] 이렇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이상적으로 작용한다. 첫째는 항상 해야 할 의무고, 그 다음은 자유로운 선택이나 들은 권고를 따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방법을 강구하며, 많은 것을 바라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며, 온갖 상황에 따라 방향이 바뀌고, 시작만 하고 마치지 못한 채 놓아버리고, 진정한 이유 없이 관계를 많이 맺고, 서신왕래를 거듭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매우 바쁜 사람'[30]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으로 질서정연한 사람은 외적인 일에도 훨씬 쉽게 질서 있게 처신한다. 대피정으로 준비한 분명하고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화된

27. 원문에는: "quibus consultius est laborem procurare aut subministrare, quam elemosynam dare."
28. 원문에는: "Serva ordinem et ordo servabit te."
29. 앞에서 인용한 "Omnia in unum videt"과 비슷하다. "모든 것을 하나로 향하게 한다."
30. 원문에는: "in nihilo agendo occupatissimi."

내적 삶이 첫 걸음이다.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 곧 양심성찰, 고해성사, 영적 독서, 영적 투쟁, 기도… 이 모든 것은 내적 삶을 전개하고 실현하기 위해 방향이 설정되어 있다.

학교와 면학은 목표를 위한 확고한 연중계획과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해야 할 일을 분담해 놓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하고 항상 기초-개념을 강조하면서 매주 평가한다. SP, 1954년 1월호, 7쪽

무질서한 '홍보'[31]는 실패한다. 질서 잡힌 홍보는 쉽고 침투력 있고, 힘을 집중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편집: 책 선정, 합리적인 자료수집, 원고 검토지 작성 및 출간 검토와 교정의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매체를 읽을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초점을 맞추어 출간해야 한다. 작가인 성 바오로를 따르면서, 모든 것은 오로지 그리고 언제나 가톨릭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고, 감실의 빛으로 행해야 한다.

기술: 대상과 주변상황을 위해 적합한 작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 매체를 선정하며, 작업의 모든 부분을 분명한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정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인원과 특징과 기계 및 보급수단을 선별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짧은 시간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적절한 수입을 얻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다. 완전하고 질서 있고 유능한 사도.

13. 헌신과 항구함

헌신은 강력하거나 덜 강력한 모터에 비유할 수 있다. 관대한

31. 바오로인의 사도직에서는 '보급', 출판물 촉진을 의미한다.

사람은 지성, 의지, 마음, 육체적 힘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사명을 완수한다. 지성은 작업을 이해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을 연구하기 위해, 의지는 모든 수단, 육체적 도덕적 힘을 사용하면서, 마음은 자기 사도직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고 보람있게 사도직을 한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 힘겹게 직무를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 직무를 사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열성을 갖고 헌신적으로 행한다.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관대하게 헌신하고 인내를 가지고 임할 때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이러한 요소가 부족하면 좋은 재능을 지녔다 해도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성소자, 학교, 사도직, 설교, 경영관리, 편집에도 적용된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타오르는 등불은 기름을 모두 태우며 환히 빛난다. 다섯 탈렌트가 되었든, 두 탈렌트가 되었든 주님을 위해 모든 재능을 발휘할 때 다음의 성경말씀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마태 25,21.23]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22]

일하는 사람은 (때때로) 실수하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실수하며 살아간다.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건전한 낙관주의'를 지녀야 한다. 역사는 삶의 스승이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경험은 우리 미래를 위한 배움터다. 한 번의 싸움에서 패배했다면,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다른 싸움에서 승리할 시간이 있다.

좋은 의지를 지녔을 때에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

룬다."[로마 8,28 참조]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이다.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할 것이고, 다시 더 잘 시작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관해 「잘못에서 발전을 자아내는 예술」[32]이라는 좋은 책이 있다. 가장 무서운 유혹은 절망이다. 그러나 더 공통적으로 만연된 유혹은 절반의 절망이다. 신앙은 첫 번째 덕이고, 두 번째 덕은 희망이다.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자주 경의를 표하며, 주님의 어지심에 대해 믿음을 드리자. 체사레 칸투Cesare Cantù에게 어떻게 그토록 많은 글을, 그렇게 잘 쓸 수 있었느냐고 경탄한 어느 친구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내하면서 썼다네."

14. 시간 활용

두 사람이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해에 죽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망쳐놓았고, 다른 사람은 성인이 되었으며, 자기 뒤에 오래도록 선의 흔적을 남겼다.

"시간은 거침없이 빨리 지나간다."(비르질리오Virgilio)[33]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34]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35] "지나간 너울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지나간 시간

32. 정확하게 말하면 주세페 티쏘Giuseppe Tissot의 「자기 허물을 활용하는 기술*L'arte di utilizzare le proprie colpe*」을 말한다. 앞에 나온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각주 118을 보라.
33. "Fugit irreparabile tempus."('Georgiche', 1. III, 284)
34. 원문에는: "venit nox quando nemo potest operari."(요한 9,4)
35. 원문에는: "Tempus redimentes."(콜로 4,5)

은 되돌릴 수 없다."(오비디오Ovidio)[36]

시간은 하느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인간은 도금한 상자를 선행인 보석으로 채우거나 죄라는 악행으로 채울 수 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익한 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성급하게 일하면서 잃을 수 있다. 그 대신 선행을 하면서, 먼저 자신의 의무를 행하면서, 항상 유익한 무엇인가를 하면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갈라 6,9)

시간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 때 학과목을 잘 배우면 기초를 잘 다질 것이고, 이어서 그 기초 위에 계획을 세워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될 것이다. 더 올바른 지향과 큰 사랑으로 일함으로써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금을 모으는 것과 같다. 성 바오로 사도가 설명했듯이 | 노동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짧은 생애에서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지혜 4,13) 학생도 학생 나름이듯이, 성체도 영하기 나름이다. 교회와 함께 기도하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의 행동을 당신 뜻에 따라 이끌어주시어, 저희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풍성한 공로를 쌓게 하소서."[37]

SP, 1954년 1월호, 8쪽

어떤 기능과 일부 과목에서 '전문화될 것.' 평수사들은 이미

36. 원문에는: "Nec quæ præteriit iterum revertitur unda; nec quæ præteriit hora redire potest."(Ars amat. 3,63)

37. 원문에는: "Omnipotens sempiterne Deus, dirige actus nostros in beneplacito tuo: ut in nomine dilecti Filii tui mereamur bonis operibus abundare."(미사경본)

사도직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다. 사제들은 사회학, 신학, 교회법, 문학, 미술, 성음악 등 특정분야에서 상담할 수 있다. 그들을 지도하던 이의 허락하에 특별한 자질과 적성을 키웠다. 시간이 있을 때 읽고 듣고 묵상했고 연습했고 실습했다. 성직자, 수도자, 바오로인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일분일초를 아낄 것.'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생각을 분명하게 해주는 표현이다.

"때를 잃는다는 것은 현자일수록 더욱 꺼리기 때문이다."(단테, 「신곡-연옥편」, 3장, 78) 하루에 5분, 10분이 5배, 10배가 되면 30분과 몇 시간이 된다. 그리고 1년, 10년, 20년을 곱하면 얼마가 되나? 더 많은 세월이 흐르면?

무익한 대화와 시시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매일 10분 동안 수덕, 사회학, 역사, 문학 등의 서적을 읽는 신학생은 동료들보다 지식을 더 쌓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얻는다.

사도직의 어떤 부서에서 진정한 자격을 갖추게 된 평수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선을 다할 것.' 영적 지도자와 친구를 잘 선별할 것. 학교교재와 읽을 책을 잘 선택할 것.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것. 그것은 마치 가장 우수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고, 믿을 만한 은행과 거래를 하며, 가장 완전한 기술과 많은 경험을 몸에 익히고, 가장 좋은 기계를 도입하고, 가장 유능한 전문가를 따르며, 가장 유익한 일을 선택하고, 가장 뛰어난 저술가에게 의뢰하고, 훌륭한 설교가를 보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것이다!

15. 최선을 다할 것

우리 사도직은 한편으로는 산업에 가까운 것 같고(예를 들면 인쇄소), 다른 한편으로는 상업에 가까운 것 같다(서원). 그 대신 모든 것은 교회학자의 손에 들려 있는 펜과 같이 설교를 위한 수단이다. 외적으로도 일반상인이나 산업 기술자 같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사도직을 시작할 때 바치는 봉헌기도, 저술가와 기술자와 보급자 사이의 일치감, 사도직과 결부된 대사大赦를 얻기 위해 필요한 묵주기도와 화살기도를 계속 바치는 것 등은 사람들에게 참된 사도직일 뿐 아니라 가장 현대적이고 신속한 수단을 통한 사도직,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실행하는 사도직, 우리를 위해 가장 풍요로운 공로를 가져다주는 사도직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이유 때문에도 이러한 영성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흔히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받는 위로와 호응이 우리 사도직에는 매우 부족하다.

"사도직은 사목적 특징을 띠어야 한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상업적이거나 산업적인 목적만을 위한 출판물은 금한다. 그 대신 인간계발에 유익한 출판물을 권장한다."(회헌 227조)[38]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직을 실행하는 우리는 모든 이에게, 특히 작은이들, 믿지 않는 이들, 보잘것없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에게 빚진 자들이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지혜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수도자들은 기억해야 한다."(회헌 222조)

38. 여기서 언급하는 회헌은 1949년판 성바오로수도회 회헌이다.

16. 초자연성

진정한 바오로인은 사도직, 곧 노동을 초자연적 정신으로 수행해야 한다.

가) 순명: 내적 일이든, 외적 일이든 순명에 의해 행해야 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장상을 통해 명령하신 바를 책임지신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루카 10,16] 내적 일은 고해사제나 영적 지도신부에 의해 지도를 받거나 권고를 받는 것이다. 외적 일은 해당 장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수도생활의 큰 이점이 있다. 수도자는 자기 선택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의 공로를 쌓는데, 하나는 좋은 업적을 통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순명을 통한 공로다. 그대신 만일 수도자가 고집이나 기만으로 자기 취향에 맞는 직무나 공동체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비록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해도 실제로는 "빠르게 나아가겠지만 정도正道에서 벗어나"[39] 있을 것이다.

나) 은총의 상태: 마른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대죄 중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가지들처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을 때 | 살게 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

SP, 1954년 1월호, 9쪽

39. "magni passus sed extra viam"은 성 아우구스티노가 도나티즘 추종자들에게 한 말이다.

다) 올바른 지향: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40]

우리의 일상과 여러 가지 노고에는 다음과 같은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

–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우리 전 존재를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내어놓으면서 흠숭의 예를 드린다는 지향. 이러한 정신으로 일하는 것은 흠숭이요, 이러한 봉사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는 규정을 완수한다.

–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길 생명을 전하는 스피커처럼 사도직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고자 하는 지향.

– 제대 위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염원과 열망을 품는다는 지향.

– 노동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우리 노동이 예수님의 노동처럼 모든 산 이와 모든 연옥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지향.

그러므로 경우에 맞게 편집, 기술 사도직, 보급 등을 위한 기도를 바쳐야 한다.

17. 좋은 편집

면학은 사도적 직무를 향해 방향을 잡아간다. 이미 중학교 때,

40. 원문에는: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e voluntatis." 'G.D.P.H.'라는 이니셜에 함축된 좌우명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편지를 쓸 때 자주 표기했고, 일부 작품에서는 저자의 이름 대신 사용했다.

아직 고등학교와 신학과정을 밟기 훨씬 이전에 방향을 잡아야 하며, 사목생활 중에도 그와 같은 방향제시가 분명하고 확고해야 한다. 실습, 소논문, 소책자 등을 써야 한다. 이것은 바오로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제적 열의를 시험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는 자기 직무에 크게 만족할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목표로 삼을 때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고 다가가고 비추기 위한 길과 수단을 찾는다. 최고의 사랑이란 곧 진리에 대한 사랑이다. 편집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하다. 그러나 어린이를 위한 교리서와 호교론적 강연 같은 것은 그 가운데 다양함이 있어 어려운 일이다.

18. 기술적 노동

모든 학생이 편집뿐 아니라 기술, 보급, 경영관리를 배워야 한다. 평수사들은 잘 배워 부서 책임자로 양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작업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 원고가 인쇄소에 들어와 보급되고 수익이 창출 될 때까지의 개별작업뿐 아니라 사도직의 과정과 조직 전체를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공동체가 영화, 라디오의 기술과 보급에 있어서 아는 바가 없고 실행하는 바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은 충분히 양성하기 위해 적어도 인원 교체로써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회헌의 몇 가지 조항을 기억해야 한다. “성바오로수도회의 특수목적에 따라 사도직은 적합한 기술수단을 요구하며, 이 수단은 복음과 교회 가르침을 전파할 때 거룩한 도구가 된다. 사

도직 수단의 사용과 완덕에 따라 훨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회헌 237조) "기계와 사도직의 다른 수단은 이러한 분야에서 기술의 진보가 제공하는 가장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회헌 238조) "사도직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기술노동을 완수함에 있어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확고하게 지녀야 하고, 하느님 말씀이 영혼의 계발을 위해 잘 꾸민 겉표지와 합당한 표현으로 드러나야 한다."(회헌 239조)[41]

19. 보 급

하느님 말씀이 곳곳에 도달하기 위해, 앞서 이룬 모든 작업(역주: 편집과 기술 작업)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 수도회가 안정되기 위해 보급은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보급을 위해서는 시작부터 사회의 필요성에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바람에 응답하는 출판을 선택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먼저 종교적인 것 그리고 인류발전을 위한 것, 독자, 청중, 관객의 모든 분야와 범주를 고려해야 한다.

20. 휴식의 본질

하느님의 질서를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휴식은 음식처럼 인간에게 필수적인 동시에,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라는 지향을 갖게 해준다.

레크리에이션은 바쁜 중에도 육체와 정신을 드높여주고 쉬게

41. 성바오로수도회 회헌(1949년판).

한다. 밤은 하루를 위한 휴식을, 주일은 한 주간의 휴식을, 여름 휴가는 1년 간의 휴식을 선사한다.

휴식은 그동안의 노고를 위한 참된 '쉼'이라야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라야 한다. 그러므로 지치게 해서는 안 되고, 탕진해서도 안 된다. 그 대신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성을 더 넓게 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잔잔하고 편안하며 온화한 마음을 지니게 해야 한다. 가장 존경받는 교육자들의 좋은 규범을 따라야 한다.

SP, 1954년 1월호, 10쪽

밤을 낮으로 삼고 낮을 밤으로 삼거나, 쉬는 날을 몹시 지치게 하는 주말 스포츠로 힘겹게 보냄으로써 본질을 변질시키지 말고 휴식은 휴식답게 쉬어야 한다.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양심을 어지럽히며, 정신을 혼란케 하는 논쟁, 청취, 경기, 대화, 독서, 영화관람, 격정을 불러일으켜 신경과 감정과 상상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휴식이나 레크리에이션 후에 면학, 신심, 덕행, 사도직…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어릴 때는 더 민감한 문제가 된다. 휴가는 자주 악마의 수확기라고 성 요한 보스코는 말했다. 한편 레크리에이션은 활발해야 하고, 젊은이의 활기를 띠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유쾌한 사회관계 속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름다운 정원, 다양한 놀이, 재미있는 노래, 교육적인 연극, 즐거운 산책을 하면서 재미에 유익함도 겸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일찍 잠자리에 들고, 빨리 잠자리에서 나오시오." 특히 지도하는 직분을 맡은 이에게 필요한 말이다. 놀이와 스포츠는 직업이 되어서도, 거기에 열광해서도 안 된다. 항상 이성과 정신이 평

온한 가운데 지도해야 한다.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1코린 7,30)

주일이 더 이상 주님의 날, 기도의 날, 종교교육의 날, 휴식의 날이 아니라, 절제 없이 즐기는 날, 위험한 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월요일에는 피곤과 무기력에 짓눌리고, 면학과 해야 할 의무에 생각을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것을 힘겨워하게 되고, 금요일에는 정신과 생각이 이미 스포츠를 향해 방향지어져 있다. 이와 같은 젊은이를 언제, 누가 양성할 수 있겠는가?

21. 스승 예수님과 마에스트로들

하느님의 아드님은 하느님 위격의 빛이시다. 곧 '빛에서 나신 빛,[42] 성부의 영광을 비추는 광채시다. 그분은 인간이 되시면서 "인간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느님 위격의 빛이 되셨고, 말씀과 업적에 있어 그들을 위한 완전한 빛이시다. 강생, 탄생, 사생활과 공생활, 수난, 죽음, 부활, 승천, 교회설립, 성사,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는 영광은 언제나 빛의 계시요, 당신의 완벽함과 그분 안에 사는 영혼의 가장 내밀한 경이로움을 계시하는 은총과 지혜의 업적이다. 이와 같이 당신의 행적은 당신 말씀처럼 하늘로 인도하는 길을 드러낸다."

이제 바오로인은 빛을 받아 대중에게 빛의 반사경이 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는 아주 많은 것이 필요하기에 빛을 받기 위해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때때

42. 'Lumen de Lumine' : 니케아-콘스탄티노폴 '신경' 에서 발췌.

로"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5]

의식을 통해 빛을 받아들여야 하고, 의식을 통해 우리 안에 빛이 관통하도록 놓아두어야 하고, 의식을 통해 그 빛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반사경' 이지만 인간 반사경이라야 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태 5,14]

22. 성소자

우리는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43] 어떤 사람은 신학교에 보내듯이 [젊은이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에 보내듯이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방이나 가정에서 받는 교육보다 좀 더 많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어떤 사람은 식구를 [줄이기] 위해 또는 집에서 달갑지 않은 자식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에 보내듯이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그리고 항상 '바오로적 수도자' 가 되도록 성소자를 잘 교육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써만 우리는 부모, 친지, 지망생을 잘 이끌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만족스럽고, 뼛속까지 바오로인이 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다.[44]

한편 훌륭한 스승은 기도하면서 그리고 모든 면에서 관찰하면서 부르심받은 이들과 부르심받지 않은 이들을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식별해낼 수 있다.

음악선생은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는 동작을 보고 자기 학생의 재능을 식별한다. 미술선생은 화판 다루는 것을 보고 식별한다.

43. 다시 말해 수도회의 특수 목적과 고유한 모습을 잘 제시하지 못한 잘못.
44. 이 점에 관해서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I, 84-126; 145-147; 215-225… 참조.

이와 같이 부서의 마에스트로[45]는 자신의 젊은이들이 수업, 사도직, 교리수업, 성당에서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면서 어떤 경향이 있는지, 온순한지, 지성, 사랑… 등이 어떤 상태인지, 모든 방면에서, 수도회 안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열정을 갖는지'를 식별한다.

젊은이에 대한 식별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만일 사도직에 열정적이라면 바오로인의 특별한 성소를 위해 분발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의 이상은 활기차고 열정적일 것이다. 레크리에이션보다 사도직을 더 좋아하고, 사도직을 제때에 완수하기 위해 예외도 자원自願하고, 수도회의 발전을 기뻐하고, 수도회의 모든 기쁘고 고통스러운 사건에 깊이 공감하며 동참하는 단계에 도달할 것이다.

SP, 1954년 9월호, 11쪽

23. 노동을 위해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첫 사도들처럼 관대한 이들을 모으는 하느님의 방법이 있고, 바로 이와 같이 관대한 이들이 응답하는 방법도 있다. 또 다른 공통된 방법은 어떤 경우든 다음과 같은 말에 있다. 그대 여정을 비추는 별처럼, 그대 사명을 항상 염두에 두어라. 이는 삶의 이상, 그대의 존재 이유, 사심판에서 셈하게 될 대상이다. 사명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일하라. 성공하도록 그대의 온 힘을 집중하라. 헛군데에 지성, 시간, 돈, 재능, 마음… 을 낭

45. 부서의 마에스트로는 특정한 양성자 그룹의 양성장을 일컫는 표현이었다. 곧 사춘기 소년소녀들, 수련자들, 유기 서원자 그룹 등의 책임자들을 가리킨다.

비하지 말며 장애, 희생, 오해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어느 날 그대가 기도, 숙고, 충고 후에 굳힌 결정을 상기하면, 그대 자신을 발견할 것이고, 인내할 용기와 힘을 되찾게 될 것이다.

새로 건조한 배가 조선소를 떠나 천천히, 위엄 있게 바다로 미끄러져 들어가 먼 바다로 항해를 시작할 때 당국과 건설업자, 백성의 축제가 된다. 한 신학생이, 한 평수사가 태풍에 맞서기 위해 잘 준비하고 잘 단련되어 삶의 바다로 출항할 때 젊은이의 마음, 교육자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비록 확연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아주 깊고 강하게 일어남을 느끼게 된다. 곧 가장 즐겁고 확실한 징조를 예감하게 된다. 그리고 그가 잔잔한 해면과 태풍, 암초 사이를 평온하고 강하게 헤쳐나갈 때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감탄하며, 그는 분명 또 다른 위대하고 영원한 직무를 받기 위해 하늘의 문에 다가가게 된다.

신뢰와 경외심을 가져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선택이 굳건해지도록 애쓰십시오."(2베드 1,10)

24. 신 앙

신앙은 모든 성화, 모든 사도직, 모든 안정의 뿌리다.

성소는 활기찬 신앙에서 나오며, 그 성소는 한층 더 많은 빛을 받는다. 이를 느끼고 익힌다면 성소가 활력을 보존하고 적극성을 띨 것이다. 사도직은 그리스도와 진리, 그분이 가르쳐주신 신앙을 구체화시키는 윤리와 경신례를 비추어주는 빛이다.

사도직의 결실은 하느님께 달려 있다. 지식은 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므로, 사람들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동의

해야 하기에 사도는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5]는 말씀에 힘입어 일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원천이요, 거룩하고 본보기가 되는 책은 복음서다. 그러므로 모든 분원에는 감실과 복음서라는 두 개의 중심축이 있어야 한다. 위에는 성체이신 예수님을, 아래에는 복음서를 모셔둔다. 이를 위해 장엄축복을 해야 하며, 사도직 터에 현시해 두어야 한다.

우리의 어지신 어머니,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축복과 자비가 넘치는 눈길 아래에서 우리는 일한다.

부록
노동의 여왕이신 마리아

로사리오 에스포시토 신부가 편집한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1095쪽 이하)에 실린 알베리오네 신부의 자필원고를 '성 바오로' 라는 명칭이 붙은 문서고 서랍에서 꺼내어 여기에 싣는다. 11cm×17cm 크기의 종이 4장으로, 1955년 8월 22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다. 후반부에는 당시 통용되던 교리교육 형식인 질의응답이 나오는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을 폭넓게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마 후(1955년 12월 19일) 노동의 여왕이신 마리아라는 칭호로 하느님의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대관식을 거행하게 될 것이다.[46]

노동자 세계는 이를 기뻐하며 반길 것이다. 그리고 노동을 하셨고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빵을 먹게 되는 자녀들을 이해하며 그들에게 마음 쓰시는 어머니를 모시게 될 것이다.

노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든 활동은 노동이다. 영적 노동이 있고, 지적 노동이 있으며, 육체 노동[47]이 있다. 각자는 자신

46.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955년 12월 11일자에 멕시코에서 과달루페의 동정녀를 '노동의 여왕Regina del Lavoro' 이라는 칭호로 대관식이 거행되었다고 게재했다. 군중이 존경의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는 동안 동료들의 이름으로 한 노동자가 그 유명한 성모상 머리에 금관을 씌워드렸다.

47. '손노동manuale' 에 해당하는 표현.

이 행하는 노동의 힘듦을 받아들이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무도 하느님보다 더 활동적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과 천상 성부를 위해 매우 가치 있는 높은 차원의 노동을 하셨다.

마리아의 노동은 완전한 영적 작업이었고 완덕을 향한 계속적인 상승이었으며, 주님이 맡기신 가장 고귀하고 힘든 사명 완수의 계속이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 무서운 뱀의 머리를 밟으셨다.

마리아의 노동은 지적이었다. 그분은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셨고 공부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 도출해낸 말씀과 문장을 엮어 당신 입술로 '마니피캇'을 자연스레 노래하셨다.

복음서에는 두 차례에 걸쳐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신 거룩한 말씀을 듣고 곰곰이 묵상하셨음에 주목한다.

마리아의 노동은 육체적 노동이었다. 그분은 집과 가정을 돌보던 다른 히브리 여인들처럼 일하셨다.

마리아에게는 다른 모든 여인보다 더 훌륭한 찬사를 드려야 한다.(잠언 31,10-31 참조)

예수님이 당신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셨을 때, 사도들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이층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48], 또는 설교하셨을 때, 요한의 집에 머무셨을 때(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49] 마리아는 다른 경건한 여인들처럼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의복을 만드는 등 부지런한 여인으로서 당신의 일을 완수하신다. 노동자의 귀감이시다!

질문: 노동을 하셔야 했나?

---

48. 'trovavansi,' (si trovavano)라는 표현 대신 사용한 고어古語.
49. "accepit eam discepulus in sua" 요한 19,27 참조.

답변: 물론이다. 하느님의 명령이고 삶의 필요성 때문이다. 근면한 삶은 위대한 공로다.

질문: 누구에게 노동자라는 칭호를 주어야 하는가?

답변: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는 기도 안에서 사회에 큰 공헌을 하는 이들에게, 선생, 의사, 판사처럼 지적 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사제, 선교사, 훌륭한 교육자처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자 노력하는 이들에게, 공장, 밭, 광산, 정직한 상업 등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주어야 한다.

질문: 노동을 어떻게 성화시키는가?

답변: 노동을 통해 빵과 천국을 추구하면서 성화시킨다.

질문: 노동자는 왜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가?

답변: 마리아는 영적 지적 육체적 노동의 귀감이시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인내와 초자연적 지향과 계속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여 당신의 일을 완수하셨기 때문이다. 마리아가 하늘에서 자비로운 눈길로 노동자들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머니, 스승, 노동자의 여왕이라는 칭호를 마리아께 드리는 것은 타당하고 옳은 일이다.

섭 리

들어가면서

「성 바오로」지 1953년 1월호에 "바오로가족 안에서의 섭리 La Provvidenza nella Famiglie Paoline"라는 제목으로 이 짧은 글을 게재했다. 1954년에 출간된 모음집에서는 좀 더 단순화된 〈섭리 Provvidenza〉라는 제목에, 소제목의 순서가 약간 바꾸어 실렸다.

이 책에서는 앞에 실었지만, 1년 뒤에 출간한(1954년 1월) 「노동 *Lavoro*」이라는 소책자에서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큰 주제를 발전시켜 다루고 있다.

섭리의 개념은 하느님의 계획("하느님은 천국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과 이끄심(하느님은 지혜와 선을 통해, 특히 목표를 향해 인간을 효과적으로 인도하신다)이라는 두 가지 연관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섭리의 가르침을 벗어나면 삶은 모든 의미를 잃는다.

모든 인간을 위해, 특히 수도회를 위해, "주님은 섭리의 수단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정신, 면학, 사도직과 청빈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다."

섭리의 활동은 무엇보다 풍요로운 영적 수단으로 드러난다. 곧 성사생활, 전례거행, 흠숭, 설교, 영적 지도, 내적 작업… 그렇지만 모든 수도자를 위해 더욱 생산적인 자산이 되게 하는 면학과 실천을 통해 얻는 인간적 풍요로움, 탈렌트, 재능 안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다.

'성공의 비결 또는 계약' 덕분에 섭리는 바오로가족 안에서 더욱 현저하게 작용했다. 이 '비결'을 실현하기 위해 '은총을 받기

위한 자세와 꼭 받으리라는 신앙'이 필요하다.

실천적 차원에서 모든 판단기준은 "사도직을 위해 재정기금을 마련하고, 이차적으로 협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바오로인은 자신의 사도직으로 살아가야 하며 새로운 창안, 수도원, 기계류, 성소사목, 성전건립, 적자를 감안한 출판물의 시도 등을 위해서는 봉헌-기증, 기부로 충당한다." 섭리의 진정한 장애는 죄다.

특히 장상은 섭리를 잘 활용하여 훌륭하게 통솔할 줄 알아야 한다. "하나의 수도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성인이 필요하지만, 그 수도회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성인이 필요하다. 아니 갑절로 거룩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복자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는 썼다.

바오로가족의 특수 사명과 직접 연관된 주제가 대두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곧 노동의 책임, 사도직 수단의 사용, 위에서 주어지는 도움에 대한 항구한 신앙, 협력자들의 기여, 경제적 경영관리에 대해 항상 깨어 주의를 기울일 것…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좌우명에 집약되어 있다.

섭 리

1. 원 리

SP,
1953년
1월호, 1쪽

1) 섭리에 대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철학과 신학이 관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성과 계시가 상호 보완할 때에만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의지와 은총이 서로 보완할 때에만 그리스도인의 성성과 수도적 성성에 이를 수 있는 것과 같다.

비관주의, 운명주의, 우연론, 이신론理神論(볼테르Voltaire), 맹목적인 운명의 신봉… 등은 섭리에 대한 신앙의 결핍과 이성의 결핍이 그 원인이다. 세상, 역사, 모든 사람을 위한 평온하고 신뢰에 찬 낙관주의는 항상 계시로 입증되었다. 모든 것과 모든 사건은 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곧 모든 것은 신적 정신과 지극히 사랑하는 성부의 뜻에 따라 인도되고 규정되거나 허용된다.

2) 섭리라는 개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 곧 '내일을 위한 배려'와 세상의 '통치'가 연관되어 있다. 내일을 위한 배려란 하느님이 천국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고[1], 필요한 수단을 인간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다. "하느님 안에서 목적을 지닌 계획된 모든 것을 섭리라고 한다."(성 토마스)[2]

1.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alla sua glorificazione." 더 정확하게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per la propria glorificazione"(하느님에 대해 언급한 표현).
2. 원문에는: "Ratio ordinis rerum in finem Providentia in Deo nominatur."(「신학대전」, I, qu. 22, art. 1)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자료에서 '원칙'의 내용을 도출

반면에 하느님은 '통치'로써 모든 것을 지혜와 어지심으로, 특히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향해 효과적으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차원을 실행하는 것을 통치라고 한다."[3]

3) 섭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삶은 모든 의미를 잃고, 인간의 물리적 권력과 사악한 간계에 따라 맹목적으로 나아가게 된다. 반면에 섭리에 대한 신앙이 살아있을 때 인간 역사의 모든 의미가 분명해지고 드높아지며 심오해진다. 이는 개인의 열정과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한 곳으로 모으시는 하느님에 의해 이루어진다. 역사는 이성의 빛과 신앙의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준다.

4) 섭리 안에서 신앙을 통해 크고 작은 일을 돌보시는 하느님이 드러난다. 곧 하느님은 원자, 머리카락, 들에 핀 백합에서부터 물리적 지적 윤리적 발전에 이르기까지, 창조에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돌보신다. 삶은 영원, 최후심판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빛에 의해 힘을 얻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 또 복음과 십자가의 빛 없이 추론하는가!

5) 하느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물을 기획하시고, 참된 계획을 그르침 없이 실현하신다. 그 어떤 것도 맹목적이고,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란 없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 "[창조자인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다스린다."[4] 우리는 하느님의

해냈다.

3. 원문에는: "Executio huius ordinis gubernatio dicitur."(「신학대전」, 상동)

4. 원문: "Attingit a fine usque ad finem, fortiter suaviterque disponens omnia."(지혜 8,1)

뜻에 애정을 다해 순종해야 한다. 그것만이 언제나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이다!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5]라는 말은 완전한 기쁨이요 충만한 예지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 특별한 은총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으며, 인간은 그분의 뜻에 따라 하느님의 계획을 완수할 것이요, 행복에 도달할 것이다.

인간이 이를 거역한다 해도 하느님은 여전히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겠지만, 인간은 그러하지 못할 것이다! 저주받은 이들이 하느님의 정의를 찬양하겠지만 이들은 영원히 불행할 것이다.

모든 성덕은 하느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끊임없는 '예fiat'로 이루어진다.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 그분은 언제나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으로 가득 찬 순간에도 그분을 언제나 아버지라 부르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6)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회[6]인 교회를 설립하시면서 초자연적 목적을 교회에 부여하셨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그분은 강생하셨고, 초자연적 수단을 교회에 주셨다.

이와 비슷하게 교회의 지체, 예를 들면 성바오로수도회와 같은 수도단체를 생각해야 한다. 수도회는 완수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님께서 이에 걸맞는 수단을 주시는 동시에 정신, 면학, 사도직, 청빈을 통해 섭리가 드러난다. 이것은 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유익한 출판을 위해, 수도회 회원의 생계와

5. "fiat voluntas tua."
6. '완전한 사회'는 공법과 국제법의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곧 수도회가 고유하게 자치권을 가지고 자급자족한다는 의미다.

활동 유지를 위해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풍성한 수단

성바오로수도회에는 갖가지 신심실천이 마련되어 있다. '영과 진리 안에서'[7](요한 4,23) 신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성에 도달할 수 있다. 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양심성찰, 설교, 영적 지도, 내적 작업 등은 수도회에서 찾을 수 있는, 풍성하게 주어진 섭리의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성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님은 이를 적용하고 잘 활용하는 이에게 큰 위로와 빛과 위안을 베푸신다. 신심실천의 모두 또는 일부의 포기는 섭리를 거부하고 죄와 슬픔과 권태로운 수도생활을 하게 되거나 | 더 나쁜 상태에 빠지게 됨을 의미한다. 반면에 관대한 마음을 지니면 천상 아버지의 너그러운 자비를 더 받게 될 것이다.

SP, 1953년 1월호, 2쪽

은총에 맞갖게 응답하고 성화의 수단을 선용함으로써 주님과 수도회를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는 모범적인 수도자들이 양성되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기억과 고마움을 남기고 떠난 죽은 형제자매들을 이 자리에서 기억하자.

* * *

선생이든 학생이든 면학을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배우기

7 . "in spiritu et veritate."(요한 4,23)

위해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호의를 베푸실 것이며, 지식을 잘 이해하고 간직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은총을 지니게 될 것이다.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섭리가 필요하다! 그것은 각자가 자기 신분이 요구하는 만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충분한 지혜를 이미 갖추고 관련된 자격증과 학위를 딴 훌륭한 선생과 작가를 양성했다.

* * *

주님은 복음 선포자에게 말씀을 주시리라고 성경은 말한다.[8] 주님은 그를 위해 말씀하실 것이다.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갖추어 겸손과 사랑 안에서 행동한다면 은총의 결실이 따를 것이다. 다양한 출판물과 말씀 사도직에 열정을 가진 이들에게는 놀라운 섭리가 주어진다. 비록 많은 재능을 갖지 못한 설교자와 작가라 해도 사람의 영혼과 사회를 위해 효과적으로 일한다.

지성, 사랑, 구체적인 결실이 따르는 사도직은 그 뿌리가 건강하다는 표시다. 교회에 생생한 뿌리를 둔 바오로 정신에 따른 출판, 영화, 라디오는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 * *

그뿐 아니라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8. 라틴어역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니 기쁜 소식 전하는 이들이 대군을 이루네Dominus dabit verbum evangelizantibus."(시편 68(67), 12)

는 섭리가 있다. 곧 나머지 모든 것 (의복, 음식, 거주지, 사도직 수단, 건강 등)은 덤으로 주어진다. 하느님은 바오로회 남녀 수도자들에게 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 수단, 성소자, 작업장, 각자가 받은 선물을 발휘하기 위한 직무를 마련해 주신다.

수도회는 어떤 경제적 자금 없이 세워졌고, 청빈 정신으로 살았으며, 항상 관대하고 신심 깊은 협력자들의 도움과 때로는 특별한 섭리에 의해 주어진,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도움을 받았다. 곧 참새에게 깃털과 둥지를 주시고, 들에 핀 나리꽃을 입히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어두시는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는, 믿음이 있고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순간, 곧 제때에 넘치도록은 아니지만 필요한 만큼 주신다. 따라서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3. 성공의 비결

은총을 받기 위한 자세와 꼭 받으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바쳐야 할 '성공의 비결' 또는 계약이다.

"스승 예수님,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와 우리 아버지 성 바오로를 통하여 당신께 드리는 저희의 약속을 받아주소서.

저희는 당신의 높으신 뜻에 합당하게 되고 당신이 바라시는 완덕과 하늘나라 영광에 도달해야 하며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 지식, 사도직, 청빈

등 모든 면에 약하고 무지하고 무력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길 진리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며, 오직 한 분이시고 지극히 높은 선이십니다. 저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성부께 청하면 얻으리라' 고 말씀하신 당신께만 의탁합니다.

저희는 생활과 사도직 그리고 무슨 일에서나 마음을 다하여 한결같이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만을 위하여 일할 것을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저희는 당신께서 바라시는 착한 정신, 은총, 지식, 선을 행하는 수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무한히 선하심으로 저희의 특별한 성소의 필요에 따라 저희의 영적 작업, 공부, 사도직, 청빈의 결실을 배가시켜 주소서.

저희는 당신을 의심치 않고, 저희의 항구하지 못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스승님,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성 바오로 사도에게 하셨듯이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지상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충실히 본받고 하늘에서는 영광 속에 그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9]

이 기도는

1) 우리에게 특별한 성소를 주신 하느님의 어지심을 찬미하고

2) 모든 면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3)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기로 하셨다.

---

9. 1985년 출판본에 따른 기도문 형태. 앞선 출판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성공의 비결' , Ediz. Archivio Storico Generale della F. P., 1985.

4. 바오로 협력자 회지와 협력자들

요즈음 여러 가지 언어와 다양한 제목으로 출간된 여러 출판물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바오로가족을 위해 바치는 기도와 활동에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사목생활*Vita Pastorale*」[10]이 매우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바오로의 협력자」 회지도 매우 유익할 것이다. 한 나라에서 「바오로의 협력자」 회지는 한 가지 출판본만 있어야겠지만, 특별한 필요가 있다면 각 분원은 회람이나 한 장의 인쇄물로도 발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장상이 동의해야 할 것이다.

협력자를 다만 돈을 봉헌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바오로가족을 위해 기도와 자기 삶을 봉헌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희사를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주님이 그 희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사람이다).[11]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협력을 하는 사람이다. 성소자를 보내주고, 책과 기사를 쓰고, 보급 등에 열의를 보이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들이 협력자회에 가입하고 미사성제에 참례한다.

성 바오로에 따르면(코린토 후서) 진정한 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 곧 준비된 자세, 관대함, 진심이 필요하다.

헌금은 세 가지 선을 낳는다. 다시 말해 통상적으로 하느님에게서 더 많은 물질적 재화를 받는다. 가난한 사람이나 하느님께 베푸는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느님에게서 받기 때문

10. 1916년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창간한 성직자를 위한 월간지.
11.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281항 참조.

이다. 그는 지상에서 더 많은 영적 은총을 받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부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바오로가족은 물질적 재화를 주는 사람에게 무한한 가치의 영적 부를 줌으로써 보답한다. 그중에서 특히 해마다 그들을 위해 2400대의 미사 봉헌으로 보답한다.

협력자들을 양성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가능성에 따라 그들이 바오로인의 삶, 바오로인의 신심, 바오로인의 사고방식을 살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현명함과 열의

열의와 현명함을 잘 조화시키는 것은 지혜요, 이는 은총의 결실이며 어려운 덕목이다.

한편으로는 신앙으로 필요한 것을 보고 현명하게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지 않도록 장소, 시간, 인적 상황을 고려하며 조언을 구해야 한다.

정신, 사도직, 면학을 힘겹게 만들고 이자가 사도직의 수익을 초과하는 등, 수입에 비해 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상황을 빚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또한 정신, 건강, 사도직, 면학과 적절한 주거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베들레헴과 이집트에서 지낸 성가정의 삶에 비길 만한 때가 있고, 나자렛에서 살던 삶에 비길 만한 때도 있으며, 천상 스승의 공생활에 비길 만한 때도 있다.

건물, 기기 등을 신중하게 구입하고 부지런히 사용한다면, 쉽게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SP, 1953년 1월호, 3쪽

그러나 현명하게! 성 주세페 베네딕토 코톨렌고는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방이 가득 차서 두 번째 방이 필요하다면 건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여기에도 지혜와 의견의 은총이 필요하다. 곧 충분한 토지를 구입하고, 기본 설계를 마련한 다음 필요에 따라 각 부분을 실행해야 한다. 성소자와 사도직을 함께 돌보지 않는다면 큰 수도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리고 기계를 작동시키는 사람이 없다면 가장 좋고 수많은 기계가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 *

사도직을 위해 기금을 마련해야 하고, 두 번째로 협력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부자는 '여분의 것'을 바치지만, 바오로인은 최선을 다해 일한 다음 필요한 활동을 위해 아직 모자라는 것, 곧 '부족분不足分'[12]을 청해야 한다. 하느님께 신뢰하라! 하느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다. 일반적으로 바오로인은 자신의 사도직으로 살아가야 하며, 새로운 창안, 분원, 기기, 성소자, 성당, 적자를 내는 출판물의 시도 등을 위해서는 자선-헌금과 기부금을 받아야 한다. 헌금은 일상 생활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도직 수단과 확고한 성격의 사업으로 돌려야 한다.

6. 하느님 섭리를 방해하는 것

죄는 섭리를 가로 막는 주된 장애다.

12. 전자는 'superest'이고, 후자는 'quod deest'를 말한다.

죄는 우리의 성화, 성소자, 사도직의 영적 결실, 평화와 마음의 고요, 하느님과 형제들 사이에 '직접적인 장애'가 된다. 물질적인 필요, 수도원의 점진적인 발전, 좋은 평판과 면학의 결실 등에는 '간접적인 장해'가 된다. 이는 수도적 청빈을 거스르는 잘못이요 제7계명을 거스르는 것보다 더 나쁜 죄로서, 하느님의 섭리를 수도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무질서한 경영관리와 같다.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 일한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그러나 허영, 편안함, 이기주의 때문에 일을 한다면 궁핍에 머물 것이다.

7. 하느님을 본받을 것

섭리와 통치는 수도원을 이끌고 운영하는 사람에 의해 완성된다. 사람들을 잘 선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들을 계속 보살펴주고, 도와주며,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대리자인 장상과 재무 담당자는 하느님을 본받아야 한다. 모든 것이 장상의 수중에 있어야 하며, 장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느님과 긴밀하게 일치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유와 책임을 통해 네 부분에서[13] 장상에게 협력해야 한다. 만일 장상이 한 부분(예를 들면 면학)을 소홀히 다룬다면, 수레는 움직이지 못하고, 수도원은 중요한 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한 부분이 잘 나아가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 부분 모두를 잘 나아가게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13. '네 부분'은 바오로인 삶의 특별한 분야다. 곧 '신심'(영성 전반), '면학'(지적 양성), '사도직'(특수 사명의 완수), '청빈'(경영관리).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주제에 관해 '네 바퀴'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

M. 자카르도는 "수도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성인이 필요하지만, 그 수도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성인이 필요하다. 아니 이중으로 거룩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으며, 모든 일에 설득력있고 효과적으로 중재했다.

8. 맺음말

첫째: 바오로가족 수도회에 베푸신 위대한 사랑과 성소의 위대한 선물에 대해 주님께 사랑에 찬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한다.

둘째: 영적 작업, 면학, 사도직, 생계수단을 위해 매일 관대하게 응답해야 한다.

셋째: 많은 사람이 풍요로운 은총에 참여하도록 성소자 발굴을 위해 계속 열의를 지녀야 한다.

넷째: 수도회는 활동과 회원에 의해 확장해야 하고, 수도회에는 많은 성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진보해야 한다.

다섯째: 섭리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바오로가족에 해당되므로 적절하게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우리를 성덕으로 부르시는 하느님 섭리에 바탕을 둔 계속적인 낙관주의는 지혜와 사랑 안에서 언제나 성화의 수단, 기회, 시련, 위로를 마련해 준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

들어가면서

영적 열기가 뜨거워지고, 마찬가지로 사도직 활동도 불타오르던 시기인 1954년 봄에 저술한 이 소책자는 그 때까지 출판된 것 가운데 가장 진전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그 분량은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1956년)는 (소책자) 다음으로 방대하다.

이 소책자는 제일 먼저 「성 바오로」지 2-3월호에 실렸고, 이어서 1954년 성 요셉 축일에 발간된 모음집 「바오로가족에게」에 실렸다. 그해 3월 19일 성 요셉 축일 장엄미사 중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나자렛의 가장인 성 요셉의 이름을 수도명으로 택한 축일을 기념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 해에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4월 4일은 창립자의 70세 탄생일이었고, 첫 수도회인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40주년이었다.

적극적으로 축제를 준비하던 그의 제자들은 창립자 자신과 창립에 대해 글을 써주었으면 하고 요청했고(이 요청에 의해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라는 저서가 나옴),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라는 책의 출간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인간을 양성하거나 확고히 다지기 위해 가장 창조적인 활동은 언제나 각 인격체의 몸과 인간성을 기초로 하여 출발한다고 생각했다.

이 소책자는 다른 모든 것보다 알베리오네 고유의 인간학을 가장 잘 표현해 준다. 또한 봉헌된 사람과 사도의 통합적 양성을 위한 성서신학, 윤리, 수덕신학, 심리학… 등 기본적인 이론과 실천을 요약하고 있다.

본문의 몇 가지 소제목이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 곧 '하느님의

것인 그대의 육신, 주님, 저 자신을 알게 하소서,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죄의 결과, 육신의 구원, 부활할 육신, 놀라운 영광, 영과 육, 재축성, 여러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느님, 마지막 축성봉헌, 신성을 모독하지 마라, 탐식, 육욕, 순결에 대한 교육, 태만, 의지의 역할, 은총, 육신, 사랑하는 아들인 육신, 복음과 위생은 조화를 이룬다, 극기의 법칙, 성공의 비결, 사도직, 내적 교육학, 인내,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Mens sana in corpore sano, 그대 자신의 의사, 의사 선택' 등.

육신에 대한 주제, 특히 육신과 영혼 간의 관계,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 등에 관해 다루는 주제의 원천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프란치스코 키에사 신부의 「생명의 열쇠」 (마지막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 곧 생명공학, 심리학과 위생학적 성격에 대한 설명은 니콜라 펜데Nicola Pende[1]의 「인격에 관한 현대 과학*La scienza moderna della persona umana*」에서 발췌했다.

비록 저자가 늘 남성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사도적 삶을 시작하게 한 소녀와 여성의 숫자는 형제들보다 훨씬 많았고, 그는 그들을 똑같이 대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인성교육과 영적 양성을 위해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게다가 이 소책자에 인용한 모든 글은 발간하기 전에 그들에게 건네주어 검토하게 했고, 로마 인쇄소에서 인쇄하여 바오로회 형제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러므로 이 소책자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다. 앞서 언급한 여러 제목을 훑어보아도 독자는 이 소책자

1. 앞에 나오는 "인간 양성" 주제의 '들어가면서' 각주 2 참조.

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옛' 표현임에도 모든 내용이 생기 있고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전하십시오[1]
(1코린 6,20)

SP, 1954년 2-3월호, 1쪽

1. 기도합시다

"주님, 하늘과 땅의 임금이신 우리 하느님, 당신의 법에 따라 그리고 당신 계명을 이루도록 오늘 저희의 마음과 육신, 저희의 감각, 대화와 행동을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지탱하시고 다스리시어, 저희가 지금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고 자유롭게 해주소서. 오! 세상의 구세주시여, 주님은 세세에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성무일도서에서)[2]

2. 하느님의 것인 그대의 육신

인격에 관한 니콜라 펜데[3]의 정의는 뛰어난 것이다. "인격이란 인간적이고 신적인 창조물로서 살아 있고, 생각하며 사랑하는 존

1. 이 제목은 라틴어역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전하십시오glorificate et portate Deum in corpore vestro."라는 1코린 6,20에 나오는 사도 바오로의 말씀에서 따온 것이다. 대다수의 사본은 'glorificate'라는 명령법 형태만 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첨가한 'et portate'는 몇몇 사본에만 나오는데,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문장을 중요하게 여겼다.
2. 성무일도서의 첫 시간경 기도문.
3. N. Pende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룬 "인간 양성" 주제의 '들어가면서' 각주 2 참조.

재요, 되풀이될 수 없는 고유한 개체로서, 우주와 영적 세계에 참여하며, 거기에서 계속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자유의지를 받았고, 고귀한 존재로 드높여지고자 불완전한 본성을 거슬러 싸우는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지한다면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인간은 구체적인 개체로서 인격을 중심으로 자연과 은총을 활용하여 의사와 교육자, 사제와 사회학자로 일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심층과학, 그리스도교 철학과 신학은 인간의 기원, 구성, 활동, 운명을 규명하기 위해 조화를 이룬다.

성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마치 두 가지 실체로 구성된 제3의 것 같지만, 인간은 육신도 아니요 영혼도 아니기 때문에 중성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육신과 영혼은 새로운 단일성을 형성할 정도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어 인간은 동시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단일체이지만, 육신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영혼만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항상 육체적 정신적인 것이다. 비록 한 인격 안에 결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두 개의 실체는 각기 타고난 특성을 보존한다. 곧 영혼은 영적이고 자유롭고 불멸하며, 육신은 본성상 자유롭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3.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께 감사드림[4]

인간의 초월적 부분인 영혼, 이성, 정신이 활동을 이끌어야 하지만 물질적인 육신도 필요하다. "삶을 이루는 이 두 협력관계는

4. 로마 7,25 참조.

일반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반半짐승과 반半천사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이 삶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명한 철학자 리카르도 롬바르디R. Lombardi 신부[5]가 말했다. 이렇게 육신은 영혼을 거의 동물의 단계, 곧 '현세적 인간'[6]에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은 신앙과 은총을 통해 육신을 거의 천사화시키는 단계, 곧 '젊은 천사 알로이시오', '천사박사'[7]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아담에게는 은총이 넘치도록 주어져 영혼이 감각을 지배하기 쉬운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은총은 완벽한 인간이 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욕정에 대한 어떤 | 지배력을 주어 덕을 쉽게 쌓게 만들었다. 하지만 타락하고 은총을 빼앗긴 인간 안에서 한결같이 육정과의 투쟁이 벌어지며, 정신의 승리는 하느님의 상존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SP, 1954년 2-3월호, 2쪽

욕정은 강력한 경향으로서 이성을 거스르고 무절제한 방식으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감각적인 편익便益을 추구하려 한다.

4. 신적 기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창세 2,7]

하느님은 이미 우주(광물계, 식물계, 동물계)를 창조하셨고 질서

5. P. Riccardo Lombardi(1908–1979), 예수회 사제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운동 Movimento per un mondo migliore"의 주창자요 전쟁 후 가장 뛰어난 설교가다.
6. 'animalis homo' (1코린 2,14; 역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은 '현세적 인간' 이라고 번역했으나, 라틴어 본문을 직역하면 '동물적 인간' 이다.)
7. 'angelicus juvenis Aloisius'; 'Doctor angelicus' : 전자는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후자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를 세워놓으셨다. 다만 전능하신 조물주, 지혜로운 명령자, 섭리의 통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 그리고 그분께 마땅한 영광과 자녀다운 사랑을 드릴 존재가 없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이다.

5. 주님, 저를 알게 하소서[8]

인간은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로 구성된 존재다. 유한하고 무한한 존재, 죽어가는 존재, 영원한 존재다.

인간은 모두 하느님의 능력, 사랑, 힘, 지혜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인간의 물질적인 부분은 지상에 정착해 살고, 그 대신 인간을 이끌고 지배하는 영적인 부분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며 순수한 영 사이에 머문다.

인간은 소우주다. 유기체인 인간은 하느님의 걸작품이다.

구원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친족관계에 들게 된다.

영혼은 육신에게 성장하는 힘[9], 느끼는 힘, 활동하는 힘을 부여한다. 영혼 없이는 육신이 먼지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육신에 비해 의지와 지향의 초월적인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주요 구세주인 하느님의 생각 안에는 인간에게 주고자 하시는 제3의 요소, 곧 비할 데 없는 존엄성, 신적 본성에의 참여, 거의 신적

8. 성 아우구스티노: "주 예수님, 제가 저 자신을 알고 당신을 알게 하소서 Domine Jesu, noverim me, noverim te."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추종을 청하기 위한 기도문으로, 알베리오네 신부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7번에 인용했다.

9. 다시 말해, 생장하는 생명을 활용하는 것이다.

존재가 되게 하는 요소가 있음에 틀림없다. 이 제3의 요소는 인간 본성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지심이 허락한 것으로, 육신의 욕망과 영의 법칙 사이에 질서를 세우고 드높이며 조화를 이루는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인간행위에 초자연적 품성을 부여하고, 초자연적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느님은 자연과 인간 본성을 창조하시면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성 아우구스티노)[10]

이로써 인간은 전적으로 드높여졌다.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요소를 빼앗길 때 불안하고, 덕성과 지식조차 갖출 수 없게 된다. 마치 새로운 조건에 적응할 줄 모르는 타락한 자녀와도 같다. "편안하지 않습니다."[11] 초자연적인 것이 부족할 때 모든 것은 늘 불완전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숭고한 인간됨은 인간이며 하느님이요 신적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로마 6,12)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전하십시오."(1코린 6,20 참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격화神格化되는 길이요 가능성이다.

---

10. "Simul condens naturam et infundens gratiam."('De Civ. Dei', XII; 성 토마스가, 「신학대전」, I, qu. 12에서 다시 취함)

11. "inquietum est "우리의 마음은 당신의 품에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성아우구스티노, 「고백록」, I, 1)

6.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 2,15 이하)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창세 3,1-7)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벌이 따랐지만 속량과 구속자의 약속도 주어졌다.

7. 죄의 결과

아담 전체, 곧 영혼과 육신은 원죄 때문에 은총의 삶을 잃었을 뿐 아니라 아담이 본래 지니고 있던 선善도 상처를 입었고, 육신과 정신이 죄의 결과를 느꼈다.

지성은 이해력이 떨어지고, 더 쉽게 오류에 빠지거나 헛된 일에 지성을 잃게 된다.

예를 들면, 하느님이나 올바른 이성에 의해 비추임을 받은 사람은, 완전한 정결은 가장 위대하고 황홀한 사랑이요, 순명은 가장 위대하고 만족스러운 자유요, 청빈은 가장 위대하고 기쁨을 주는 즐거움[12]이라는 세 가지 명제를 이해할 것이다.

SP, 1954년 2-3월호, 3쪽

그러나 감각에 의해 | 약해지고 흐려지고 육신의 법에 의해 억압된 이성은 사물을 아주 다르게 볼 것이다.

여왕으로 군림해야 할 의지는 쇠약해졌고 왕권을 박탈당하고 처참하게 되었다. 화려한 외모, 또는 사려 깊음이나 세력의 탈에 가려진 거짓 개념을 통해 신적이고 인간적인 능력(지성과 자유의지)은 동시에 흐려지고 마비되었거나 탈선했다.

두 종류의 무덤은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다. 하나는 도덕상의 무덤으로서 외적으로 심판받은 수백만의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 분리는 영혼의 죽음, 곧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으로서 대죄가 원인이 되는 행위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온 땅 위에 퍼져 있는 육신의 무덤이다. "사람아,

12. 앞선 출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기록이 잘못된 것 같다. 저자는 '기쁨을 주는 부ricchezza' 라고 표현하려 했을 것이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13] 질병, 고통, 현세 삶의 노고는 육신이 무덤에서 부패됨으로써 끝난다.

8.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14]

인간은 어떤 노예상태로 전락했는가!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로마 7,23) "나는 가장 좋은 것을 보고 가장 나쁜 것을 따른다."[15]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로마 7,15)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로마 7,24) "그 계시들이 엄청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곧 찔러 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고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2코린 12,7-9)

그리스도교화 활동은 인간을 죽음, 오류, 죄와 육신과 두려움

13. 재의 수요일 전례 양식. 라틴어 문구: "Memento, homo, quia pulvis es et in pulverem reverteris."
14. "Infelix ego homo."(로마 7,24)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15. 참조: F. Petrarca, "veggio 'l meglio et al peggior m'appiglio." U. Foscolo가 재인용함. "나 자신의 노예, 다른 이들의 노예, 운명의 노예인 나는 / 가장 좋은 것을 알지만 가장 나쁜 것을 택한다."(Sonetti의 14행시에서 발췌)

등의 노예상태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잃었던 자유를 그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교회의 크나큰 노력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 5,13)

9. 육신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서 구원되기를 원하셨다. 육신도 구원되기를 바라셨으므로 육신과 영혼을 취하셨다. 아기의 모습을 띤 육신, 어린이, 인간의 육신, 희생제물의 육신을 취하신 것이다. 죄 외에는,[16] 곧 감각, 자연적인 필요, 피, 심장, 열정 등 모든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되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라, 영광된 주의 성체 고귀하신 주의 성혈…."[17]

구유 안에 누운 아기, 나자렛의 노동자, 사도직에 전념하여 지친 모습,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고, 채찍질로 살이 찢겼으며, 가시관에 찔리고, 골고타로 향하는 길에서 십자가 아래 넘어졌고, 담즙과 몰약과 식초로 목을 축였으며, 십자가 위에 못 박혔으며, 몇 개의 못에 매달려 계신 세 시간의 단말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는 모습, 옆구리가 창에 찔린 모습, 무덤에 모시기 위해 향유를 바르고 염습하는 모습,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셨음을 관상

16. 더 정확하게는: 'Fuorché nel peccato….'

17. "Pange, lingua, gloriosi corporis mysterium, sanguinisque pretiosi…."('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찬미가에서)

해야 한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된 것이 아니라, 흠 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1베드 1,18-19; 참조: 1코린 6,20; 7,23)

얼마나 큰 대가였나! "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듯이 마침내 부활할 날을 위해 결정적이고 충만한 구원으로 상대적인 완전무결함을 다시 얻은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당신께서는 기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히브 10,5-7)

10.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마태 28,5-6 참조] 하고 천사가 믿음 깊은 여인들에게 말했다.

그분의 상처는 눈부셨다. 문이 잠겼는데도 다락방으로 들어오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여덟 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셨다.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사도 1,9-11]

그분은 성부 오른 편에 앉으셨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육신!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에서 영예롭게 되셨고 흠숭을 받으셨으며 사랑받으셨고 현양되셨다! 거기에는 마음과 몸이 동정이신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의 육신도 있다.

하늘의 임금과 여왕의 지극히 거룩한 육신은 천사들과 성인들의 경이와 사랑을 받는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온 정신과 육신은 황홀경에 빠질 것이다.

교황 비오 12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신과 영혼으로 하늘에 오르신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리라 희망합니다. 물질주의와 여가에서 나오는 관습의 부패는 모든 덕성을 매몰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인간 생명을 말살시키려 위협하는 반면, 마리아는 영혼과 육신이 예정된 숭고한 목적인 빛나는 모습으로 모든 이 앞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승천에 대한 믿음은 우리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하고 더욱 활기차게 해줍니다."

11. 부활할 육신

SP, 1954년 2-3월호, 4쪽

육신의 구원은 결국 부활로 완성될 것이다. "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이들의 맏이가 되셨다. 이는 그분이 겪으신 형언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으로 이미 마련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그분을 따랐고, 모두 그분을 따를 것이다.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어 없어질 것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묻히지만 강한 것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물질적인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1코린 15,42-44)

선택된 이들의 육신은 덕과 선행의 표지를 지닐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육신과 같은 품위를 지니게 될 것이며,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인간은 하느님 정의에 따라 하늘나라에 들어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감각, 모든 노고, 모든 극기, 모든 가치 있는 행동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온 인격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될 것인가? 아니다. 저주받은 이들의 육신은 혐오스러운 몸으로, 특히 부정직한 이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육적인 죄일수록 치욕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다. 사실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 하나를 말해 주겠습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통을 느끼는 상태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상태로.)[1코린 15,51 참조]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히 불에 타기 위해 살아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태 25,41.46 참조]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기에 저희는 죽어야 할 운명을 슬퍼하면서도 다가오는 영생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나이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아감이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위령미사 감사송에서)[18]

12. 경이로운 영광

"심판자께 대답하기 위해
세상 만물 부활할 때
죽음이 놀라고 자연도 놀라리라."[19]

영광스러운 육신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고통을 느끼지 않고 영원히 남으며
- 일반적으로 육신이 영혼에 순종하는 품성이 주어지고
- "죽은 이들의 부활도 이와 같을 터인데"[1코린 15,42 참조] 뭇

18. 새 미사경본에 나오는 위령 감사송 1을 택했다.
19. 부속가 '분노의 날Dies iræ' 에서 인용한 부분. "Mors stupebit, et natura, cum resurget creatura, judicanti responsura."

별이 서로 다른 빛을 내듯이 빛나며

–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가는 움직임은 정신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민첩하며

– 정신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영성화한다는 의미로서 모든 것이 영에 달려있을 것이기에 영적이라고 말하는데 순수하다.

육신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만족감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묵시록에서 금관을 쓰고 계신 분으로 나타난다.(묵시 14,14)

이와 같이 그분과 함께 다스릴 성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소개한다.(묵시 4,4) 이는 그분이 육신에 입혀주실 승리를 가리킨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2티모 4,7–8] 화관이란 사실 승리의 표징이다. "경기를 하는 사람도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승리의 화관을 얻지 못합니다."[2티모 2,5] 그러므로 용감하게 싸웠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사람이 죽음과 죄와 악마를 무찌르신 그분과 함께 화관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화관의 본질'이다. "오시오, 나의 신부여, 화관을 쓰게 될 것이오."[아가 4,8 참조]

그리고 다른 후광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승리에 대한 본질적인 상에 따르는 '부수적인'[20] 상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육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동정자들'에게 주어지는 후광, 설교를 하고 글을 쓰면서 무지와 오류와 이단과 불신을 이긴 '학자들'에게 주어지는 후광, 세상과 박해자들을 이긴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20. '보조적인accessorio' 의미에서.

세 개의 후광이 있다고 한다.

'동정자들' 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동정을 지킨 사람들로서…"[묵시 14,4], 그들의 특별한 광채를 입증했다. '학자들' 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많은 사람을 정의로 이끈 이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히 빛나리라."[다니 12,3] '순교자들'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사람의 아들도 하느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루카 12,8] 그러므로 묵시록에는 "희고 긴 겉옷을 입은"(묵시 7,13) 사람들로 나타났다.

13. 영혼과 육신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이 욕망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미 경고한 그대로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스

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잘난 체하지 말고 서로 시비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맙시다."(갈라 5,16-26)

14. 재축성

SP, 1954년 2-3월호, 5쪽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신성함을 잃은 육신을 재축성하기를 바라셨다. 모든 인간은 대대로 아담의 잘못을 입고 태어난다.

육신은 재축성된다.

- 물과 성령으로 인간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세례성사를 통해 재축성된다. 곧 온 인격이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 견진성사로 더욱 완전한 자녀가 [된다].
- 영성체로 양육된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다.

'어른이 된다'[21]는 것은 완전히 성숙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15. 여러분의 육신 안에 계신 하느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필리

21. adolescere.

3,20-21)[22]

활동은 인간의 고유한 행위다. "행위는 고유한 주체의 특성이다."[23] 선이나 악을 행하는 주체는 인간의 인격이다. 곧 영혼과 육신이 함께 어우러진 사람이다. 실제로 각 사람 안에서 영혼과 육신이라는 두 개의 협력 요소가 분리되는 죽음이 다가오면 영혼도 육신도 더 이상 공로를 세울 수도 죄를 지을 수도 없다. 두 가지 요소는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결국 둘 다 상이나 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주님은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써 저희 마음과 육신을 인도해 주소서."[24]

16. 마지막 축성

중태 상태에 병자를 위한 전례가 있다. 종부성사, 삶에서 영원으로 옮아가는 거대한 여정을 위한 노자성체, 마지막 정화와 성화를 위한 성유, 성당에서 거행하는 장례미사와 시신에게 베푸는 사죄경, 구원과 부활의 표지인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교적 매장 예절.

노자성체를 영해줄 때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형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노자성체를 받으십시오." 예식을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

22. 앞선 출판본은 성경인용 구절 표기가 에페 3,20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확실하게 오류로서 잘못 표기된 것이다.
23. "actiones sunt suppositorum": 스콜라 철학의 공리.
24. 원문에는: "Dominus autem dirigat corda et corpora nostra in caritate Dei, et patientia Christi."(전례 본기도)

스도의 성체가 그대의 육신과 영혼에 도움이 되기를….” 성유를 몸에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거룩한 도유를 통하여 그리고 주님의 지극히 경건한 자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대가 시각, 청각, 미각과 말, 촉각을 통하여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를 빕니다.”

임종자를 하느님께 맡기는 동안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하느님의 성인들이여, 오소서. 주님의 천사들이여, 마주 오소서. 이 영혼을 받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대전에 바치소서.” “주님, 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하관하는 동안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오! 주님, 이 영혼을 모든 죄의 유대에서 풀어주시어, 마지막 날 부활하여 천국에서 성인들과 선택받은 이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그리고 사제는 천사의 나팔소리가 잠든 모든 이를 깨울 때까지 어머니인 교회에 의해 죽은 이의 육신이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무덤을 한 번 더 축복한다.

17. 세상을 떠난 회원들을 생각하자

교회 정신에 따라 회헌[25]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어떤 수도자가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수도회의 모든 회원에게 알려 회헌에 규정된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세상을 떠난 회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회헌 267조)

“수도자들 사이에 결속된 사랑은 죽음을 통해서도 전혀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돈독해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은 형제들을

25. 1949년판 성바오로수도회 회헌.

위한 장례미사와 무덤예절은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도자들의 관습에 따라야 하고, 죽은 이를 대신하여 바치는 기도를 통해 연옥의 고통이 가벼워지게 해야 한다. 그러나 살아 있는 각자 또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지은 죄를 보속하고 거룩한 대사를 얻도록 하여, 죽음으로 인해 연옥의 형벌과 고통을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회헌 268조)

묘지, 특히 우리 수도회 묘지를 참배하는 것은 거룩하고 구원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죽은 우리 형제들의 묘지를 합당하게 보존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우리의 고유한 무덤을 위한 장소를 구입하거나 수도회 묘지를 조성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18. 욕되게 하지 마라!

육신을 욕되게 한다는 것은 욕정을 위해 육신을 사용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하면 인간 전체가 실추된다. "지혜는 간악한 영혼 안으로 들지 않고 죄에 얽매인 육신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지혜 1,4)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1코린 2,14)

육신과 영혼은 아주 긴밀하게 결속되어 있다. 각기 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공로를 쌓을 수도 없다. 마치 질료가 형상과 결합하지 않으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26]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었던 거지요 종기투성이고 허기진 라자로 앞에…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26. '질료materia… 형상forma'은 각각 '물질적 요소'(물, 기름, 빵…)와 '전례 형태'를 가리킨다.

종을 거느리고 탐식과 취기가 채워질 때까지 화려하게 연회를 벌이는 미식가 부자가 있다. 그러나 결말은 어떠한가? 라자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인색한 부자는 죽어 묻혀서 지옥에 갔다. 천상 스승의 가르침은 언제나 심오하고 명백하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 |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마태 5,29-30)

SP, 1954년 2-4월호, 6쪽

눈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러나 만일 그 눈이 악을 일삼는다면? 악의에 가득 찬 눈길은 영혼을 죽인다! "탐욕스러운 눈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눈보다 더 탐욕스럽게 창조된 것이 무엇이겠느냐?"(집회 31,13)

진정으로 위대한 모든 사람은 성덕, 사도직, 학문, 가치 있는 일, 인도주의적이고 자애로운 활동과 드높은 열망을 위해 자기 육신을 '강하면서도 부드럽게fortiter et suaviter' 인도하고, 본능과 욕정을 다스릴 줄 알았다. 그들은 이성과 신앙을 따라 살았다.

19. 탐 식

탐식은 육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질서하게 먹고 마시는 욕망을 추구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각에 굴복하는] 방법은 '탐욕스럽게, 많이, 허겁지겁, 정신없이'[27] 먹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탐도를 제어하라. 그러면 모든 육욕을 쉽게 막을 수

27. 원문에는: "præpropere, laute, nimis ardenter, studiose."

있을 것이다."(「준주성범」)[28]

"탐욕스러운 사람은 배를 채우는 데 마음이 있다."(성 예로니모)[29] 그 대신 절제는 먹고 마시는 데 올바른 '척도'를 가리킨다.

알코올 음료와 알코올 함량이 높은 음료의 '습관적인' 섭취는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결과로 보아 반드시 단죄받아야 한다. 반면에 적당량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건강을 위해 매우 이롭다. "그러나 어린이, 적어도 17-18세가 되지 않은 젊은이에게는 결코 권하지 말아야 한다."(Roncati)

"알코올 중독 외에 사회와 조직을 타락시키는 다른 요인은 담배다."(Roncati) 이유는? 니코틴, 산화탄소, 암모니아 청산칼리 등을 유발한다. 결과는? 어떤 것은 윤리적인 영향력, 어떤 것은 정신적인 결과, 어떤 것은 인체조직의 결과, 어떤 것은 지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흡연은 모든 이의 건강에 해를 끼친다."(Guzzanti)

다른 사항에 관해서는 이미 쓴 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를 확인시켜준다. 모든 것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평생 타인에게서 존경을 받는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나 먹기 위해 살지는 말아야 한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술은 알맞게 마시면 영혼과 육신을 위해 도움이 된다.[30]

"위장과 목구멍의 악습은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앗아간다."(키케로)[31]

---

28. 원문에는: "Frena gulam et facilius omnes alias carnis inclinationes frenaberis."
29. 원문에는: "Cor habet in ventre gulosus."
30. 집회 31,27 참조: "술은 알맞게 마시면 사람들에게 생기를 준다."
31. 원문에는: "Vitium ventris et gutturis non solum minuit ætatem hominibus, sed etiam aufert." 성 아우구스티노에게서 인용한 개념이요 표현이다.

20. 혀

혀로 인해 야기된 악에 관해 성 바오로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쁜 대화[32]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1코린 15,33 참조)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타락했는가.

성 야고보는 혀에 관해 다음과 같은 거룩한 가르침을 준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수풀을 태워 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 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내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낼 수 있습니까? 짠 샘도 단 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야고 3,3-12)

32. CEI에서는 '대화'를 '동료'로 번역했다.

21. 저희 영혼과 육신을 모든 악에서 지켜주소서[33]

특히 육체의 욕정에서 나오는 죄에는 육욕, 탐욕, 태만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 분노, 인색, 소위 신경과민을 덧붙일 수 있다.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색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더러움 속에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1테살 4,4–5. 7; 역주: 본문에는 '아내' 대신 '자기 육신'으로 되어 있다)

22. 육 욕

"간음하지 말라"는 제6계명은 음란한 모든 것을 금한다. 그러므로 부도덕한 행위, 말, 눈길, 서적, 영화, 영상, 연극, 비윤리적인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청취를 금해야 한다. 한편으로 이와 같은 계명은 '육신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고, 하느님이 활동하시고, 당신 현존과 은총을 지니고 거주하시는 성전으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하라고 명한다.

SP, 1954년 2-3월호, 7쪽

악에 관한 것과 악에 | 다가서게 만드는 것을 미워할 정도로 정결에 대한 참된 존중이 필요하다. 성 바오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1테살 5,22]

지혜, 사랑, 현명으로 이루어진 정결에 대한 진정한 교육이 필요하다.

서원자는 자기 수도회의 회헌과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한 수

33. "A cunctis nos anima et corporis defende periculis."(전례 본기도)

단을 알아야 한다.

23. 순결 교육

대단히 민감한 과제다. 그러나 순결한 이들은 주님과 마리아와 성 바오로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무리를 교회에 선사하는 은총을 지니게 될 것이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1코린 7,7 참조]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곧 주님과 마리아, 거룩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흙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를 위해 뛰어난 수단은 다음과 같다. 열심하며 잦은 성사생활, 영적 지도, 마리아에 대한 신심, 관대한 의무 수행, 사말에 대한 묵상 등이다.

1950년 11월 1일 아침, 30여 명의 젊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예수께 사적 일시적인 서원양식으로 자신을 봉헌했다. 이러한 봉헌행위는 소죄를 보속하는 행위로 고해신부의 권고에 따라 행했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덕을 닦는다는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서원을 하기 전에 서원을 지킬 윤리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 서원을 권한 사람이 서원을 풀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우리 지원자들이 행한 서원행위는 서원이 지속되는 동안 젊은이들이 수도회에 바치는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

지원자는 우리 양성소에서 책임자의 지도아래 순명서원과 함께 아마도 청빈서원까지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시적인 사적 서원의 의미는 늘 유지된다.

이러한 교육은 적절한 시기에 젊은이를 섬세하게 깨우쳐주고, 보호해 주며 위험한 독서, 연극, 동료,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등에 빠지지 않도록 선도하며 (특히 방학 동안) 열렬한 신심을 지니도록 용기를 북돋아줌으로써 완성된다.

24. 예수님과 마리아께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은 감각적인 애정에서 지켜주고 많은 유혹을 물리치게 해준다.

인간의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수도자 신분과 사제 신분은 감성적인 본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수성을 넓혀주고 승화시켜주며 초자연화시켜준다.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은 영혼에 천상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스며들게 하고, 따라서 현세에 이끌리는 감정을 둔화시킨다.

이러한 애정을 지니려면 예수님과 마리아께 대한 사랑이 열렬하고 관대하며 뛰어나야 한다. 아름다움과 어지심과 권능을 충만히 갖추신 분, 창조의 아름다움과 놀라운 은총을 지니신 마리아 앞에서 피조물은 자신의 매력을 상실한다.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우리 마음을 한층 부드럽고 강하게 끌어당기실 것이다. 더구나 그분들께 봉헌하는 사람을 마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가서는 영혼이 영적 신랑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열어 보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25. 태 만

태만은 또 다른 주요 악습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에 대해 언급하면서 다루었다.

그렇지만 색욕, 탐식, 태만은 영에 대한 육의 돌풍이라는 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부자유스럽게 된다. 빠르든 늦든 그와 같은 악습이 뒤따를 것이다.

욕정이 처음에는 부탁하고, 그 다음에는 강요한다. 그 다음은 압박하며 조여온다. 비록 불만스럽고 후회하게 되더라도 계속 욕정을 따라 행동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부당한 짓을 허용하여 의지를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욕정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6. 사랑할 때

여기서 회헌과 성경구절을 각각 두 차례씩 상기하는 것이 좋겠다.

회헌 130조: “모든 수도자는 청빈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든 그리고 어떠한 직무나 맡은 책무에서든 여분의 것을 멀리하고 공동생활의 멍에를 기꺼이 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에게 특별한 무엇이 필요하다면 겸손과 신뢰로 자기 장상에게 청해야 한다.”

회헌 131조: “모두 검소한 식사에 만족해야 하고, 그 누구도 무모하게 건강을 해치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장상은 회원 각자의 노동과 체력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15-16)

성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필리 4,11-12)

SP, 1954년 2-3월호, 8쪽

다른 대륙으로 가게 될 때 거의 언제나 시차와 음식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유럽 밖의 | 대륙으로 건너갈 때 그리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 처하게 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주님이 이런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나는 자주,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시던 예수님과 성 바오로의 모습을 떠올렸다. 적어도 주님께 이러한 작은 고통을 바칠 줄 모른다면 수도원에 필요한 은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27. 의지의 역할

우리 의지는 최고의 기능, 다른 모든 기능의 여왕이다. 내적 외적 감각, 권력, 욕정, 그 모든 기능의 여왕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행위eliciti[34]와 다른 권위를 행사하는(책임행위imperati) 자유, 공로 또는 잘못을 안겨준다.

34. 'Eliciti' : '고유한 본성에 따른 하나의 능력에서 나온 산물'을 말하기 위한 스콜라 철학적 표현.

의지를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므로 육신까지 다스린다는 의미다.

의지가 강하면 잘 다스리게 되듯이, 한편으로는 명령하여 힘과 감각을 순종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하느님 뜻에 순종할 정도로 의지 자체가 온순하게 된다. 곧 '의미인 표징'이든, '동의인 의지든'[35] 하느님 뜻에 대한 이중의 역할을 한다.

이 둘이 서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자주 감각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확고함, 빈틈없음, 하느님 은총이 필요하다. 우선 큰 빛, 설득력, 신앙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의지는 자신의 지병持病 때문에 하느님 뜻에 대한 일종의 자율이나 독립을 열망한다. 하느님 뜻은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자주 힘든 노력 앞에서 물러서고 만다.

이는 원죄의 결과다. 의지는 하느님께 반기를 들고 감각은 의지에 반역하게 되었다. 의지 자체가 불손하게 되어 온순함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28. 의지를 교육할 것

구원이란 하느님의 첫 계획에 따라 본성과 은총의 질서 안에서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이다. 건축가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이

35. 'Volontà di segno…, di beneplacito' :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에게서 길어온 표현으로(「테오티모*Il Teotimo*」 또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논고*Trattato dell'amor di Dio*」, l. VIII),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리킨다. '표징인 의지', 또는 '의미인 의지'는 계명이나 충고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동의인 의지'는 하느님이 원하셨거나 허용하신 삶의 상황이나 사건에 의해 드러난다.

루셔야 하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요한 1,3]

의지의 구원은 의지가 인간의 여왕 자리를 되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하신 하느님이 천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물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창조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존재를 창조하여 위험을 무릅썼을 때 모든 것이 악으로 치닫게 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느님의 지혜와 권능과 사랑은 전혀 예기치 못한 설명을 제시한다!

의지가 온순하면서도 강하려면 장애를 극복하고 긍정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외적 장애'는 '인간의 존중을 받으려는 것'이다. 인간의 평판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저지르게 된다. 곧 스스로 노예가 된다. '세속을 따르는 악한 표양'은 사람들 위에 힘을 행사하여 의지 자체가 악으로 기울게 한다. 악마는 우리 원조와 맞서 자기네 권한을 행사했고, 이제는 선한 의지의 사람들과 맞서 자기네 권한을 행사한다.

'내적 장애'는 '경솔함'이다. 이 때문에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 '무관심'과 '게으름'은 깊은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된다.

'긍정적인 수단'은 '지성'과 '의지'와 '은총'의 조화로운 일치로 요약할 수 있다.

지성과 깊은 신앙은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알고 있다. "먼저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원할 수 없다."[36] 의지를 효과적으로 활성화

36. 원문에는: "Nihil volitum quin præcognitum." 이는 스콜라 철학의 공리다.

하기 위해서는 깊은 확신, 넓은 교양, 신앙정신이 필요하다. 이는 의지가 결단, 확고함, 항구함을 자아내면서 모든 '원의'와 한없는 욕망을 거슬러 행동하게 할 것이다.

29. 은 총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을 획득하셨다.

우리는 기도, 잃어버린 선물들을 특히 성체성사를 통해 '어떤 식으로든' 다시 획득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의지를 위한 힘과 지성을 위한 빛과 욕망과 육욕을 완화하는 상존은총의 선물을 받는다. 특히 영성체, 곧 선택받은 이들의 양식, 동정자들의 포도주, 어려운 삶의 여정을 위한 노자성체는 욕정을 약화시키고 좋은 경향을 강화시킨다. "구원의 희생되시어 천국의 문을 여시는 주… 위로와 힘을 주소서."[37]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쳐야 한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요 귀감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협력자요 협조자이시기도 하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입니다."(1코린 3,9)[38]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이시다.[39] 우리는 하느님을 힘입어 하느님께 복종할 것이고, 의지는 본능과 감각을 굴복시킬 것이다.

---

37. 성체성가 : "O salutaris Hostia, quæ cæli pandis ostium… da robur, fer auxilium."
38. 원문에는 "Cooperatores enim Dei sumus."
39. 원문에는 "Dominus fortitudo mea."(이사 12,2)

30. 사랑스런 육신

육신을 착한 아들 또는 여행의 훌륭한 동반자로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육신에게 음식을 주어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깨어 지켜야 한다! 매 순간 사람을 진흙탕으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많은 지역에서 성경, 성인들의 표양과 자연법칙은 아침시간을 크게 중요시하라고 가르친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효율적이며 최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틀림없이 그 시간은 가장 상쾌하고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다."(「신애론*Filotea*」; 역주: 「하느님을 찾은 이들에게」라는 표제로 2006년, 바오로딸 출판사에서 출간됨)

SP, 1954년 2-3월호, 9쪽

휴식에 관해 몇 시간 잠을 자야 하는지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많은 | 요소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획일적인 규범을 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젊은이는 노인보다 더 자야 한다. 적절한 휴식은 '피로의 독'(유해성분)을 없애는 데 충분하다. 그리고 새로운 산소가 근육과 신체조직 전체에 공급되어 다시 활발하게 일하게 된다. 어른은 최소한 6시간에서 최대한 8시간까지 쉬어야 할 것이다.

육신이 규칙적인 휴식을 취해 인간 전체에 도움을 주는 것은 가장 좋은 일이다.

음식에 관해 살펴보자. "각 사람의 일일 영양 섭취량은 그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양 만큼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 양은 알부민, 당분 그리고 지방이 산소활동으로 분해되면서 생산하는 칼로

리에 의해 측정된다. 그리고 분명히 밝히면, 칼로리 지수의 실제 단위는 1킬로그램의 물의 온도를 섭씨 영도에서 1도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다."

일반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젊은이를 위해서는 많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고, 어른을 위해서는 이보다 적게, 노인을 위해서는 더 적은 양의 음식이 필요하다. 언제나 나이, 하는 일의 종류, 소화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31. 복음과 위생은 조화를 이룬다

시장[배고픔]이 최고의 반찬이다. 일했을 때, 공부했을 때, 걸었을 때, 충분한 운동을 하고 난 후의 식사는 식욕을 돋군다.

중독성 있는 향료와 자극성이 첨가되거나 지방이 너무 많이 함유된 조미료는 소화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 "칼보다 식탐이 사람을 더 쉽게 죽인다."

인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수도자답게 먹어야 한다. 미각에 좌우되지 말고 하느님을 섬기며 사도직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음식의 양은 성 이냐시오에 따른 영신수련 과정에서 정한 일반 규범처럼 필요하고, 정해진 양을 섭취해야 하며,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먹어야 한다.

음식물이 침과 잘 섞여 소화되도록 꼭꼭 씹어야 한다. 충분히 씹지 않은 채 탐욕스럽게 삼키는 것은 소화불량과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부족한 듯할 때 식탁에서 일어서야 한다. 결코 배불리 먹어서는 안 된다!"(Guzzanti)

일을 지혜롭게 배분하며 쉬는 것은 건강과 일의 최대 효율을 위해 도움이 된다.

수도원, 공연장소, 성당, 여행, 주방에 관한 위생규정이 있어야 한다.

음식의 간을 잘 맞추고 잘 익히고 조미료를 사용해 요리한 영양가 있는 음식물은 건강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위대한 성인이요, 훌륭한 인간성을 지닌 분이셨다.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루카 10,8]라는 성경구절을 주석하면서, 음식투정을 하지 않고 주방에서 준비해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자진해서 어떤 극기를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일이라고 말했다. 전자의 경우는 선택조차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완전한 극기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주전부리를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고, 덕스러운 일도 아니다. 간식도 그 양과 질과 시간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음식물이 소화되는 동안에는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냉탕에서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식후에 하는 공부와 과격한 운동은 해롭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차분히 지내야 한다. 위생상, 교육상, 덕성상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 한다.

32. 극기의 법칙

극기는 '보편적인 법칙이다.'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선은 적합하

지 않은 것을 거부하거나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한다.

그러므로 영적 선행, 기도, 공부, 사도직, 수도생활의 규칙준수 등을 지키기 위해 극기해야 한다. 레크리에이션, 청소, 가족과 사회 안에서 사는 것, 거래, 규칙적인 영양섭취, 건강유지,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는 것 등도 극기를 요구하는 일이다.

합리적으로 극기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은 부를 쌓을 것이다. 예를 들면 면학, 노동에 전념하는 젊은이와 게으르며 일을 거부하는 젊은이를 비교해보라. 어떠한 삶을 준비해야 하겠는가?

훌륭한 그리스도인과 훌륭한 수도자는 자기네 신분이 요구하는 의무를 지킨다. 그리고 자기 임무에 불성실한 수도자와 악습에 물든 그리스도인을 비교해보라. 어떤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가?

고통을 피하려 하면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적당히 극기할 줄 아는 사람은 기쁨을 더 누릴 것이다. "자기 목숨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이성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요한 12,25 참조]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것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많은 병치레를 할 것이고, 그러는 사이에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이다.

극기가 '보편적' 인 것은 온 존재, 곧 지성, 마음, 의지, 상상, 시각, 촉각, 미각, 기억, 온갖 욕정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지혜롭게 극기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지원자에게 무한한 선을 가져다준다. 주의를 기울여 숙제를 내주고 수업을 하며, 수덕의 길, 좋은 습관의 양성, 교정敎正, 질서 있는 교육, 현명한 훈련, 수많은 욕구에 대한 희생 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학

교 선생, 고해신부, 영적 지도자, 보조자가 있는 곳이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겠는가.

SP, 1954년 2-3월호, 10쪽

교육자이신 천상 스승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

33. 성공의 비결

여러 분야에서 진정 위대한 인물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세상의 교육자, 저술가, 사도들, 과학자들, 군 장성들, 교회학자들, 모든 분야의 성인들, 탐험가들, 노동자들…. 그들 안에는 천부적인 재능과 초자연적인 은총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관대하고 항구한 노력이 있었다.

인간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극복할 줄 알 때 숭고하게 된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일에 성실할 것이고, 작은 일에 불성실한 사람은 큰일에도 불성실할 것이다."[마태 25,21 참조]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들이 순종하게 할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순종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것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훌륭한 제자는 훌륭한 스승이 될 것이요, 나쁜 제자는 나쁜 스승이 될 것이다.

기꺼이 뒤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은 사회에 선을 베풀 것이요, 물러서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 관계에서 많은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경건하고, 신심이 두텁고, 질서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은 사도로서, [선의] 씨를 뿌리며 경건하고 신심이 두텁고 질서 있고 학식 있는 사도를 양성할 것이다.

그 대신 경건하지 않고, 신심이 두텁지 않고, 무질서하고, 사도가 아니라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겨우겨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에 사제와 수도자를 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훌륭한 교육자는 올바르고 초자연적인 사랑 안에서 양성된다. 결코 호감이나 반감에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원을 위해 지상에서 영에 합당치 않은 것을 부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기 위해 고생과 극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육신을 위한 참 사랑입니다."

34. 훌륭한 싸움[40]

극기의 목적은 긍정적인 것, 곧 올바른 방향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극기라는 말은 거의 '죽는 것mortuum facere' 이라는 의미로 들린다. 말하자면 의지를 왕으로 군림시켜[41] 눈, 기억, 혀, 상상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치 시체처럼 저항하지 않도록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

40. "Bonum certamen."(참조: 1티모 6,12; 2티모 4,7)
41. 생략된 문장이다.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더 정확할 것 같다. "곧 '독재자 같은 악습을 죽이고' 여왕 같은 의지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올바르게 극기한다면 우리는 구원, 완성, 사도직이라는 가장 좋은 세 가지 선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극기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은 극기의 개념, 필요성,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준다.

성경에는 '버리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부정하다' (자신을 버리고), '극기' (육적인 욕망을 멀리하십시오), '죽음'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묻힘'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벗어버림'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싸움' (훌륭한 싸움) 등 여러 가지 명칭을 택한다.

오늘날은 '개혁, 자기 지배, 이탈, 의지를 교육할 것, 하느님을 덧입을 것, 그리스도 안에 살 것, 하느님을 향할 것, 노력, 희생, 깨어있음' 과 같은 표현을 쓴다.

35. 사도직

사도직은 우리 자신과 사람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보속이다.

무위도식, 게으름, 사도직을 나태하게 하는 경향은 태만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의지의 병이라고 할 수 있다. 태만한 사람은 요구하는 온갖 고생과 힘든 수고를 회피하려 한다. 이러한 상태에 이른 사람에게는 재앙이 따를 것이다! 경우에 따라 게으름, 열의 없음, 미지근함, 무관심이 여기에 해당된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루카 13,7)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마

태 3,10; 7,19)

노동은 많은 악습과 무익하거나 나쁜 생각에서 지켜준다. 그 대신 게으름은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찬 소굴이 된다. 게으른 사람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갔는데
보아라, 온통 엉겅퀴가 우거지고
전부 쐐기풀이 뒤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보며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면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잠언 24,30-34)

36. 내면의 교육학

그리스도교 교육학은 육체의 건강, 기질, 성격, 불건전한 경향 등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스도교 교육학은 겸손, 하느님께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세 가지 덕에 기초를 두고 있다. 많은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개인지도를 하는 교사보다 효과가 훨씬 적다. 평범한 약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화는 특히 사춘기에 필요하며 민감한 주제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를 많이 받으라고 권한다.

더 나아가 '인계引繼'가 필요하다. 우리 회원이 한 부서에서 다

른 부서로, 한 분원에서 다른 분원으로 이동하고, 한 양성기에서 윗 | 단계로 올라가거나(예를 들면 지원기에서 수련기로), 어떤 직분에서 다른 직분으로 옮겨갈 때 정신, 면학, 마음자세, 사도직, 청빈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아우르는 충실하고 신중한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각 사람이 통일되고 지속적인 양성을 받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언제나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인계에는 다른 요소와 함께 자발성과 지적 능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SP, 1954년 2-3월호, 11쪽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의 '건강 노트'[42]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회 입회허락을 위해 학생이나 생활 참관자에게 간략한 소개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각자에게 최선이 되게 해야 한다.

37. 인 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어라. 주 너희 하느님에게 돌아오너라. 그는 너그럽고 자비로운 이,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큰 이,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는 이다."(요엘 2,12-13)

[인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 육체적 윤리적 고통을 평화롭게 견디게 하는 덕이다.

우리 모두가 탐욕, 이득이나 허영, 반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

42. 건강 차트와 신상 카드.

도인답게 인내를 실천한다면 그 인내는 성인이 되어 연옥을 피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고통은 하나의 교육자요, 공로의 근원이며 강인하게 만드는 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인간적으로 말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마태 6,34]

과거에 대해서는 인내한 공로와 선행만을 기억해야 한다. 중상모략, 허물, 불쾌함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를 괴롭힐 뿐이다. 미래는? 고통이 어떠한 형태로 다가올지 우리는 모른다. 다만 아직 고통이 다가오지 않고 있다는 것만을 알고 있다. 만일 그러한 고통이 다가올 때에는 은총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인내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고통에 찌든 사람과 고통을 감내한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육간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 중상모략을 당했고, 박해를 받았으며, 감옥과 같은 곳에 감금당했고, 굶주림에 허덕였고, 추위에 떨었으며, 그 결과 질병에 시달렸다. 예수님이 물으셨다. "요한아, 어떤 상賞을 바라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을 위해 좀 더 고통받고 멸시당하기를 바랍니다."

성 바오로는 천국에서 받을 상에 비하면 받아야 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와 돈과 친구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멸시를 통해 나는 모든 것,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이는 어느 개종자가 한 말이다.

38. 영혼과 육신의 건강[43]

영혼이 성화되는 만큼 육신도 성화된다. 성덕은 성사, 준성사, 기도를 통해 성장한다.

신앙, 묵상, 양심성찰, 하느님을 향한 승화, 경건한 감정, 드높은 열망을 통해 성장한다.

대신덕, 사추덕, 수덕, 윤리덕을 통해 성장한다.

사도직의 수고를 통해 성장한다.

극기, 보속, 동정성을 통해 성장한다.

의인들은 얼마나 빛나는가! 예언자, 사도, 순교자, 증거자, 동정자, 참회자, 수도자, 참된 그리스도인은 "해처럼 빛날 것이다." [마태 13,43]

육신이 영에 순종할 때마다 더욱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로마 8,23)

여기에 육신에 대한 참 사랑이 있다. "악을 멀리하고 선을 지지하라."[44] 그러나 배를 하느님으로, 안락이나 육욕을 만족으로 생각하여, 자기 육신을 위해 영혼을 바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43. Salus mentis et corporis.
44. "Abstine a malo, sustine in bonum.": 스토아 윤리 철학의 금언.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마태 10,28] 최후심판이 이를 드러낼 것이다.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나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1코린 9,27]

39. 건강한 육신에 건강한 정신[45]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합당하게 돌봄으로써 건강을 보존하는 것은 의무다. "몸의 건강보다 좋은 재산은 없고, 마음의 기쁨보다 큰 즐거움은 없다."(집회 30,16)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건강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임이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지혜롭게 건강을 보존하고 우리의 성화, 면학, 사도직, 영혼에 도움이 되게 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성 바오로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주셨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1코린 6,15.19]

바오로가족 안에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레크리에이션은 사도직을 해야 하는 활동량에 준해 축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기계 앞에 머무는 것, 선교하는 것 등.

어떻든 모든 운동과 레크리에이션은 단지 다리와 팔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폐, 심장, 혈액순환, 소화기, 호흡기 등 인체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야 한다.

온몸을 청결하게 해야 하므로 목욕을 해야 하고 특히 손, 목,

45. "Mens sana in corpore sano."(Giovenale, 「풍자*Satire*」, X, 356)

SP, 1954년 2-3월호, 12쪽

귀, 눈, 발, 손톱, 치아 등을 잘 닦아야 한다.

어디든 통풍과 채광이 잘 되고, 물이 충분해야 한다.

침대는 너무 푹신해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된다.

건강에 좋은 자세를 취해야 하고 성당, 공부방, 식탁, 침실, 어디서든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올바른 신체단련은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의지가 더 유연하고 굳건하며 온순히 따르게 해준다.

40. 그대 자신이 의사가 되시오

그대 자신을 지키도록 하라! 그 어떤 의사의 지혜도 자기 몸에 대한 본인의 경험보다 뛰어나지 않다.

그대 자신을 보살펴라! 그대를 올바로 살게 하는 스승인 '그대'의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만족할 만한 그 어떠한 영적 지도자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위한 양심성찰과 육신에 대한 고찰은 언제나 필요하다.

노동, 영양섭취, 휴식 등에서 그대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시각, 청각, 혀, 관계, 독서, 우정 등을 돌보는 일에서 그대 자신을 다스려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검토하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강인하고 현명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이 건강을 해친다면 미각이 식욕을 돋구더라도 먹지 말아야 한다.

"약으로 사는 사람은 비참하게 산다."[46] 의사와 약을 과신하는

46. "Qui medice vivit, miserrime vivit." 스페인의 의사인 Ben. Jeronimo Feijoo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온갖 작은 질병 때문에도 근심하게 되어 결국 비참한 삶에 이르고 만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곧 소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100세의 어린이'[47]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정신이 젊기 위해서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질병에서 쉽게 치유되고 고통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의지가 큰 역할을 한다. 의기소침, 우유부단, 무기력, 조로早老, 비관주의는 이미 그 자체가 병이다.

하느님께 바탕을 둔 생각과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낙관주의,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협력, 은총과 자연적 초자연적 역량 등이 항상 삶에 동반되어야 한다.

의욕이 가득 찬 존재가 되어야 한다!

41. 의사醫師의 선택

영혼과 육신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구성된'[48] 자기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

전문지식과 건전한 윤리원칙을 가진 의사, 가능하면 가족을 잘 아는 의사(소위 '가족 주치의'), 지역환경에 대한 지식, 수도회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 생활조건과 노동조건과 정신환경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의사를 선택해야 한다. 만일 환자의 체질적 취약점,

(1676-1764)가 주석한 *Cartas eruditas*…, t. I, XL, 9에서 인용한 고전의학의 원리.

47. puer centum annorum.

48. 앞선 출판본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다. 분명 기록을 잘못한 것이다.

이상증세, 유전적 특이체질,[49] 신체적 성장(18세까지), 지향하는 삶의 종류를 알고, 눈에 보이는 건강상태와 실제상태를 구별하면서 기질, 성격, 반응성 등을 계속 주시한다면 훨씬 쉽게 예방하고 이끌고 돌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 아주 많은 의사는 영혼을 치료하지 않고는 육신을 치료할 수 없으며, 육신을 치료하지 않고는 영혼을 치료할 수 없다는 원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모든 증세는 육체적 심리적 징후가 동시에 나타난다. 자주 의사의 인간성과 종교성이 그가 지닌 지식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50]

경솔하게 고해신부를 바꾸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상사처럼, 너무 자주 의사를 바꾸는 일은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

42. 지혜와 나이와 은총이 더해 갔다[51]

식이요법, 예방, 약, 수술 등 새로운 건강수단과 치료방법을 발견하도록 연구가들의 지성을 비추어주심에 대해 '과학의 주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는 감수성을 발휘하자. 이러한 것은 인류를 위해 기여한 칭송할 만한 일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34세에서 47세로 높아졌고[52], 특히 어린이의

49. '특이체질Diatesi' : 어떤 질병에 걸릴 소질.
50. (다른 많은 경우처럼) 저자가 없는 진술이지만,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잘 알려진 의사들, 이를테면 주세페 모스카티Giuseppe Moscati(1880-1927, 1987년 10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시성됨)와 그의 개인 주치의였던 피에르프란치스코 부세티Pierfrancesco Bussetti(1909-1985)의 생각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51. "Proficiebat ætate, sapientia et gratia." (Lc 2,52)
52. 이러한 통계자료는 반세기 전의 것으로, 분명 수정되어야 한다.

사망률이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한다.

의사의 제안과 처방을 잘 따르는 것은 소중한 보화인 건강을 잘 돌보는 좋은 관리자의 일이다. 이 때문에 성바오로딸수도회는 알바노Albano주에 '사도의 모후Regina Apostolorum' 병원 설립을 준비했고,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와 성바오로수도회는 쿠네오Cuneo주 산프레Sanfré에 진료소를 설립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자연적인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은총'이 더해가야 한다. 만일 매 순간이 소중하다면, 우리 삶이 몇 달이나 몇 년 더 연장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의 온 생애는 "하늘나라에 공로와 영광을 쌓고,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며 봉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주님, 저희를 육신의 모든 역경에서 보호해 주시고 영혼이 온갖 나쁜 생각에서 정화되도록 내적 외적으로 지켜주소서."[53]

43. 기 도

"저희를 경이롭게 창조하시고 저희의 영혼과 육신을 더욱 경이롭게 구원하신 주님, 당신 성령의 빛과 힘과 은총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어 저희의 온 존재가 성화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해주소서."[54]

---

53. 원문에는: "Deus… interius exteriusque custodi, ut ab omnibus adversitatibus muniamur in corpore, et a pravis cogitationibus mundemur in mente."(사순 제2주일 본기도).
54. 미사경본 본기도 .

양심의 증언

들어가면서

이 제목은 2코린 1,12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성 바오로*SanPaolo*」지 1957년 3월호에 실린 내용을 명확히 해준다. 그러나 이 내용은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바오로가족에게 선사한 두 권의 모음집인 「바오로가족에게*Alle Famiglie Paoline*」(1954년)와 「지성의 성화*Santificazione della mente*」(1956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 양성과 도덕적 양심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논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요점은 첫 주제인 "가장 숭고한 교육의 의무"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밖에 〈양심 양성〉에 대해서는 1960년에 그랬듯이(1960년,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성바오로수도회 회원들에게 한 달 간의 영신수련을 지도하는 동안 여러 주제에 관해 계속 질문이 있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참조: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Ut perfectus sit homo Dei*」, I, 258-259; I, 517-519; IV, 27-38)

연대순으로 보아 편집을 하던 당시는 이미 언급한 1953에서 1954년의 상황과 비슷했다. 그 당시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기 나름대로 70세 생일과 설립 40주년 거행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제수품 5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풍요로운 결실을 새롭게 확인하고자 했다. 실제로 1957년 봄에는 바오로가족의 마지막 수도회들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세 수도회, 곧 성바오로수도회, 성바오로딸수도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의 지향은 이 수도회들이 "하늘에는 성인을 그리고 교회에는 사도를 배출할 단계에 있는지" 검증해보려는 것이었다.(「성 바오로」지 1957년 7

월호 참조) 검증하고자 하는 한 가지 근본요소는 상황윤리에 관한 첫 이론과 부딪치는 봉헌생활의 중대한 순간에 회원들의 윤리적 일관성과 그들 양심의 성숙도였다.

원본은 에스포시토R. Esposito 신부가 총원의 "문서고 안에 있는 '성바오로' 라는 이름이 붙은 서랍Fondo San Paolo"에서 발견한 세 개의 단편 자필원고 일부로서, 철해 놓은 메모지에서 빼낸 15cm×18cm 크기의 종이 4장에 작성된 것이다. 그 중 일부는 1957년 2월 18일로 날짜가 적혀 있다. 그러나 알고 있던 바와 같이 알베리오네 신부는 자신이 쓴 글을 방치해둔 적이 없었으니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검토했고, 직접 초고 수정과 최종 원고를 교정했다.

이 소책자는 창립자가 매우 풍요로운 시대인 1950년대에 로마의 여러 공동체에서 이야기한 것을 발간하도록 계속 당부하여 1953년과 1957년 사이에 발간된 짧은 글을 모아 현재의 모음집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양심의 증언(2코린 1,12)

1. 가장 숭고한 교육의 의무

SP,
1957년
3월호, 1쪽

가장 숭고한 교육의 의무는 피교육자의 도덕적 양심을 양성하는 것이다. 건전한 교육은 모두 서서히 교육자의 간여干與가 줄어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하여] 적법한 한도 내에서 피교육자가 교육자에게서 독립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 양심 양성에 도움이 된다.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에페 4,13)라고 한 것처럼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지닌 성숙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서원誓願을 통해 수도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책임감은 커진다. 그리고 사제직에 오를 때에는 책임감이 무한히 커진다. 책임과 자유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섬세한 양심과 순명을 일치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요 언제나 청해야 할 은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와 많은 어른은 얼마나 큰 진통을 겪고 있는가? 많은 사람은 성숙한 삶에 도달했다는 자부심으로 장상과 교회의 지도 방향이 어른에게 부적절하다고 거부한다. "우리는 아이들처럼 후견인과 관리자 밑에 있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하며 단언한다. 이들은 독립적이기를

바라며, 모든 면에서 스스로 처신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대접 받기를 원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되풀이한다. "교회는 자신의 규정을 만들고, 장상들은 그들의 일을 기꺼이 해야 한다. … 하지만 막상 실행해야 할 때가 오면 교회와 장상들은 빠져야 한다. … 각자 자기 양심에 따라 처신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하느님 사이에 어떠한 해석자나 중개자를 두려 하지 않으며, 자기 견해에 따라 일하고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감히 말한다.

그러나 어른으로 자처하는 것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과는 아주 다르다. 젊은이도, 어른도, 노인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회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과 능력을 지나치게 과신하면서 중대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삶의 여정에서 배워야 한다. 어른들과 이미 장상이 된 이들까지도 회헌을 따라야 하고, 그들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종속해야 한다. 순명해야 하고, 경청해야 하고, 봉사해야 하고, 도와주어야 할 장상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조언을 구해야 한다. 걷지 않는 사람만이 길을 물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어린이처럼 처신해야 하는가?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어른의 예지, 용기, 겸손, 관대함에 이르기 위해 어린이의 결백함, 순수함, 온순함을 보존해야 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마태 18,3)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쿰-쉬레' 라는 말에서 유래한 '양심coscienza' 은 특수한 행동에

윤리원칙을 적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믿음과 바른 양심을 가지고' (1티모 1,19), 곧 특수하고 최고의 윤리원칙에 따른 행동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 우리는 '과거' (consequens: 결과)에 대해 양심성찰을 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행한 바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양심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과 우리와 고해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더 깨끗하게 할 것이다."(히브 9,14 참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다음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녕 (그들 양심의) 구더기들은 죽지 아니하리라."[이사 66,24] "난도질하듯 함부로 지껄이는 자들도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아픔을 낫게 한다."(잠언 12,18)

그러나 [양심이] '인정한다면' 그것은 올바로 처신한 것에 대한 만족이다.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2티모 4,8] "우리의 양심도 증언하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이렇습니다."[2코린 1,12][1]라고 성 바오로는 말한다.

나) '현재' 에 관해, 양심은 무엇인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미리antecedens'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부추기거나 행동을 중단하라고 한다.

그야말로 도덕적 양심이다. 성 바오로는 '양심 때문에도' (로마 13,5) 권위에 순종하라고 권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 대해 이렇

SP, 1957년 3월호, 2쪽

1. 성경구절은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생각을 마무리 짓는다.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느님께서 주신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라, 또 나약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처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게 말했다. "나 또한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애를 씁니다."(사도 24,16)

다) 양심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며, 칭찬받도록 인간 행위를 확고하게 지도해야 할 목적이 있다. "잘 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마태 25,21.23] 그리하여 모든 것에서 "깨끗한 마음과 바른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1티모 1,5) 한 행동은 최후심판에서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는다.

라) 양심은 인간행위의 규칙이고,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은 어떤 행위를 명하든, 어떤 행동을 금하든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을 따라야 한다.

예: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은 지옥을 만든다." 어떤 것에 대해 그저 허락한 것이라면 그것을 따를 의무는 없다.

조건: ㄱ) '객체' 편에서 보면, 진리(참된 양심conscientia vera)와 올바른 태도(올바른 양심conscientia recta)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회헌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신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좋은 것임을 알고 있다.

ㄴ) '주체' 편에서 보면, 확실성(확실한 양심conscientia certa)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나는 오늘이 정말 주일임을 알고 있으며, 회헌은 진정 사도직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짓이나 잘못된 것, 모호한 것은 배제한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로마 14,23)

[양심은] '자연적' 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은 배워서 경력을 쌓을 때까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안다. 또는 '초자연적'일 수 있다. 곧 실천적 판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초자연적으로 좋고 가치가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죄가 된다.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양심'이라는 단어 자체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그러한 판단을 자아내는 '습관적 방식'과 판단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마음자세를 가리킨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곧 섬세한 양심을 지닌 사람, 해이한 양심을 지닌 사람, 올바른 양심을 지닌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사제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 수도자의 양심, 자연적인 양심, 초자연적인 양심.

내적 성향은 어떤 행동의 양상을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양심은 마치 하나의 지성소와 같아, 그 출입구는 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이에게 신성불가침한 것이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고해사제는 예외다. 하지만 성사적 봉인의 구속력은 모든 이에 대한 신성불가침을 보장해 준다.

양심은 "인간 내면에 있는 가장 심오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마치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 비밀스러운 핵심과 같다." "인간은 양심 안에, 절대 고독 안에, 영적 능력에 의해 양심의 소리를 다시 들려주시는 분인 오직 하느님과 함께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함께 숨는다. 거기서 그는 선이나 악을 위해 결단을 내린다. 그곳에서 그는 승리의 길 또는 패배의 길을 택한다. 인간은 자기가 원한다 해도 결코 스스로 양심의 소리를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양심의 짐을 짊어진 채 삶의 모든 여정을 걸어가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실하고 썩지 않을 증거인 그 양심의 짐을 짊어진 채 하느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양심을 기른다는 것은 개인에게 올바른 판단과 그 판단에 부합하게 활동하기 위한 개념과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 교육하고
2) 일탈에서 구해야 하며
3) 용기를 가지고 자유로이 실천하도록 의지를 다져야 한다.

2. 오 류

'새로운 윤리', '정황 윤리' 또는 '상황 윤리'라는 새로운 사상의 조류가 대두되었다. 결국 이러한 윤리는 주관적인 것이다. 정직한 윤리 대신에 이득이 되는 윤리, 편함을 찾는 윤리다.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판단을 하는 윤리이므로 변하기 쉬운 성격을 띤다. 내적 혼란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윤리다. 교황 비오 12세가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고, 가톨릭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1952년 3월 23일)라고 말한 윤리다.

모든 윤리질서와 가르침을 수정하고 가르치려 한다. 이런 윤리는 교회를 헐뜯으며 궤변적이고, 억압적이며 인색한 것처럼 묘사하여 윤리적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의 유대를 끊으려 한다. 대략 교의신학 분야에서 말하고 규정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지적 윤리적 독립을 바란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할 수 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정신도 양심도 다 더러워졌습니다."(티토 1,15)

'길'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분은 교회에 당신 계시를 건네주셨다. 교회는 그분의 계시를 보존하고, 해석하고, 수호하는 한편, 모든 사람에게 계시를 설명하라는 위임을 받았다.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따라 계시를 오류 없이 해석하고 적용하게 해주는 하느님의 도움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하신 약속이다.

참된 자유는 방종, 방탕, 타락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 대신 자유는 선에 대한 검증된 능력이요, 스스로 해내도록 결심하는 것이다.(갈라 5,13 참조) 참된 자유는 자신의 능력, 본능, 사건을 다스리는 지배력이다.

교회는 항상 인간의 자유를 수호해왔다. 교회는 인간이 그의 부富를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통찰하고 수용하도록 초대받았으며, 그런 경향을 느끼도록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신앙과 은총의 무한한 부로 인도하기 바란다.

교황[2]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말했다. "교회는 신자들이 명확한 윤리적 의무의 |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 부富를 획득하고 보존할 수 없다는 충고를 거두어들일 수 없습니다. 이와 상반된 처신은 교회의 주님이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던 원칙을 잊고 말 것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 주님' 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하늘에 계신 성부의 뜻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 7,21 참조) 그분은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 말씀하셨으며(마태 7,13-14 참조)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SP, 1957년 3월호, 3쪽

2. 당시의 교황은 1939년-1958년까지 교황 직분을 수행하신 비오 12세이다.

(루카 13,24) 그분은 당신 자신에 대한 사랑의 특별한 표지요 시금석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 14,15 참조)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한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자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닮으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이셨습니다.(루카 9,23 참조)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곧 아버지, 어머니, 자식과 최상의 부富인 자기 목숨까지 버릴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마태 10,37-39 참조) 그 다음 그분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의 벗인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루카 12,4-5)

확실히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아시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선과 사랑이 충만한bonitate et amore plenum' (예수성심 대축일 전례 기도문) 당신 성심의 무한한 완전함으로 인간의 마음을 당신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교육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이신 성 바오로께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설득력 있는 주장을 열렬하게 펼치면서 초자연적 세계에 대한 매혹적인 신비를 드러내셨고,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 신앙 안에 내재된 부富, 힘, 축복, 행복을 설명하셨고, 인간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땅히 바라야 할 대상으로 제시하며, 순수하게 매진해야 할 사랑을 저항할 수 없는 목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훈화처럼 참된 가르침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필리 2,12) 그리고 당신 펜을 통해 숭고한 윤리규정이 샘솟듯 터져 나와 모든 신자에게 전해졌고, 이들 모두가 지성을 공유하고 숭고한 감성의 영혼을 지니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의 말씀을 강력한 규범으로 받아들인다면, 오늘의 교회가 엄격함보다는 상냥함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거슬러 기치를 내건 '새로운 윤리'로 말미암은 반대자들의 강력한 비난은 실제로 흠숭을 드려야 할 그리스도의 위격에 제일 먼저 타격을 입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특히 복음에 반대되는 윤리를 지향하는 순결, 정결의 문제에 관한 내용은 심각하다.

이들은 자유를 앗아가는 것은 욕정이라 단언하면서, 동시에 일종의 타락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으며, 교회는 그 계명을 가르친다. 그 계명을 우리는 '주관적으로' 우리 욕정에 맞추어 해석하고 이해할 수는 없다. 우리는 그 계명을 '객관적인' 규범이요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그 계명에 우리 사고방식을 부합시켜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권리를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느님의 권리에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양심의 과제는 보편적인 법(인간의 외적 규율)에서 출발하여 그 법을 특정한 경우에 적용시키면서 절박한 행위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의 행동거지가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연법에 부합하며 긍정적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새로운 윤리'는 일반원칙 (예를 들면 여러 계명)에 토대를 두지 않고, 오히려 행동해야 하는 특별하고 구체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을 통해[3] 좋아하는 것이나 유익한 것, 또는 널리 확산된 여론이나 환경 또는 주변 정황에 따라 행동한다.

'새로운 윤리'는 오늘날 아주 폭넓게 퍼지고 있으므로 교육자는 자기 행위를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것에 전적으로 토대를 두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가장 중대한 잘못에 대해 "나는 그렇게 보았다."라고 변명한다. 성 바오로는 '마비된' 양심(1티모 4,2 참조)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다.

'새로운 윤리'나 '상황윤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감의 가치를 부정하고 교회의 복음선포를 뿌리째 뽑아버린다.

교육자는 규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되풀이하는 사람이다. 법률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피교육자는 겸손하게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에 따라 양성되어야 한다.

---

3. 다시 말해 인간의 권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동기를 통해….

3. 교 육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하느님에게서 나와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이다. 길이신 그리스도는 진리, 귀감, 하늘에서 가져온 은총을 통해 인도하신다.

이러한 여정은 실천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거기에 삶을 일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하고 정하는 내적 외적인 개별 행위다. 만일 양심이 아니라면, 특별한 경우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영적인 어떤 능력이 인간의 의지에 지시할 수 있을까? 따라서 양심은 인간행위에 대한 신적 규범을 반영한 충실하고 투명한 울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양심의 판단'이라는 표현이나 '그리스도인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는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곧 윤리행위를 위한 개인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규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에 따라 선택하게 된다. 그분은 실제로 길 진리 생명이시고, 모든 인간을 위해서뿐 아니라 각 개인을 위해서도 길 진리 생명이 되셨다.(요한 14,6 참조) 성숙한 사람과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해서도 그와 같은 분이시다.

그러한 사실에서 어린이나 젊은이에게 그리스도교적 양심을 양성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뜻과 법과 삶으로 그들의 지성을 비추어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자유롭고 항구하게 실행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외면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데에 있다.

교황은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가장 고귀한 과제입니다."라고

SP, 1957년 3월호, 4쪽

말한다.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그리스도교 도덕률을 쉽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가?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진 창조주의 법에서(로마 2,14-16 참조), 계시에서, 여러 면에서, 곧 천상 스승이 가르쳐주신 진리와 계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

마음에 새겨진 법, 다시 말해 자연법이든 구세주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진리와 초자연적 계시의 규범이든, 두 가지 모두 인류의 윤리적 보배로 교회에 맡겨졌다. 그리하여 교회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온갖 부패와 오류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를 받고, 손상되지 않게 보존된 이 두 요소를 모든 피조물에게 설교하고 설명하고 전달한다.

4. 젊은이와 어른을 탈선에서 구할 것

어린이와 젊은이는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다. 그러나 교육은 목적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언제나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을 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그리스도인, 수도자, 사제라는 다양한 기준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양심, 수도자의 양심, 사제의 양심에 부합하게 살아야 한다.

첫째, 언제나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교의, 계명, 은총의 수단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수도자의 양심은 수도자의 고유한 기도정신과 수도생활을 지탱해주는 진리와 규정에 관한 교육을 덧붙이라고 요구한다.

셋째, 사제는 진리, 삶, 사제의 신심과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그의 직무와 의무에 필요한 교육을 풍부하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리, 은총, 성성의 보화를 나누어주는 분배자요 하느님의 일꾼으로서 고유한 사도직과 성화의 수단에 관한 교육도 많이 받아야 한다.

그 자체로 아주 치명적이고 양심을 파멸시키는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사제는 남녀 수도자의 양심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또 수도자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나 정직한 사람의 양심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원칙, 규정, 책임, 의무가 아주 다르므로 실천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도자는 수도자로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다. 각자의 신분에 따라 사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다. 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제6계명을 지킬 의무가 있지 않은가? 수도자에게는 회헌이 정한 보호수단을 실천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수도자에게는 공동생활을 통해 수도서원을 실천해야 할 자기 성화라는 첫째가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

지원자, 특히 젊은 서원자 그리고 종신서원자와 사제들이 귀나 눈을 지나치게 세상에 열어놓고, 세속적인 처세술과 사례에 지나치게 개방되면 결국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만다.

5. 의지를 강화할 것

교육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교육자는 피교육자가 하느님의 뜻을 자유롭고 항구하게 선택하고 실행하도록 그의 영혼을 이

끌 수 있고, 이끌어주어야 한다. 여기서 '자유롭고 항구한' 선택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한 선택은 강요하는 것도 이론적인 권고사항으로 축소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피교육자를 설득하고, 되풀이해서 가르쳐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교정矯正하는 것을 말한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2티모 4,2) 여기서 교육자에게 주도적 정신, 선하고 확고한 마음, 기도와 이해를 포괄하는 아주 방대한 영역이 펼쳐진다.

주님께 대한 활기찬 사랑,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의 모든 명령은 지혜와 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의 현세와 영원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습관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확고한 방법을 형성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설교를 통해 윤리적 삶에 대한 확인, 곧 영원한 상과 벌에 대해 끊임없이 제시하셨다. 그분은 착하고 충실한 종의 영원한 행복을 묘사하셨다. 그리고 쓸모없고 불충한 종의 영원한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도 설명해 주셨다.

그분은 충실한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미리 선포하셨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마태 25,34] 마찬가지로 불충한 이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단언하셨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마태 25,41]

주님은 두 개의 길, 곧 하나는 넓은 길, 다른 하나는 좁은 길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그 두 개의 길은 아주 다른 결말로 이끌어 간다.

그분은 당신 때문에 고통받고 모욕받고 박해받는 이들에게 큰 상을 약속하셨고(마태 5,12 참조), 완고한 위선자들과 박해자들에게는 영원한 징벌을 선고하셨다.

그분은 목마른 사람에게 한 잔의 물을 주는 사람도 당신의 상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라고도 말씀하셨다.

그분은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서 살아생전 즐겁고 호화롭고 냉혹하게 살았지만 죽은 후에 영원한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는 부자와, 생전에 굶주리고 병들었지만 잘 견뎌냈고,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라자로를 비교하셨다.

6. [마리아께 대한 신심]

섬세한 양심, 양심의 목소리에 민감하며, 죄를 뉘우치고 행한 선을 기뻐할 줄 아는 양심을 형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심이란 비추어주고, 섬세하며, 실천적이고, 기도하게 해주는 신심을 뜻한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순결하고 이상적인 분이시기에 죄, 위험한 기회, 가벼운 죄[4]를 짓게 하는 기회를 매우 두려워하셨다. 마리아는 은총이 충만한 분, 하느님과 가장 친밀한 피조물,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복된 어머니, 우리에게 사랑을 불어넣어주시고, 순결과 희생과 성소에 대한 열망 등을 낳게 하신 분이다. 마리아는 은총의 보편 중개자, 우리를 위한 부지런한 어머니로서, 위험에 처해 있거나 가엾은 자녀들의 모든 애원을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분을

4. 곧 소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영혼은 곧바로 평안해지고, 불순한 악마가 멀리 사라지고, 용기를 되찾게 되며, 마음이 열정으로 불타게 된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형성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섬세한 양심을 지니게 하는 것이다.

SP, 1957년 3월호, 5쪽

7. [사말에 대한 묵상]

그리스도인의 양심, 특히 수도자의 양심, 사제의 양심을 형성하기 위해 전적으로 필요한 수단은 바로 사말에 대한 묵상이다.

사말은 다음과 같다. 영혼 불멸, 육신과 영혼의 일시적인 분리인 죽음, 사심판, 천국, 지옥, 연옥, 육신의 부활이다.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차지하여라." 그리고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실 최후심판,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지옥으로 내려가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영원한 벌 등이다. 그러므로 묵상의 주제로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에 관한 주제 선택은 우리 의지에 달려있다.

한 해의 묵상은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수단, 온 힘과 정신과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 4개월씩 묵상한다. 그렇게 매년 묵상을 넓혀가고 깊여가며 매년 반복하면서 완덕의 거룩한 산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간다.

* * *

수도회는 사말에 대한 묵상을 잘 하는 그만큼 회원들의 활동과 성덕에 있어 진보할 것이다. "너 왜 여기에 왔는가?"[5]라는 [물음]을 잊는다면 내리막길에 서게 된다.

사말에 관해 많은 것을 묵상할 줄 안다면 풍요로운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시작과 마지막에 사말을 다른 것과 연결시킨다면 영원의 문 앞에 연약한 우리 삶의 작은 배의 닻을 내려 정박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윤리'에 대비하는 교리와 현대적인 설교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현대적이어야 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죽음은 언제나 똑같다. 따라서 대비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직무를 망치게 되고, 젊은이들이 사도직을 경시하게 되며, 심리적 예민함의 결핍으로 드러난다.

천상 스승의 생애, 설교, 수난과 죽음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분의 교리는 모두 근본적이고 영원한 진리에서 나온 구체적인 것이다.

윤리법에 따른 심판과 영원한 벌은 모든 사람에 대한 근본문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윤리법에 맞추어 질서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규정이 쓸모없게 되며, 각자 제멋대로 살게 될 것이다.

잘 제시한 사말은 양심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미성숙과 성장단계의 여러 현상인 과잉과 결핍이 번갈아 자주 일어나는 내면적이고 생생한 경험을 하는 관대한 젊은이에게 사말은 촉진하

5. "ad quid venisti?"는 성 베르나르도가 자신에게 던진 유명한 질문이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질문을 자주 인용함으로써 바오로 성소의 목적을 상기시켰다.(「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197항 참조)

고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적 자연적 '규제'라는 동인도 유익하지만, 그 누구도 인간 내면에서 격려하고 억제하는 탁월한 최고의 실재를 의심할 수는 없다. 계시 질서에서 죽음, 심판, 지옥, 천국은 도래할 것에 대한 '훈계' 또는 예고다. 양성의 위대하고 긍정적인 수단이다. 역사적 측면, 섭리, 긍정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적합한 방식으로 사말을 잘 제시해야 한다.

사말에 관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교육하거나 두려움을 강조하는 그릇된 방법을 도입한다면 우리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한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교육수단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수도자의 양심을 형성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심각한 탈선일 것이다.

현 삶에서 인격, 성격, 유리한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가치있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셨던가? 사도들을 어떻게 양성하셨던가? 혹시 세속 재산을 허용하셨던가? 그 대신 희생, 수고, 박해… 등을 선포하셨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르 8,3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요한 16,20]

8. [맺음말]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젊은이는 자기 신앙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어떠한 대가든 치러야 합니다. 연약한 유

년기부터 자기 신앙을 위해 희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하느님 앞에서 올바른 양심으로 걸어가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존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교육자는 피교육자에게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에 따라 깊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명시할 것이다. "하느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행하기를 바라며 의무를 지우신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분께 도움을 청하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교황 비오 12세는 "청년기의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을 통해 기도의 정신을 키울 필요가 있으며 고해성사, 영성체, 전례를 활용해야 한다. 교회법에 따르면 이러한 것은 '성화와 구원의 기본수단'이다.

고해성사 곁에 또는 고해성사와 더불어 '영적 지도'가 필요하다. 영적 지도는 우리 회원의 양성을 위해 1914년 이전과 그 이후, 이 용어를 사용했든 안했든[6] 항상 길과 수단이 되었다.

개별적 지도든, 일반적 지도든, 지속적이든, 간헐적이든 영적 지도를 받아야 한다. 교황 레오 13세는 특히 성소 차원에서 영적 지도는 윤리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멈춰 서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은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일어나 다마

6. '영적 지도'라는 용어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초창기 지원자들에게 해준 양성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했다. 권고, 개인 면담, 저녁시간에 공적 사적인 훈화를 통해 교육학적 본질을 실현했다.

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네가 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모든 일에 관하여 거기에서 누가 너에게 일러 줄 것이다."[사도 22,10]

교황 비오 12세는 그의 담화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끈기 있고 인내심 있게 돌보면서 어린이들의 양심을 키우십시오. 그들에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먼저 진실해야 합니다. 순수하지 않거나 진실이 아닌 것은 교육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순수한 개념을 젊은이의 양심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합당하고 고유한 자유의 개념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고해성사와 성체성사에서 본성이 줄 수 없는, 넘어지지 않는 힘, 다시 일어서는 | 힘을 길어내고 기도하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 힘의 도움 없이 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으며, 그저 정직한 사람도 될 수 없음을 젊어서부터 느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7]

SP, 1957년 3월호, 6쪽

하느님 은총의 도움과 교육과 훈련을 통해 비추임을 받고, 자유로우며 실천적이고 올바르게 활동하는 양심을 형성해야 한다.

'새로운 윤리'와 주관적 윤리의 위험에서 구원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고 강하며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때 양심의 소리는 성 보나벤투라가 쓴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고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반포하는 사람처럼' 하느님 음성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

7. 교황의 말씀은 1952년 3월 23일 그의 담화에서 다시 언급한다.

발행일 | 2015년 12월 8일
옮긴이 | 이 창 욱
펴낸곳 | 바오로딸